

서울로 7017 시민 이용실태와 주변지역 변화

라도삼 반정화 이정현

A Study on the Use of Seoulo 7017 and Its Effect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로 7017
시민 이용실태와
주변지역 변화**

\ 연구책임

라도삼 전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연구진

반정화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이정현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서울로 7017, 시민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주변지역과 연계로 활성화에 주력 필요

공원화사업 거쳐 ‘차량길’에서 ‘사람길’로 거듭난 서울로 7017

2017년 5월 20일, 산업화 시대의 유산이자 서울의 상징적 구조물이었던 서울역 고가가 ‘차량길’에서 ‘사람길’로 재탄생했다. 서울역 고가는 2006년 정밀안전진단 안전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철거가 결정되었다. 이후 철거를 미루다 2014년 박원순 시장이 재선되면서 전면철거보다 재활용을 통한 지역재생이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공원화 사업을 거쳐 ‘서울로 7017’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재탄생한 ‘서울로 7017’은 주변지역의 통합재생이 목적이다. 철도로 단절된 서울역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여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고, 재활성화하자는 게 사업의 목적이다. 이에 서울로 7017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17개의 보행길로 구성되어 있다.

645개 원형 화분에 24,805주 수목 심어진 공중공원으로 ‘새숨결’

서울로 7017은 국제 현상설계공모로 당선된 비니 마스(Winy Maas)의 ‘서울 수목원’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다. 최고 높이 17m, 총 길이 1,024m의 고가를 공중(空中) 정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계획안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645개의 원형 화분이 설치되었고, 각 화분에 ‘가나다’순의 수목 학명에 따라 총 228종, 24,805주의 수목이 식재되었다. 1km 넘는 길이의 공원이 조성된 것이다.

서울로 7017에는 수목 이외에 19개의 편의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이 중 10개는 문화콘텐츠 시설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장미무대, 목련무대, 담쟁이극장, 정원교실, 서울로전시관과 트램펄린(trampoline)이 설치된 방방놀이터, 족욕체험이 가능한 공중자연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 공식기념품을 판매하는 서울로가게와 종합관광정보센터인 서울로 안내소를 비롯해 목련다방, 수국식방, 서울화반 등 카페와 음식점도 설치되어 있다.

‘슈스트리’ 등 811개 프로그램 운영...작년 개장 이후 연말까지 741만 명 방문

2017년 5월 20일 개장 이후 12월 31일까지 서울로 7017을 찾은 방문객은 약 741만 명이다. 짧은 기간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고가를 찾았다.

고가의 활성화를 위해 시가 집중된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다. 여러 논란을 일으켰던 ‘슈스트리’를 포함하여 총 811개의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74만 명에 이르렀다.

주요 행사는 계절축제, 시민봉사단인 초록산책단에서 운영하는 상설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낮잠의 여유, 노천보드게임카페, 여행자 북클럽 등)이다. 서울로운영단이 주관한 프로그램이 총 467회 개최되었고, 거리에술시즌제 등 협력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행사가 총 344회 열렸다.

행사는 대부분 고가 상부에서 개최되었다. 서울로 7017 일대라고 표기된 프로그램을 제외한 전체 프로그램의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79.4%가 고가 상부에서 개최된 프로그램이다. 서울로 7017 일대라고 표기된 프로그램 또한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고가 상부에서 개최된 프로그램이다. 그만큼 고가 자체의 활성화에 집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로 7017의 이미지는 보행로·공원... 긍정어가 부정어의 1.9배

전체적으로 서울로 7017에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뉴스와 블로그를 분석한 결과, 형성되는 이미지는 보행로와 공원이었다. 또한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었다.

우선, 2017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뉴스와 블로그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총 버즈량은 32,346건이었다. 뉴스 데이터는 총 6,393건이었고, 블로그 데이터는 25,953건이었다.

버즈량 추이를 살펴보면, 개장일이 포함된 5월(7,642건)과 6월(6,070건)에 가장 많았고, 이후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서울로 7017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키워드 분석 결과 공간의 성격은 ‘보행’과 ‘공원’이 압도적이었다. 이슈로 제기된 키워드는 ‘안전’과 ‘설치’ 등이었고, 방문목적 및 이용형태로 나타난 키워드는 ‘맛집’, ‘관광’, ‘여행’ 등이었다.

시기별 키워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시기를 개장 전(2017.1.1.~5.19.)과 개장 초기(5.20.~7.31.), 개장 중기(8.1.~9.30.), 개장 후기(10.1.~11.30.)로 나눠 분석한 결과, ‘공간 성격’은 시간이 갈수록 ‘공원’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이슈’는 슈즈트리에 대한 관심에서 ‘안전’과 ‘설치’ 쪽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었다. ‘방문목적 및 이용형태’와 관련된 키워드는 ‘맛집’이 가장 많았고, 개장 후기로 갈수록 ‘코스’, ‘야경’, ‘데이트’ 등의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반적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노출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긍정어가 부정어보다 1.9배 많았다.

종합해 보면, 개장 초기 서울로 7017은 보행공간이란 특성에 시가 주도한 여러 행사에 관심이 많았으나, 개장 이후 전반적인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보행보다는 공원의 특성을 가진 공간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민들은 주로 휴식, 산책, 도시 조망 위해 이용...만족도도 높아

서울로 7017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로 7017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관찰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는 개장 효과와 계절 효과 등을 고려해 8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단위로 300명씩 총 3번 실시했으며, 관찰조사는 11월 둘째 주 목~일요일 주중과 주말로 나눠 총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응답자가 서울로 7017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형태는 주로 연인과 친구,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시간은 아주 짧거나(30분 미만) 조금 길게(1시간~1시간 30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목적은 휴식 및 산책이 많았고, 호기심이나 도시조망을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도 있었다.

가장 많이 한 행위는 걷기였다. 그 다음으로는 앉아서 쉬기, 사진찍기, 주변지역 조망 등의 행위 순이었다. 그러나 공연이나 전시 참여도는 낮았고, 시설이용률도 높지 않았다.

관찰조사 역시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설문조사에 비해 관찰하기 편한 1인 방문자를 많이 관찰하다 보니 다소 왜곡된 부분도 있지만, 조사 결과 이용시간은 평균 21.49분이었으며 시속 1.85km의 속도로 매우 느리게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걸으면서 하는 행동은 식물관람과 대화하기, 도시조망, 사진찍기 등이었다. 또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역광장과 남대문로를 조망할 수 있는 방방놀이터와 목련무대, 장미무대 인근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서울로 7017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좋다는 응답(5.49)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지역 조망공간(5.54)으로서, 걸으면서 사색하는 공간(5.40)으로서,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5.26)으로서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로 7017 자체가 산책공간으로서, 식물을 관람하고 도시를 조망하는 공간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주변지역 방문발길 많지 않아... 만리동 등 지역변화는 아직 없어

활성화된 고가와 달리, 주변지역을 방문하는 발길은 그리 많지 않았다. 방문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방문자 중 23.8%가 주변지역 방문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관찰조사로 살펴본 결과, 주변지역을 방문하는 사람 수가 손을 꼽을 정도로 적었다. 그나마 주변지역을 이용하는 방문자는 남대문시장과 서울역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서계동이나 만리동, 중림동 등은 해당 방향의 고가출입구를 이용하는 사람도 적을 정도로 한산했다.

이런 흐름은 지역주민들도 느끼고 있었다.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느끼는 지역변화 체감도는 크지 않았다. 주민들은 방문객이나 지가임대료 등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오히려 몇몇 상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소의 방문객과 매출액, 수입 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복잡한 서울로 7017과 달리 주변지역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남대문시장과 서울역광장 주변, 중림동 지역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선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 향후 방문객 수, 지가 및 임대료 등이 상승할 것으로 보았고, 업종 변화 또한 일어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역적으로는 만리동과 서계동의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새롭게 들어설 업종으로는 카페와 음식점을, 줄어들 업소로는 자동차나 봉제 관련 업소를 예상했다.

대다수 전문가 “주변지역 연결하는 허브 역할이 최우선 과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로 7017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전문가 포럼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서울로 7017의 역할을 강조했고, 향후 발전방향 또한 이를 중심으로 구상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 포럼 횡수는 총 3회였고, 참여한 전문가는 12명이었다.

우선 보행로와 공원이라는 2개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체성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므로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았다. 더불어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로 7017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운영시설, 프로그램 등 모든 것을 고가 안에 배치하고 고가 활성화에만 주력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 동서 방향으로 길게 뻗어있고, 주변지역과 연결되는 특징을 가진 서울로 7017의 공간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며, 고가 안에 집중된 에너지를 주변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변지역을 연결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협업이 가능한 관련 조직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불어 주변의 문화자원들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서울로 7017이 가진 주요한 특성인 조망가치를 극대화하자는 것도 강조되었다. 서울로 7017을 조망할 수 있는 주변 빌딩의 옥상을 개방하여 서울로 7017을 색다르게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 외에 홍보 및 안내체계 개선, 편의시설 재구성 및 운영주체 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전 및 전략 수립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고가 자체는 매우 성공적... 주변지역 활성화에 더 주력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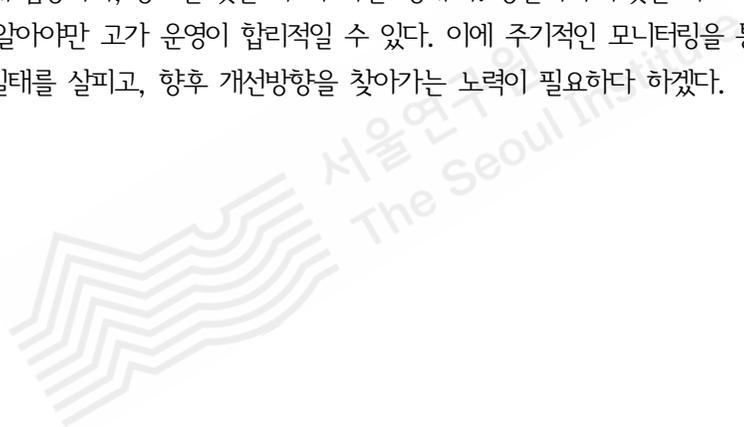
개장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서울로 7017은 시민들의 산책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 흐름은 일정 정체를 형성한 양상이다. 그러나 그 변화는 매우 제한적이

다. 이제는 지역으로 펼쳐나가 변화를 일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가 내와 고가 주변 사이 소통의 관계를 넓혀야 한다. 고가 위에서 고가 주변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고가 주변에서 고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가 내에서의 행위보다 고가와 주변을 연결하는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서울로운영단>과 주변지역 운영주체들과의 관계도 긴밀해져야 한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포함하여 <문화역서울284> 등과의 관계도 넓혀야 한다. 서울역과의 관계도 넓혀야 하고 만리동과 서계동, 회현동, 남대문시장 등과도 넓은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에 <서울로운영단>과 별도로 서울로 7017 운영과 관련된 거버넌스 조직을 폭넓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체계 또한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방문객 수 집계에만 집중하나,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닌 ‘행태’다. 방문자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만 고가 운영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에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로 7017 운영실태를 살피고, 향후 개선방향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배경과 목적	2
2_연구내용과 방법	3
02 공간 조성 및 운영 현황	8
1_조성 배경 및 과정	8
2_조성 현황	14
3_운영 현황	19
4_이용 현황	23
03 여론에 나타난 서울로 7017 이미지 분석	28
1_분석 방법	28
2_버즈량 변화	30
3_관심 키워드 변화	31
4_긍정·분석 태도 변화	40
04 서울로 7017 이용실태 분석	44
1_방문객 인식과 이용실태	44
2_방문객 행태 분석	60

05 서울로 7017 주변지역 변화 분석	74
1_서울로 7017 인식	78
2_서울로 7017 조성 이후 지역 변화	79
3_서울로 7017 향후 발전방향	86
06 결과 토론 및 정책 제언: 서울로 7017 발전방향	92
1_전문가 진단: 서울로 7017의 향후 과제	92
2_결론 및 제언	99
참고문헌	103
부록	104
Abstract	123



표

[표 2-1] 서울로 7017 추진경과	10
[표 2-2] 서울로 7017 식물 현황	15
[표 2-3] 서울로 7017 편의시설 현황	17
[표 2-4] 서울로 7017 관리시설 현황	18
[표 2-5]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로 7017 내 편의시설	20
[표 2-6] 서울로 7017 계절축제	21
[표 2-7] 초록산책단 운영 상설프로그램	22
[표 2-8] 기타 서울로운영단 주관 프로그램	22
[표 2-9] 프로그램이 진행된 공간 현황	23
[표 2-10]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 현황(공간 기준)	24
[표 2-11]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 현황(프로그램 주체 기준)	25
[표 3-1] 전체 데이터 범주별 키워드 빈도표	32
[표 3-2] 뉴스 데이터 범주별 키워드 빈도표	34
[표 3-3] 블로그 데이터 범주별 키워드 빈도표	35
[표 4-1] 서울로 7017 이용자 설문조사 개요	44
[표 4-2] 서울로 7017 이용자 설문조사 시 기상조건	45
[표 4-3] 서울로 7017 이용자 설문조사 표본 특성	46
[표 4-4] 출발지점-도착지점 상위 7개 패턴	52
[표 4-5] 서울로 7017 이용시민 관찰조사 개요	60
[표 4-6] 서울로 7017 이용시민 관찰조사 시 기상조건	60
[표 4-7] 서울로 7017 이용시민 관찰조사 표본 특성	61

[표 4-8] 이용시민 관찰조사 - 출발지점-도착지점 상위 7개 패턴	63
[표 4-9] 서울로 7017에서 나타나는 선택적 행위 횟수 및 시간	66
[표 4-10] 기본적 행위와 선택적 행위 현황	69
[표 4-11] 평일-주말의 평균 체류시간, 이동거리, 속도, 서는 횟수, 보행시간, 멈춤시간 비교	70
[표 4-12] 평일-주말의 주요 선택적 행위 평균 횟수 및 시간 비교	70
[표 4-13] 오전-오후-밤의 평균 체류시간, 이동거리, 속도, 서는 횟수, 보행시간, 멈춤시간 비교	71
[표 4-14] 오전-오후-밤의 주요 선택적 행위 평균 횟수 및 시간 비교	72
[표 4-15] 인원수별 평균 체류시간, 이동거리, 속도, 서는 횟수, 보행시간, 멈춤시간 비교	72
[표 4-16] 인원수별 주요 선택적 행위 평균 횟수 및 시간 비교	72
[표 5-1] 서울로 7017 주변지역 설문조사 개요	74
[표 5-2] 서울로 7017 주변지역 설문조사 표본 특성	75
[표 5-3] 서울로 7017 주변지역 설문조사 중 주민 표본 특성	76
[표 5-4] 서울로 7017 주변지역 설문조사 중 상인 표본 특성	77
[표 6-1] 전문가 포럼 개최 현황	92
[표 6-2] 전문가 포럼 주요내용 요약	98

그림

[그림 1-1] 연구체계도	5
[그림 2-1] 17개의 보행길	11
[그림 2-2] 서울로 7017 국제 현상설계 당선안(비니 마스(Winy Maas) - 서울 수목원)	12
[그림 2-3] 서울로 7017 비전과 전략	13
[그림 2-4] 서울로 7017 출입지점 현황	14
[그림 2-5] 서울로 7017 공간구성 현황	16
[그림 2-6] 서울로 7017 운영 조직	19
[그림 2-7] 서울로 7017 월별 방문객 현황(2017)	24
[그림 3-1] 서울로 7017 빅데이터 조사 프로세스	29
[그림 3-2] 월별 버즈량	31
[그림 3-3] '공간의 성격' 시기별 키워드 빈도	36
[그림 3-4] '이슈' 시기별 키워드 빈도	37
[그림 3-5] '프로그램' 시기별 키워드 빈도	38
[그림 3-6] '방문목적 및 형태' 시기별 키워드 빈도	39
[그림 3-7] '주변지역' 시기별 키워드 빈도	39
[그림 3-8] 전체 데이터의 긍정어/부정어 빈도 및 월별 추이	40
[그림 3-9] 뉴스 데이터의 긍정어/부정어 빈도 및 월별 추이	41
[그림 3-10] 블로그 데이터의 긍정어/부정어 빈도 및 월별 추이	41
[그림 4-1] 서울로 7017에 대한 사전 인식	47
[그림 4-2] 서울로 7017 방문횟수	47
[그림 4-3] 서울로 7017 방문 시 동반자	48

[그림 4-4] 서울로 7017 방문목적	49
[그림 4-5] 서울로 7017 출입구 이용현황	51
[그림 4-6] 서울로 7017 주요 체류구역	53
[그림 4-7] 서울로 7017 체류시간	53
[그림 4-8] 서울로 7017에서 하는 주요 행위	54
[그림 4-9] 서울로 7017에서의 이용시설	55
[그림 4-10] 서울로 7017 이용 전이나 이용 후에 방문한 지역	57
[그림 4-11] 서울로 7017에 대한 생각	58
[그림 4-12] 서울로 7017의 향후 발전방향	58
[그림 4-13] 서울로 7017이 시민여가문화공간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	59
[그림 4-14] 서울로 7017 출입구 이용현황	63
[그림 4-15] 서울로 7017 평균 총 체류시간	64
[그림 4-16] 서울로 7017에서 가장 많은 멈춤이 일어나는 지역	65
[그림 4-17] 서울로 7017 선택적 행위 비율	66
[그림 4-18] 식물관람 행위가 나타나는 지점	67
[그림 4-19] 도시조망 행위가 나타나는 지점	67
[그림 4-20] 사진찍기 행위가 나타나는 지점	67
[그림 4-21] 문화 및 체험활동이 나타나는 지점	68
[그림 4-22] 평일 관찰조사 결과 주요 행위	70
[그림 4-23] 주말 관찰조사 결과 주요 행위	71
[그림 5-1] 서울로 7017 방문경험 및 방문횟수, 방문목적	78
[그림 5-2] 서울로 7017 사업에 대한 태도 및 조성에 대한 생각	79
[그림 5-3] 지역방문객 및 자가, 임대료 변화에 대한 현재까지의 흐름과 향후 전망	80
[그림 5-4] 본인 업소 방문객 및 매출, 수입 변화에 대한 현재까지의 흐름과 향후 전망	80
[그림 5-5] 현재 방문객이 증가했거나 향후 증가할 지역	81

[그림 5-6] 현재 지가 및 임대료가 증가했거나 향후 증가할 지역	82
[그림 5-7] 업종 변화의 현재까지의 흐름과 향후 전망	82
[그림 5-8] 향후 늘어나거나 줄어든 업종	83
[그림 5-9] 현재 업종 변화가 나타났거나 향후 나타날 지역	83
[그림 5-10] 현재까지의 지역 변화 및 향후 지역 변화에 대한 전망	84
[그림 5-11] 서울로 7017 조성 이후 내 삶의 변화	86
[그림 5-12] 서울로 7017에 대한 생각	87
[그림 5-13] 서울로 7017의 향후 발전방향	88
[그림 5-14] 서울로 7017이 시민여가문화공간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	89



01

연구개요

- 1_연구배경과 목적
- 2_연구내용과 방법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01 | 연구개요

1_연구배경과 목적

1) 공간은 문화를 결정하는 힘, 모든 공간에는 문화가 있어

모든 곳에는 문화가 존재한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관계없다. 하나의 공간이 형성되면 거기엔 문화가 있으며, 문화로 인해 공간은 정체(正體)된다.

공간의 문화를 결정짓는 것 중 하나는 공간의 구조와 형태다.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구조화되어 있는지에 따라 공간의 문화는 달라진다. 공간을 소비하는 사람이 달라지고, 공간을 찾는 사람들끼리의 관계, 공간을 대하는 태도와 행위 등이 달라진다.

덴마크 왕립대 교수이자 저명한 건축가인 얀 겔(Jan Gehl)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책 「Life Between Buildings」(「삶이 있는 도시디자인」, 김진우·이성마·한민정 옮김, 2003, 푸른솔)에서 가로환경이나 아파트 단지의 배치, 주차장이나 놀이터의 위치, 단지과 단지 간의 배치 등에 따라 사람들의 소통과 관계 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단지의 중앙에 있는 놀이터는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되지만, 아파트동에 맞닿은 주차장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주지 못한다. 즉, 기능성을 전제로 설계된 도시에서는 이동성이라는 ‘필수적 행위’만 할 뿐, 여러 곳을 보며 관찰하는 ‘선택적 행위’나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관계하는 ‘사회적 행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얀 겔의 생각이다.¹⁾ 1970년대 기능주의적 도시계획과 주거개발에 대한 ‘항의서’로 썼던 이 책은 도시의 공간과 구조의 형태가 시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주의 도시로의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1) 얀 겔은 걷기를 중심으로 도시의 공간을 혁신할 것을 요구한다. 도시를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여유있게 차를 즐기며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옥외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휴먼 스케일의 공간구조와 보행자 위주의 도시설계, 사람과 사람 간 대화와 소통이 전제하는 단지의 구성과 배치 등을 강조한다.

2) 연구목적은 ‘서울로 7017’에 형성될 문화 관찰

길이 1,024m, 폭 10.3m, 최고 높이 17m. 1970년 남대문로를 기준으로 서울역의 동쪽과 서쪽을 잇던 서울역 고가도로는 2017년 5월 20일 ‘차량길’에서 ‘사람길’로 변했다.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 마스(Winy Maas)의 설계로 총 645개의 화분에 24,805주(株)의 수목, 19개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었고, 17개의 연결 길이 조성되었다. 차가 통행하던 길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사람길’로 재탄생한 것이다.

‘서울로 7017’²⁾이라 명명한 이 프로젝트에 서울시가 투자한 돈은 공사비만 총 6백억 원이다. 여기에 총 811회 행사를 개최하였고, 많은 시민을 유입하고자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개장 이래 2017년 12월까지 서울로 7017을 찾은 방문객은 7백만 명이 상이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로 7017에는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일까? 또 주변지역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

개장 시점에 맞춰 우리 연구진은 서울로 7017에 형성되고 있는 문화와 그로 인한 지역변화를 관찰했다. 즉, 서울로 7017이 가진 공간구조와 운영전략,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용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 그곳에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지역 문화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로 7017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_연구내용과 방법

1) 이 연구는 공간구조 및 시민이용행태 등 다양한 변화 분석

이 연구는 서울로 7017의 문화와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서울로 7017 주변지역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이벤트가 지역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지 연구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서울로 7017에서 7017의 명칭은 1970년에 만들어져 2017년에 재탄생했다는 의미와 1970년 차량길에서 17개의 사람길로 변화했다는 의미, 그리고 1970년에 만들어진 17m 높이의 고가 등의 의미를 가진다. (“서울역 고가-서울역 인근 ‘통합재생’으로 지역경제 부활”, 서울시 보도자료, 2015.1.30.)

이를 위해 우리 연구진은 서울로 7017을 둘러싼 다각적인 현상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우선 서울로 7017의 조성과정과 형태, 운영방식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적했던 것처럼, 공간의 구조와 형태는 공간의 문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우리는 서울로 7017의 공간형태와 운영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여 공간조성자인 서울시가 어떤 의도를 갖고 공간을 조성·운영하려 했는지 파악해 보고자 했다.

둘째, 언론 등을 통해 형성되는 서울로 7017의 이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서울로 7017에 대한 찬반과 다양한 의제들을 분석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과 ‘선험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정체(正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두 번째 분석이다.

셋째, 공간을 이용하는 실제 시민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실제 서울로 7017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용행태는 어떠한지, 이용 후 느낌과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하여 서울로 7017에서 형성되는 행위행태를 분석하는 것이 세 번째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변화에 주목하고자 했다. 개장 이후 무려 7백만 이상이 방문한 서울로 7017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2) 개장 전부터 개장 이후 일정한 시점 단위로 조사해 변화 분석

우리 연구진은 이를 위해 공간 분석과 운영프로그램 분석, 뉴스 및 블로그 분석, 이용시민 대상 설문조사와 행태 분석,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어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각 항목에서 조사된 결과에 대해 토론했으며, 현재까지 나타난 변화특성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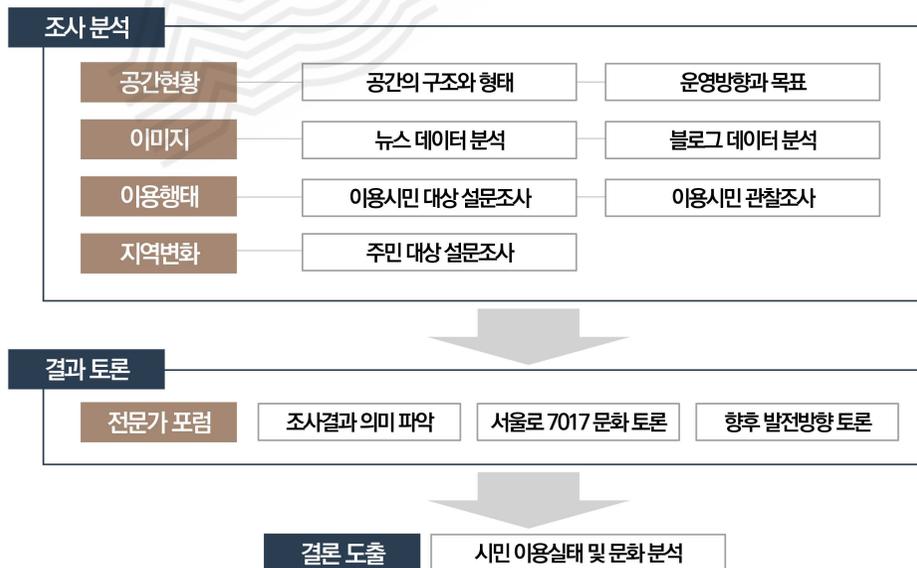
우선, 공간구조 및 운영현황 분석은 서울시 자료를 바탕으로 공간구조와 형태, 이용자 수, 운영방향 및 프로그램 등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둘째, 뉴스 및 블로그 분석은 2017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을 설정하여, 3개월 단위로 주요 (보도)태도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셋째, 시민 이용실태는 설문조사와 관찰조사를 병행해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관찰조사는 방문자를 직접 따라다니며 이용행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장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계절요인 등을 고려하여 8월과 10월, 12월 등 2개월 단위로 실시하였고, 관찰조사는 서울로 7017이 안정화된 11월 중순 평일과 주말로 나눠 총 4일간 실시하였다.

넷째, 지역변화 조사는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데이터에 의존해야 하는데, 공식적인 데이터는 2018년 이후에나 확인 가능하다. 이에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민 대상 면접조사를 통해 주민이 느끼는 변화의 체감도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즉, 주민시각을 통해 지역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전문가 포럼은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로 7017에서 형성되고 있는 공간의 문화와 지역의 문화, 그리고 현재 관점에서 필요한 서울로 7017의 발전방향과 운영 개선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전문가 포럼의 목적이다. 이상의 연구체계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체계도

02

공간 조성 및 운영 현황

- 1_조성 배경 및 과정
- 2_조성 현황
- 3_운영 현황
- 4_이용 현황

02 | 공간 조성 및 운영 현황

1_조성 배경 및 과정

1) 1970년에 준공된 서울역 고가도로, ‘사람 중심 보행공간’으로 재생

서울역 고가는 산업화 시대 서울의 상징적 유산이다. 서울역 앞 교통 혼잡 해소와 함께 도심부(퇴계로)와 서남부(제2한강교(양화대교) 및 서울대교(마포대교)) 간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0년 3월 1일에 개통³⁾된 이 고가는 서울역을 가로질러 동서를 연결하는 고가인 동시에 산업주의 문명의 상징물로서 서울의 위상과 권위를 상징했다. 1970년대 영화에서 보이는 이 고가는 대우빌딩과 더불어 상경한 시골 사람들이 처음 접하는 상징물로 서울의 복잡성과 위계성, 그로부터 나타나는 권위성을 상징했다. 이 권위 앞에는 누구도 반항할 수 없고, 오로지 ‘적응할 것’만 강요되었다.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서울역 고가와 주변지역은 노후하고 낡은 지역의 상징이 되었다. 1999년 IMF 외환위기와 더불어 추락한 대우는 더 이상 완생(完生)의 공간이 아닌 미생(未生)이었음을 증명했고, 그것은 드라마 ‘미생’으로 실체를 드러낸다. 더 이상 서울을 상징하는 공간이 아니라, ‘낡고 노후한’ 공간으로 전락했을 뿐이다.

1991년 처음 안전진단이 시행된 서울역 고가는 이후 지속적으로 안전진단과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 1995년에는 처음으로 철거에 대한 계획⁵⁾이 논의되었으며 2000년에 들어 논의는 더 확장되었다.⁶⁾ 그러다 결국 2006년 12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철거여부를 검토해야

3) 서울역 고가도로는 1970년 3월 1일 동자동 쪽 램프가 준공되면서 첫 번째로 개통되었다. 이후 1970년 8월 15일에 중림동과 청파동 남북 방향 두 갈래의 램프 공사가 완공되면서 두 번째로 개통되었고, 이날이 서울역 고가도로의 준공일로 간주되곤 한다. (조권중 외, 2016,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백서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연구원)

4) “근대화 상징서 흉물 전략...이젠 시민 산책로로”, 동아일보, 2016.9.28.

5) 1995년 4월 14일 최병렬 서울시장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울상징가로 및 국가중심가로 조성방안>에 서울역 고가도로의 철거와 철도노선 부지 복개, 서울역 광장 확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권중 외, 2016,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백서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연구원).

6)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서울 내 고가도로 철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고가도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주변지역 슬럼화를 부추기고 교통난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여건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고가도로는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서울시는 2002년 딱전고가도로를 시작으로 2015년 서대문고가도로까지 총 17개의 고가도로를 철거하였다. (김태안, 2015, “서울역 고가차도

하는 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2007년 3월에 철거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이 집행되지 못했고, 그 결과 고가훼손은 더 심해져갔다. 그러다 2014년 1월, 바닥 판 콘크리트가 탈락하면서 교량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다시 철거해야 할 위기에 빠진 것이다.

철거가 논의되던 서울역 고가는 2014년 박원순 시장의 재선으로 ‘재생’으로 논의가 변하게 된다. 민선 6기 공약으로 서울역 고가 공원을 제시했던 박 시장은 2014년 9월 뉴욕 하이라인 파크를 방문해서 ‘서울역 고가를 사람중심의 녹색 시민보행공간으로 재생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서울시는 2015년 1월 29일 서울역 고가를 재생하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전면철거가 아닌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서울역 일대를 통합재생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성화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재생 결정 이후 시는 국제 현상설계를 공모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 마스(Winy Maas)의 ‘서울 수목원’안이 당선되었다. 이 안(案)은 고가를 공중(空中) 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서울역 고가를 하나의 큰 나무로 설정하여 퇴계로~중림동까지 국내 수목을 학명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심고, 램프를 나뭇가지로 비유해 17개의 보행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심사 당시 콘크리트 구조물을 생명의 장소로 전환시킨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⁷⁾

비니 마스(Winy Maas)안을 바탕으로 서울로 7017은 탄력을 받아 사업이 추진되었다. 프로젝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교통문제와 상권위축 문제 등에 대한 토론회와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2015년 12월 13일부터는 차량을 통제시키고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7년 5월 20일 ‘서울로 7017’이라는 이름으로 개장되었다. 낡은 고가가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길로 재탄생한 것이다. 총 공사비는 597억 원이었고, 사업총괄은 안전총괄본부, 실시설계 및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운영은 푸른도시국에서 맡았다.

철거 및 재활용에 따른 교통처리대책, 『환경논총』, 56; 조권중 외, 2016,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백서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연구원

7) 서울시, 2017,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국제 현상설계공모” 기자설명회 자료

[표 2-1] 서울로 7017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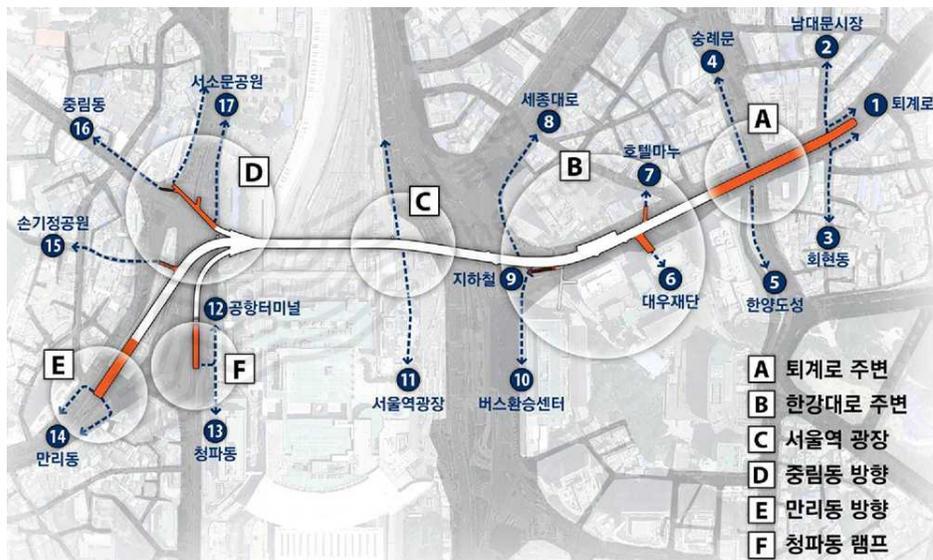
구분	내용
안전등급 D, 철거 결정	2006.12. 정밀안전진단 안전성 평가 D 판정
	2008.5. 서울역 북부역세권과 연계대체교량 설치
	2009.12. 서울역 고가를 북부역세권과 연계해 철거 추진
교량안전성 문제 제기	2014.1. 교량 안전성 문제 제기(바닥판 콘크리트 탈락)
	2014.2. 서울역 고가차도 조기철거 검토
고가차도 활용방안 검토	2014.3.~4. 서울역 고가 재활용 관련 구조안전성 검토(2회)
	2014.7.~8. 서울역 고가 재활용 관련 디자인·구조 전문가 합동회의(4회)
	2014.10. 시민 대상 서울역 고가도로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14.10.12. 서울역 고가 시민에게 하루(12시~16시) 개방
	2014.10.~12. 서울역 고가 재활용 사업 효과 분석(서울연구원)
시민참여 타당성 검토	2014.5. 민선 6기 공약으로 채택
	2014.7.~11. 민선 6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반영(시정계획자문단 운영)
	2015.3. 시민위원회 구성
	2015.5. 제1회 서울역 7017 시민위원회 개최
	2015.7. 제2회 서울역 7017 시민위원회 개최 및 분과위원회 구성
	2015.7.~8. 분과위원회별 제1차 회의 개최(기획운영, 문화관광, 기술자문, 도시재생)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발표	2015.1.29.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공식 발표
	2015.2.~4. 현장소통,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 100여 차례의 소통 추진
	2015.5. 현장 목소리 담은 「서울역 일대 종합 발전계획」 발표
서울역 고가 설계공모 시행	2014.9.~2015.1. 설계공모 사전 준비
	2015.1.29. 설계경기 공고
	2015.4.24. 작품 접수
	2015.5.13. 당선작 발표-비니 마스(Winy Maas)의 <서울 수목원: 하늘 정원> 당선
중앙정부와 협력	2015.11.25. 노선변경 승인(국도교통부)
	2015.11.30. 교통안전시설 심의(서울지방경찰청)
	2015.12.18.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문화재청)
서울로 7017 설계 및 공사 추진	2015.12.13.~ 서울역 고가 차량 통행 금지
	2015.7.~2016.8. 기본 및 실시설계
	2015.12.~2016.4. 서울역 고가 교량 바닥판 철거공사
	2016.3. 교량 보수보강 및 조경공사 착수
	2016.6. 건축공사 착수
서울로 7017 개장	2017.5.20. 서울로 7017 시민 개방

자료: 서울로 7017 홈페이지(<http://seoullo7017.seoul.go.kr/>); 김원주 외, 2016, 「서울역 7017 운영관리방안」, 서울시; 조명래, 2015, “도시재생으로서의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검토: 재생 방법론의 관점에서”, 『환경논총』, 56, pp.4~19; 서울역 고가 관련 서울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2) 서울역 고가를 차량길에서 '사람길'로 재생, 서울역 일대를 국제적 관광문화허브로 조성

서울로 7017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로 7017 자체도 중요하지만 서울로 7017을 매개로 주변지역의 통합재생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2015년 1월 발표한 '서울로 7017 프로젝트'의 핵심 사항은 서울역 고가를 주변지역 재생과 부흥의 촉매로 활용하여 사람을 모으고, 모인 사람의 활력을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량길이었던 고가를 사람길로 재탄생시키고, 주변을 17개의 사람길로 연결하여 도보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단절되었던 서울역 주변의 통행문화 등을 연결 통합함으로써 쇠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 서울로 7017 홈페이지(<http://seoullo7017.seoul.go.kr/>)

[그림 2-1] 17개의 보행길

이러한 내용은 서울역 고가 기본계획 국제지명 현상설계의 공모지침과도 연계된다. 공모 지침에는 '보존을 통해 도시 기억과 시민 공간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되어 있고, '기억의 보전', '새로운 공공공간 창출', '보행네트워크 회복' 등이 세부 목표로 제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선작인 비니 마스(Winy Maas)안은 이런 지침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⁸⁾



주: 화분 형태의 식재와 나뭇가지 형태로 접속되는 트리구조를 결합하여 도시공간으로 연계되고 확장되며 성장해 나가는 선형의 식물원

자료: 서울시, 2017,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국제 현상설계공모” 기사설명회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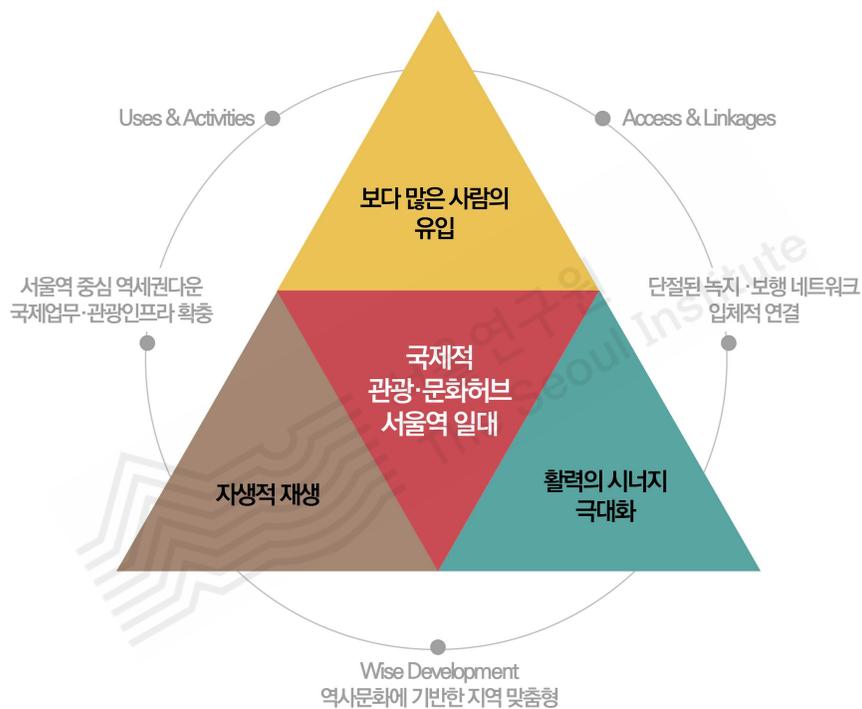
[그림 2-2] 서울로 7017 국제 현상설계 당선안(비니 마스(Winy Maas) - 서울 수목원)

개장된 서울로 7017은 17개의 사람길로 구성되어 있다. 고가 하나가 아니라, 주변지역을 연결하여 재생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끊어졌던 도시적 맥락을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테라스 브릿지 등이 설치되었고 이를 통해 만리동, 회현동 일대 1.7km 구간(서울로 7017 포함)의 여러 지역을 연결하였다. 보행중심의 연결성을 위해 서울시는 이 지역을 보행특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차마통행이 불가한 보행자 전용길로 지정⁹⁾하였다.

8) 비니 마스(Winy Maas)는 서울로 7017이 개장된 이후에도 연결로를 더 많이 내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했다. 현재의 서울로 7017은 출발점일 뿐이며, 앞으로 서울로 7017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통로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가 비니 마스 “서울로 7017은 미완성…더 많이 뻗어나가야”, 연합뉴스, 2017.9.6.)

9)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가도로’에서 ‘보행자도로’로 변경하였으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서울로 7017이 제시하는 비전과 전략 또한 마찬가지다. 웹 사이트에서 밝힌 프로젝트의 목표를 살펴보면, 서울역 일대의 변화의 필요성에 ‘서울관문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단절된 도시공간 통합 및 명소화’, ‘주변지역을 포함한 통합재생’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단절된 녹지·보행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좀 더 많은 사람을 유입하고, 역사문화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재생으로 활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국제업무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서울역 일대를 국제적 관광·문화허브로 만드는 것이 최종 비전이다.¹⁰⁾



자료: 서울로 7017 홈페이지(<http://seoullo7017.seoul.go.kr/>)

[그림 2-3] 서울로 7017 비전과 전략

따라 '보행자 전용길'로 2017년 4월 16일에 고시되었다. 전국 최초의 보행자 전용길로, 차량과 분리된 안전한 보행 전용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 10) 서울로 7017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서울로 7017 프로젝트 기대효과의 비전과 전략으로 ① 단절문제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하겠습니다, ② 사람을 모으고 머무르고 스며들게 하겠습니다, ③ 지역상권을 회복시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④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등 크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2_조성 현황

1) 최고높이 17m, 총 길이 1,024m, 17개의 연결로로 구성된 사람길

서울로 7017은 서울역 고가와 만리동광장, 퇴계로 교통섬 일대를 포함한다. 면적은 총 22,862㎡,¹¹⁾ 폭은 10.3m, 최고높이는 17m에 달하며 총 길이는 1,024m이다. 고가 남측에는 서울역(1호선, 4호선, 공항철도, 경의선, KTX), 동측에는 회현역(4호선), 북서측에는 충정로역(2호선, 5호선)이 있다. 인접한 문화자원은 문화역서울284, 국립극단, 남산공원 등이다.

연결로는 총 17개로 주변지역과 건물 등으로 이어져 있다. 이 연결로를 따라 총 11개의 출입구가 조성되어 있다. 출입지점은 엘리베이터(6개), 에스컬레이터(1개), 계단(5개), 경사로(2개), 공중연결통로(2개)¹²⁾ 등이다. 서울역과 주변지역에서 가능한 한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2-4] 서울로 7017 출입지점 현황

11) 고가 10,661㎡, 만리동광장 10,353㎡, 퇴계로 교통섬 1,843㎡의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공중 연결통로는 서울로 7017과 주변 건물을 연결해 주는 연결로로, 대우재단빌딩과 호텔마누를 직접 연결해 준다.

2) 228종, 24,805주 수목을 가나다순 식재, '살아있는 식물도감'이자 '공중정원'으로 조성¹³⁾

서울로 7017의 특징은 공중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총 645개의 화분이 있으며, 고가 상부에 486개, 자연지반에 158개가 있다.

화분형태 또한 다양하다. 어린이 셋이 두 팔 벌려 껴안을 수 있는 크기(지름 1,240mm, 둘레 3,893.6mm)부터 12명 이상이 안아야 할 초대형 화분(지름 4,800mm, 둘레 3,893.6mm)까지 총 66개의 다양한 종류의 화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화분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식재된 수목은 총 50과(科) 228종 24,085주다. 설치된 지역을 보면 고가 보행로에 23,659주, 만리동광장에 218주, 퇴계로 교통섬에 208주가 식재되었다. 고가 자체가 공원으로 조성된 것이다.

수목은 시작점인 퇴계로(회현역 5번 출구 방향)에서 종점인 만리동 방향으로 '과'의 한글 이름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배치¹⁴⁾되어 있다. 바닥에는 '과' 구분선과 명판이 설치되어 있고, 각 화분에는 '종' 명판이 있어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수목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표 2-2] 서울로 7017 식물 현황

구분	계	교목	관목	지피초화	덩굴
계	228종 24,085주	77종 566주	85종 7,026주	50종 15,180본	16종 1,313본
고가 보행로	228종 23,659주	77종 103주	85종 6,763주	50종 15,180본	16종 1,313본
만리동광장	2종 218주	1종 163주	1종 55주	-	-
퇴계로 교통섬	2종 208주	-	2종 208주	-	-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13) 서울시 보도자료(2017.4.20., “서울로 7017’ 24,085주 수목 가나다순 식재 ‘살아있는 식물도감’)와 서울시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14) ‘ㄱ’(가지과의 ‘구기자나무)부터 ‘ㅎ’(회양목과의 ‘회양목)까지 ‘가나다’순으로 식재되어 있다.

[표 2-3] 서울로 7017 편의시설 현황

위 치	편의시설명	유·무인	직경(m)	높이(m)	면적(m ²)	편의시설 용도
지상 구간 (회현역 5번 출구 ~고가시점)	호기심화분 (보여요)	무인	D=2.00	H=3.10	2.09	서울의 석양 콘텐츠영상 표출
	서울로안내소	유인	D=5.00	H=4.05	13.53	안내데스크 및 홍보물텍
	서울로가게	유인	D=5.00	H=4.05	13.53	서울로기념품 판매
고가 상부	목련다방	유인	D=6.35	H=4.75	16.12	전통차, 팥빙수, 음료 등 판매
	목련무대	무인	D=5.00	H=0.60	11.97	버스킹 등 공연시설
	수국식방	유인	D=7.65	H=5.00	42.50	한국식 토스트 판매시설
	호기심화분 (신비해요)	무인	D=2.00	H=3.10	20.90	AR 콘텐츠 영상 표출
	공중자연쉼터 (족욕탕)	무인	D=3.50	H=0.67	9.61	자연물(물, 모래 등)을 이용한 쉼터
	방방놀이터	무인	D=3.00	H=2.50	7.07(2)	트램펄린 이용시설
	서울로전시관	유인	D=6.35	H=4.75	16.12	네이버문화재단 작품 전시공간
	장미김밥	유인	D=8.33	H=5.00	41.84	커피, 꼬마김밥 판매시설
	장미무대	무인	D=4.20	H=4.50	13.20	버스킹 등 공연시설
	정원교실	유인	D=6.35	H=4.65	16.12	정원관리프로그램 운영
	담쟁이극장	무인	D=2.50	H=3.80	3.56	인형극 등 소극장시설
호기심화분 (들려요)	무인	D=2.00	H=3.10	20.9	서울의 소리 콘텐츠 표출	
고가 하부 (퇴계로 교통섬) (만리동광장)	서울로 여행자카페	유인	D=13.0	H=7.30	230.72	안내데스크, 인터넷존, 코인락커 등
	도토리풀방	무인	D=3.50	H=3.80	9.08	풀방 등 판매시설
	7017 서울화반	유인	D=13.0	H=4.40	119.79	비빔밥 등 판매시설
	서울로 관리사무소	유인	34.9	10	349.00	서울로 사무실, 화장실, 전기실 등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표 2-4] 서울로 7017 관리시설 현황

구분	수량	시설현황
서울로 보행길 연장	1,024m	- 본선 구간: 810m · 만리동 옹벽(46m), 고가구간(686m), 퇴계로 옹벽(78m) - 지상구간(회현역 방향): 214m - 램프구간: 223m(램프 B-78m, 램프 D-145m)
보행길 하부 바닥판 교체	327개	- 바닥판 규격: 2m×10m - 바닥판 면적: 6,540㎡
서울로 교각수	36개	- 교대: 2개소, 교각: 28개소 - 램프 B: 3개소, 램프 D: 3개소
화분수 (Tree Pot)	645개	- 형태: 66개 타입 - 가장 큰 화분: 지름 4.8m, 둘레 15.072m
식재수량	24,085주	- 50과 228종 - 생육토심: 45cm, 65cm, 90cm
통합폴	111개	- Wi-Fi 안테나 27개
조명등	555개	- 조명등 5개/1주×111주 =555개
태양광 시설	40개	- 태양광(50W)
안전난간	1,086장	- 난간높이: 1.4~3m / 총 길이: 2,171m
CCTV	29대	- 서울로 상부: 24대 / 만리동광장: 5대 - 12대 추가 예정
안개분수	15개	- 높이: 0.9m / 노즐: 15개소×24개/개소=360개
총 개방 화장실 수	8개	- 고가 하부 관리사무소: 2개소(만리동, 여행자카페) - 주변 건물: 6개소(대우재단빌딩: 4개, 호텔마누: 2개) ※ 수국식빵(2), 장미김밥(2) - 미개방(관리자용)
서울로와 연결된 보행길 수	17개	- 주변 건물 연결로: 2개 / 엘리베이터: 6개 - 에스컬레이터: 1개 / 횡단보도: 5개 - 연결로: 3개(만리동, 청파동, 중림동)
이동가능 보행로 계단 수	101개	- 만리동 방향: 40계단, 청파동 방향: 28계단 - 중림동 방향: 33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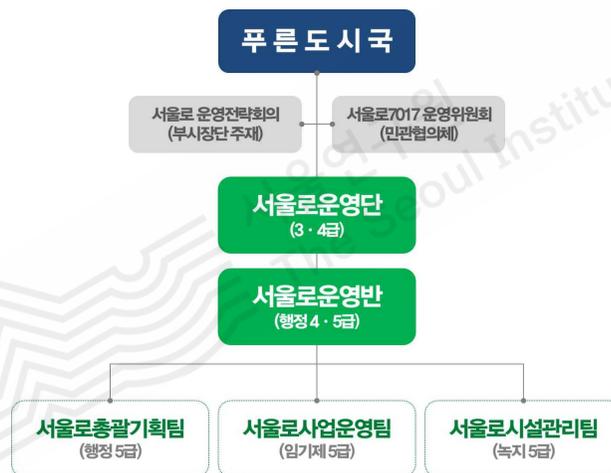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3_운영 현황

1)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서울로 7017의 운영관리는 서울시 푸른도시국 내 <서울로운영단>이 하고 있다. <서울로 운영단> 내에는 <서울로운영반>이 있으며, 운영반은 서울로총괄기획팀, 서울로사업운영팀, 서울로시설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 수는 16명(2017.7.1. 기준/정원 20명)이다.

총괄기획팀은 안전관리, 민간위탁, 야간경관, 주변지역 연계, 시민포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운영팀은 홍보, 축제·행사, 자원봉사를 담당하며, 시설관리팀은 식물 및 녹지대, 전기·기계설비, 시설 관리·시공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2-6] 서울로 7017 운영 조직

서울로 7017을 둘러싼 민간협력기구는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다. 2017년 9월부터 거버넌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운영위는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다. 위원은 15명 이내며, 임기는 2년이다. 현재 위원은 13명이다.¹⁷⁾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된다. 다만, 중요 협의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 개최를 통해

17) 현재 내부위원 1명(푸른도시국장), 의회추천 1명, 외부위원 1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한편, 서울로 7017은 시민의 주체적·자발적 참여를 위해 ‘초록산책단’을 운영하고 있다. ‘초록산책단’은 시민봉사단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조직이다. 2016년 5월 활동을 시작하여 1기(94명)와 2기(2017년 2월부터 활동, 50명)로 총 14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에는 3기(113명)가 활동한다.

이들의 주요한 일은 주 1회 3시간씩 정원교실을 운영하며, 환경정화 등 현장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해설과 홍보, 가드닝,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서울로 7017의 운영을 돕는다. 2017년 한 해 활동시간은 총 1,433시간이었다.

주요 편의시설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운영한다. 현재 운영하는 시설은 서울로안내소, 서울로가게, 목련다방, 수국식빵, 장미빙수, 도토리폴빵, 7017 서울화반, 서울로여행자카페 등 8개 시설로 민간위탁방식이다.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다.

[표 2-5]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로 7017 내 편의시설

위 치	시설명칭	면적(m ²)	운영 콘셉트
지상구간 (퇴계로 초입)	서울로안내소	13.53	서울로 7017의 역사와 의미, 공간 구성 등을 안내하는 안내소
	서울로가게	13.53	서울로 7017 공식 기념품 등 기념품 전시 및 판매
고가 상부	목련다방	16.12	커피, 미숫가루,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카페
	수국식빵	42.50	한국식 철판 토스트와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
	장미빙수	41.84	인절미를 곁들인 눈꽃빙수, 단팥빵, 커피 등을 판매하는 카페
고가 하부 (만리동 광장)	도토리폴빵	9.08	서울로 7017의 시그니처 먹거리, 7017도토리빵을 판매하는 키오스크
	7017 서울화반	119.79	스타 셰프들이 매달 릴레이로 특별 레시피를 선보이는 비빔밥 전문 캐주얼 한식레스토랑으로, 수제 생맥주와 골뱅이무침 등 한국적인 곁들이 메뉴를 즐길 수 있음
(퇴계로 교통섬)	서울로 여행자카페	119.79	관광정보센터로 내부에 카페를 두어 정보교류와 소통,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
계		376.18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 총 811회 행사, 대부분 고가에서 개최돼

2017년 5월 20일 개장 후 12월 31일까지 서울로 7017에서는 총 811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 중 운영단이 주관한 행사는 467회,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개최한 행사는 344회다.

운영단이 주관하는 행사는 계절축제, 초록산책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 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계절축제는 서울로 7017의 가장 큰 문화축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각 계절에 맞는 특성을 활용한 행사로 구성된다. 봄에는 플라워 페스티벌이 개최되는데, 2017년에는 개장과 맞물려서 많은 이슈를 양산했던 공공미술작품 ‘슈스트리’¹⁸⁾가 9일간 설치되었다. 여름에는 ‘서울로 go’가 7월 21일부터 약 열흘 동안 개최되었고, 가을에는 ‘워킹데이’가, 겨울에는 ‘서울로 빛으로 피는 꽃밭 축제’가 개최되었다.

[표 2-6] 서울로 7017 계절축제

구분	축제명	일시	내용
봄	플라워 페스티벌	2017.5.20.~28. (9일간)	신발을 주제로 한 조형설치물 제작 (슈스트리)
여름	서울로 go	2017.7.21.~30. (10일간)	여름방학시즌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서울로 go, 물놀이난장, 풍덩책읽기, 시원한 영화제, 만리동공연장, 한여름인형극장 등
가을	워킹데이	2017.11.11.	서울로 7017에서 남산까지 걷는 축제 시민그룹과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
겨울	서울로 빛으로 피는 꽃밭	2017.12.22. ~2018.2.28.	LED조명을 이용하여 트리팟을 빛으로 꾸며 진행 되는 겨울축제

자료: 서울로 7017 홈페이지(<http://seoullo7017.seoul.go.kr/>); 서울시 내부자료 재정리

시민봉사단인 ‘초록산책단’은 5개의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개의 프로그램은 어린이 대상 ‘공감각놀이’와 서울로 ‘식물드로잉’, 인형극 정례공연 ‘오늘이’, ‘인형체험 프로그램’, ‘해설이 있는 산책’ 등이다. 이 중 ‘해설이 있는 산책’이 127회로 가장 많이 개최되었다.

18) 슈스트리는 환경미술가 황지해 작가의 작품이다. 서울로 7017과 서울역광장을 신발 3만 켤레로 입고 꽃과 식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을 설치한 작품이다. 황지해 작가는 서울로 7017이 주는 재생의 의미와 폐기될 신발들을 통해 우리의 소비 문화를 돌아보자는 의미로 만든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품 주재료인 페신발과 페타이어 등이 흉해 보인다는 시민들의 지적으로 ‘흉물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2017년 5월 30일 헤럴드경제 기사, “‘흉물 논란’ 슈스트리, 결국 9일 만에 철거”)

[표 2-7] 초록산책단 운영 상설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일시	장소	개최횟수(회)
공감각놀이	자연놀이와 함께 서울로 체험	매주 화요일 10~11시/11~12시	정원교실	25
식물드로잉	서울로 식물 그리기 및 전시	매주 목요일 10~11시/11~12시	정원교실	40
인형극 정례공연	구전신화 오늘이 각색 인형공연	매주 토요일 17시~17시 40분	담쟁이극장	14
인형체험 프로그램	인형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매주 목요일 16~18시	정원교실	30
해설이 있는 산책	전문해설사와 함께 서울로 산책	매주 월, 수요일 10~11시/16~17시	서울로 일대	127

자료: 서울로 7017 홈페이지(<http://seoullo7017.seoul.go.kr/>); 서울시 내부자료 재정리

그 외 운영단은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평일(서울로 떠나는 심포)과 주말 민관협력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점심시간을 활용한 ‘낮잠의 여유’, 퇴근길 ‘노천보드게임카페’, 책을 읽는 ‘여행자북클럽’, 예술가와 소통하는 ‘예술상담소’ 등이 있다.

[표 2-8] 기타 서울로운영단 주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일시	장소	참여주체	개최횟수(회)
낮잠의 여유	지치고 피곤한 직장인들이 점심 시간을 활용한 잠깐의 휴식	매주 화요일 12:00~13:00	장미마당	노니논다	10
노천보드 게임카페	퇴근길에 즐기는 보드게임 한판으로 하루를 즐겁게 마무리	매주 화요일 18:00~21:00	장미마당	노니논다	10
여행자 북클럽	도심 속 책으로 떠나는 여행	매주 목요일 18:00~21:00	장미마당	히든북	8
예술 상담소	예술가와 시민들이 예술을 매개로 고민과 애환을 나눔	6.22. 18:00~21:00	목련마당	예술 장돌뱅이	1
사랑 사진관	사연이 선정된 두 커플 촬영	6.24.~25. 8.26.~27. 9.2.~3.	장미마당	와우 스튜디오	6
전시	‘하늘을 걷는 사람들’ 전시	5.21.~6.11.	서울로 전시관	황지해 작가	22
헬로! 아티스트	시각예술 작가를 발굴해 창작활동 및 전시기회 제공	7.11~9.10. 9.22~11.26. 12.6.~12.31.	서울로 전시관	황지해 작가, 네이버 문화재단	154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재정리

운영단 협력행사는 총 344회 개최되었다. 공연이 202회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전시 50회, 축제 9회, 장터 13회, 행사 70회로 구성되었다.

서울로 7017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이 어떤 공간에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면, 고가 상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 467회, 고가 외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 121회였다. 고가 위나 밖이 아닌, 서울로 7017 일대에서 펼쳐진 프로그램은 총 223건으로 전체 프로그램의 27.5%를 차지하지만 이 또한 대부분 고가 위를 경과하면서 펼쳐진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고가 상부에서 펼쳐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9] 프로그램이 진행된 공간 현황

구분	장소	개최횟수	
		빈도(회)	비중(%)
고가 상부	목련무대/마당, 장미무대/마당	177	21.8
	서울로전시관	176	21.7
	담쟁이극장	14	1.7
	정원교실	95	11.7
	대우재단빌딩 연결통로	4	0.5
	만리동광장 외 고가상부	1	0.1
고가 외	만리동광장	95	11.7
	윤슬	26	3.2
전체	서울로 7017 일대	223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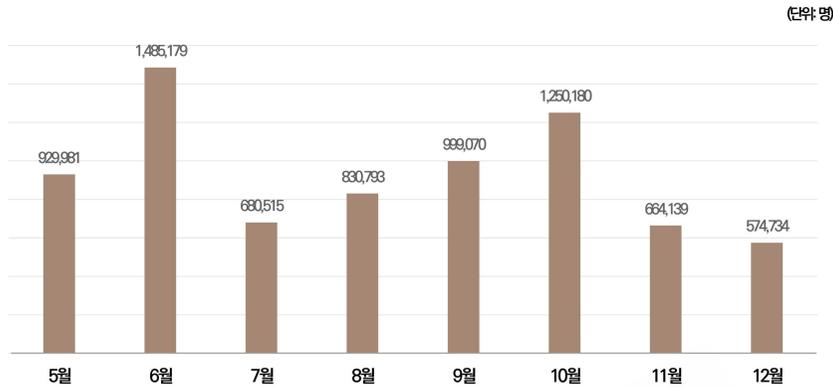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재정리

4_이용 현황

1) 서울로 7017을 방문한 사람은 약 741만 명

서울로 7017 개장 이후 2017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서울로 7017을 방문한 사람은 총 7,414,591명이다. 개장 초기였던 5월(93만 명)과 6월(149만 명)에 약 241만 명이 방문하였다. 날씨가 더웠던 7월과 8월에는 총 15만 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9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이어져 9월 100만 명, 10월 125만 명이 방문하였다. 겨울로 들어선

11월은 66만 명이었고, 12월은 57만 명으로 감소했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2-7] 서울로 7017 월별 방문객 현황(2017)

2) 서울로 7017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은 약 74만 명

서울로 7017 위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은 742,300명이다. 서울로운영단 주관 행사에 참여한 시민이 440,800명, 협력행사에 참여한 시민이 301,500명이다. 또 계절 축제에 참여한 시민은 51,500명이었고, 전시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은 363,000명이었다. 협력행사의 경우 축제에 103,800명, 행사에 76,100명이 참여했다.

[표 2-10]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 현황(공간 기준)

구분	장소	참여 시민	
		빈도(명)	비중(%)
고가 상부	목련무대/마당, 장미무대/마당	91,200	12.3
	서울로전시관	363,000	48.9
	담쟁이극장	2,600	0.4
	정원교실	1,840	0.2
	대우재단빌딩 연결통로	1,200	0.2
	만리동광장 외 고가 상부	500	0.1
고가 외	만리동광장	125,550	16.9
	윤슬	3,650	0.5
전체	서울로 7017 일대	152,760	20.6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재정리

[표 2-11]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 현황(프로그램 주체 기준)

대분류	중분류	프로그램명	장소	참여 시민(명)	
주관행사	계절축제	여름축제	서울로 일대	25,000	
	계절축제	가을축제	만리동광장	1,500	
	계절축제	겨울축제	목련마당, 장미마당	25,000	
	초록산책단 운영	공감각놀이	정원교실	500	
	초록산책단 운영	식물드로잉	정원교실	960	
	초록산책단 운영	인형극 정례공연	담쟁이극장	2,600	
	초록산책단 운영	인형체험 프로그램	정원교실	380	
	서울로 떠나는 심포	해설이 있는 산책	서울로 일대	2,260	
	서울로 떠나는 심포	낮잠의 여유	장미마당	1,000	
	서울로 떠나는 심포	노천보드게임카페	장미마당	2,000	
	서울로 떠나는 심포	여행자북클럽	장미마당	1,400	
	서울로 떠나는 심포	예술상담소	목련마당	300	
	주말 프로그램	사랑사진관	장미마당	4,500	
	전시 프로그램	전시	서울로전시관	110,000	
	전시 프로그램	헬리아티스트	서울로전시관	253,000	
	기타	작은결혼식 외	윤슬 외	10,400	
	소계				440,800
	협력행사	공연	거리예술존 외	목련무대 외	53,600
전시		닥종이 전시 외	목련마당 외	20,000	
축제		서울로잇다페스티벌 외	만리동광장 외	103,800	
장터		농부의시장 외	만리동광장	48,000	
행사		거북이마라톤 외	만리동광장 외	76,100	
소계				301,500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재정리

03

여론에 나타난 서울로 7017 이미지 분석

- 1_분석 방법
- 2_버즈량 변화
- 3_관심 키워드 변화
- 4_긍정분석 태도 변화

03 | 여론에 나타난 서울로 7017 이미지 분석¹⁹⁾

바라보는 자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 하나의 공간은 여러 이미지를 갖는다. 각기 다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의 반복을 통해 여러 시각이 겹쳐지면 하나의 독특한, 고유한 이미지를 갖는다. 모두가 인정하고 공유하는 보편적 자기 상(象), 자기 이미지를 갖는 것이다.

이미지 생산이라 불리는 이 과정에서 언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중에게 말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언론은 자신의 관점을 ‘큰’ 소리로 얘기함으로써 다수의 대중이 거기에 따르도록 만든다. 이미지 생산에 있어 언론이 갖는 힘은 절대적인 것이다.

개장 이후, 혹은 개장 전부터 언론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언론과 블로그에 노출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서울로 7017에 형성되는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과연 서울로 7017은 공간을 생산했던 철학과 비슷한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는가? 주요한 관점은 무엇이며, 태도는 어떠한가? 이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다.

1_분석 방법

1) 뉴스와 블로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조사 수행

조사는 서울로 7017을 소재로 보도한 여러 뉴스와 블로그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서울로 7017을 둘러싼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각 키워드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개장 전과 개장 이후 주요하게 나타난 이슈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및 블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으며, 수집단어는 ‘서울로 7017’과 ‘서울역 고가’ 등 2

19) 본 연구진은 빅데이터 분석의 방향 등 전반적인 내용을 주관하였으며, (주)오피니언라이브 빅데이터 분석센터에서 직접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개의 단어였다. 수집방법은 자체프로그래밍(python) 및 오픈 소스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웹크롤링과 필터링 등 수집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버즈량은 총 32,346건이다. 이 중 뉴스 데이터가 총 6,393건이고, 블로그 데이터가 25,953건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엔진을 활용하여 주요 키워드를 정제한 후 명사형 키워드를 추출했다. 여기서 추출된 키워드는 1,587,139건이었다. 이후 키워드 중 불필요한 단어들은 삭제하고 유사어는 통합하였으며,²⁰⁾ 복합명사는 전체 데이터를 bi-gram 분석을 통해 확인한 후 합치는 단계²¹⁾를 거쳤다.



[그림 3-1] 서울로 7017 빅데이터 조사 프로세스

2) 빅데이터 조사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수행

빅데이터 분석은 크게 버즈량 분석과 키워드 분석, 태도 분석으로 나누어진다. 버즈량 분석은 크게 뉴스와 블로그 데이터로 나누어 각각 시기별로 버즈량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키워드 분석은 서울로 7017에 대한 인식과 주변 변화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 공간의 성격과 △ 발생한 이슈, △ 프로그램, △ 방문목적 및 이용형태, △ 주변지역 등 5개의 범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범주별 주요 키워드의 발생빈도와 함께 각 범주별 주요 키워드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전체 데이터의 긍부정을 살펴보는 태도 분석을 진행했다. 태도 분석은 전체 데이터와 뉴스 데이터, 블로그 데이터로 나누어 수행했다.

20) 서울, 서울시, 서울특별시는 '서울'로, 서울역 고가, 고가, 고가도로, 고가도, 고가차, 고가철도, 고가로는 '서울역 고가'로, 하이라인, 라인파크, 하이, 파크 등은 '하이라인파크'로 통일했다.

21) 만리동광장은 '만리동광장'이라는 하나의 복합명사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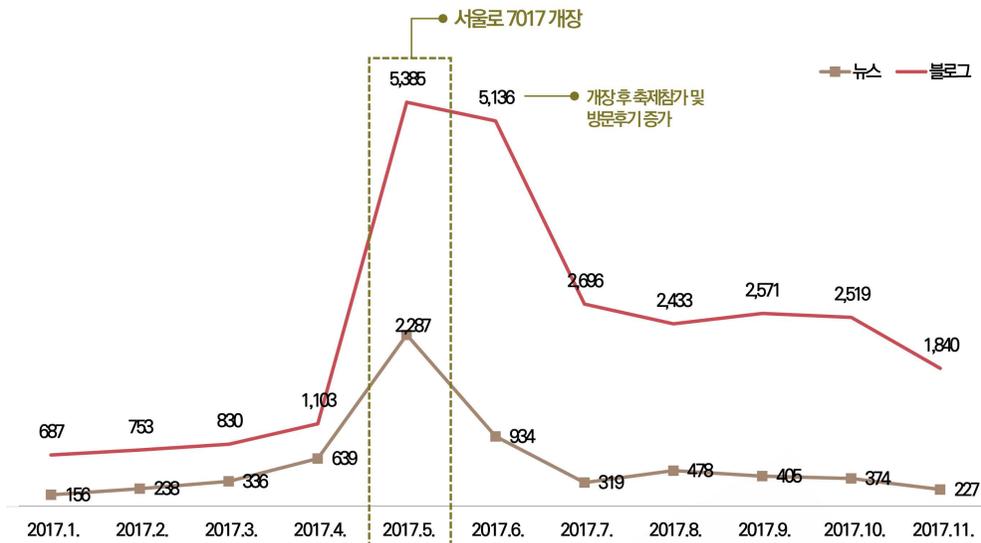
2_버즈량 변화

전체 데이터의 버즈량은 총 32,346건으로 뉴스는 6,393건, 블로그는 25,953건이 수집되었다. 블로그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의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월별 버즈량을 분석해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개장 시기인 5월에 최고점을 찍고, 다시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인다. 개장일이 포함된 5월은 7,67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6월 역시 6,070건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6월 이후에는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개장 전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뉴스 데이터의 월별 버즈량을 살펴보면, 1월에는 156건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점차 증가하여 4월에는 639건으로 늘어났다. 개장일이 있었던 5월에는 2,287건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6월에는 934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8월에 약간 증가 추이를 보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1월에는 227건으로 나타났다. 즉, 뉴스 데이터는 개장 전인 4월과 개장 시기였던 5월, 개장 직후였던 6월에 비교적 많은 버즈량이 발생했고, 그 외에는 평균 약 300건의 버즈량을 보였다.

블로그 데이터의 월별 버즈량 추이 또한 뉴스 데이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1월에 687건으로 시작해서 4월 1,103건으로 지속적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개장 시기인 5월에 5,385건으로 폭발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후 6월에도 5,136건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장 후 서울로 7017을 방문했거나 문화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작성한 방문 후기 등으로 인해 버즈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9월에 2,571건으로 약간 증가했으며, 이후 다시 감소하여 11월에는 1,840건으로 나타났다. 블로그 데이터가 뉴스 데이터와 다른 점은 개장 후 6월까지 높은 버즈량을 기록했으며, 이후 버즈량이 줄긴 했지만 개장 전보다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3-2] 월별 버즈량

3_관심 키워드 변화

1) 범주별 데이터 분석

서울로 7017의 주요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 분석을 실시했다. 더불어 각 키워드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5개의 범주를 설정하여 범주별로 주요 키워드를 살펴봤다.

첫 번째 범주인 공간의 성격은 서울로 7017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등 공간의 성격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었다. 두 번째 범주에서는 서울로 7017에서 주로 발생한 이슈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세 번째 범주에서는 서울로 7017에서 벌어진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관련 행사들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네 번째 범주인 방문목적 및 이용형태는 서울로 7017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방문목적과 형태, 연계방문, 관광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섯 번째 범주인 주변지역은 서울로 7017 주변에서 나타나는 도시재생, 상권, 개발, 활성화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담았다.

(1) 전체 데이터

뉴스와 블로그를 합친 전체 데이터에서는 서울역과 보행, 공원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각 범주별로 살펴보면, 공간의 성격에서는 보행(8,531건)과 공원(8,493건)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나무, 산책, 남산, 꽃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로 7017을 보행하는 공간 혹은 공원이자 산책하는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범주인 이슈에서는 안전(2,742건)과 슈즈트리(2,193건)가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라는 키워드도 1,824건으로 꽤 높은 빈도를 보였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투신, 난간 등의 키워드가 높게 나타났으며, 슈즈트리와 연계되어 흉물이라는 키워드도 꽤 많이 등장했다.

프로그램 범주에서는 문화가 4,00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행사, 전시, 축제, 공연, 체험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빈도를 기록했다. 방문목적 및 이용형태에서는 맛집(3,232건)을 비롯하여 관광, 여행, 야경, 카페 등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로 7017 주변지역의 맛집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고 야경을 보거나 데이트,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지역과 관련해서는 서울역이 21,659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도시재생도 4,006건으로 꽤 많았으며, 지역명으로는 남대문시장을 비롯하여 만리동, 중림동 등이 많이 언급되었다.

[표 3-1] 전체 데이터 범주별 키워드 빈도표

(단위: 건)

공간의 성격		이슈		프로그램		방문목적 및 이용형태		주변지역	
보행	8,531	설치	3,919	문화	4,009	맛집	3,232	서울역	21,659
공원	8,493	안전	2,742	행사	2,982	관광	2,656	도시재생	4,006
나무	2,789	슈즈트리	2,193	전시	2,354	여행	2,518	남대문시장	2,711
산책	2,715	문제	1,824	축제	2,315	야경	1,986	만리동	2,301
남산	2,412	철거	1,654	공연	2,022	카페	1,845	중림동	1,785
꽃	2,272	차량	1,477	체험	1,719	코스	1,546	회현역	983
명소	1,968	화분	1,274	패션쇼	996	구경	1,360	송례문	850
숲	1,397	투신	757	거리예술	856	데이트	1,295	용산	799
식물	1,275	흉물	654	전시회	633	일상	868	서계동	787
공중정원	1,153	난간	614	음악	546	한양도성	537	퇴계로	697

(2) 뉴스 데이터

뉴스 데이터에서는 보행(6,642건)과 서울역(4,084건)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공간의 성격을 살펴보면, 보행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공원, 나무, 꽃, 명소, 식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데이터와 비교해 보면, 전체 데이터에서는 보행과 공원이 비슷하게 높았던 것에 비해 뉴스 데이터에서는 공원이 보행 빈도수의 1/2 정도의 빈도량을 보이고 있다. 전체 데이터에서는 산책이 4번째로 높은 순위에 있었으나 뉴스 데이터에서는 8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데이터에서는 상위 10개 안에 들지 못했던 공공이라는 키워드가 아홉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시에서 서울로 7017을 ‘사람길’이라고 홍보하고 ‘보행로’임을 강조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이슈에서는 설치, 안전, 문제, 슈즈트리 등이 높은 빈도량을 보였으며, 이는 전체 데이터와 큰 차이가 없었다. 전체 데이터와 다른 점은 전체 데이터에는 없었던 교통이라는 키워드가 7번째 순위에 자리했다는 점이다. 이는 서울역 고가가 차로에서 보행로로 변화하면서 주변 교통에 대해 우려하는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 범주는 문화가 3,379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행사, 전시, 축제, 공연 등도 높은 빈도량을 차지했다. 특히 프로그램 범주는 전체 데이터에서 뉴스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뉴스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문화는 전체 데이터의 84.3%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고, 행사(80.1%), 전시(73.2%), 축제(74.2%) 등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7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서울로 7017에서 벌어지는 행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뉴스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방문목적 및 이용형태에서는 관광(2,366건)과 여행(1,174건)이 높은 빈도량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코스, 카페, 야경, 친구, 촬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이라는 키워드는 전체 데이터의 약 89.1%를 차지할 정도로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었다. 전체 데이터에서 10위 안에 들지 못했던 친구, 촬영, 쇼핑 등이 뉴스 데이터에는 포함되었다는 것도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지역은 서울역(4,084건)과 도시재생(3,235건)이 가장 높은 빈도량을 나타냈으며 남대문시장, 만리동, 중림동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전체 데이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약간 다른 점은 전체 데이터에서는 상위 10개에 들지 못했던 세운상가가 뉴스 데이터에서는 6번째로 높은 빈도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운상가가 서울로 7017과 함께 서울 도시재생의 예로 함께 언급되면서 빈도량이 높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표 3-2] 뉴스 데이터 범주별 키워드 빈도표

(단위: 건)

공간의 성격		이슈		프로그램		방문목적 및 이용형태		주변지역	
보행	6,642	설치	3,352	문화	3,379	관광	2,366	서울역	4,084
공원	3,074	안전	2,309	행사	2,389	여행	1,174	도시재생	3,235
나무	2,119	문제	1,533	전시	1,723	코스	672	남대문시장	1,430
꽃	1,647	슈즈트리	1,257	축제	1,717	카페	666	만리동	1,190
명소	1,203	화분	1,088	공연	1,673	야경	469	중림동	1,181
식물	1,048	철거	1,044	체험	1,431	친구	377	세운상가	582
숲	1,040	차량	941	패션쇼	820	촬영	371	퇴계로	511
산책	962	교통	892	거리예술	675	건강	320	송례문	455
공공	829	투신	613	콘서트	426	일상	283	서계동	433
공중정원	723	난간	588	영화	425	쇼핑	239	회현역	412

(3) 블로그 데이터

블로그 데이터에서는 서울역이 17,575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량을 보였고, 공원도 5,419건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범주별로 살펴보면, 우선 공간의 성격에서는 공원(5,419건)이 눈에 띄게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 외에 보행, 산책, 남산 등이 높은 빈도량을 보였다. 뉴스 데이터와 차이점은 보행이 뉴스 데이터에 비해 비교적 낮았고 이와는 반대로 산책은 높은 빈도량을 보였으며, 걷기가 상위 10개 안에 들었다는 점이다. 뉴스 데이터가 보행이라는 키워드에 집중되었던 것에 비해 블로그에서는 공원, 산책, 걷기 등이 높은 빈도를 보인 것에서 일반 시민들은 서울로 7017이라는 공간을 걷고,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슈는 뉴스 데이터에 비해 전반적으로 빈도량이 높지 않았는데, 그 중 가장 높은 빈도량을 보인 것은 슈즈트리(936건)였다. 그 외 철거, 설치, 차량, 안전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 범주 또한 뉴스 데이터에 비해 빈도량이 낮게 나타났으며 전시, 문화, 축제, 행사 등이 비교적 높은 빈도량을 보였다.

방문목적 및 이용형태에서는 맛집이 3,010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량을 보였다. 이는 전체 데이터의 93.1%에 해당하는 수치로 블로그에서만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뉴스 데이터에서 관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던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그 외 야경, 여행, 데이트, 구경, 카페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일상적인 방문과 연계된 키워드들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지역에서는 서울역이 17,575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량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대문시장, 만리동, 도시재생, 중림동 등의 순이었다. 뉴스 데이터에 비해서는 도시재생이 비교적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서울로 7017 인근에 위치한 문화시설인 문화역서울284가 상위 10개 안에 들었다는 점 또한 특이사항이다.

[표 3-3] 블로그 데이터 범주별 키워드 빈도표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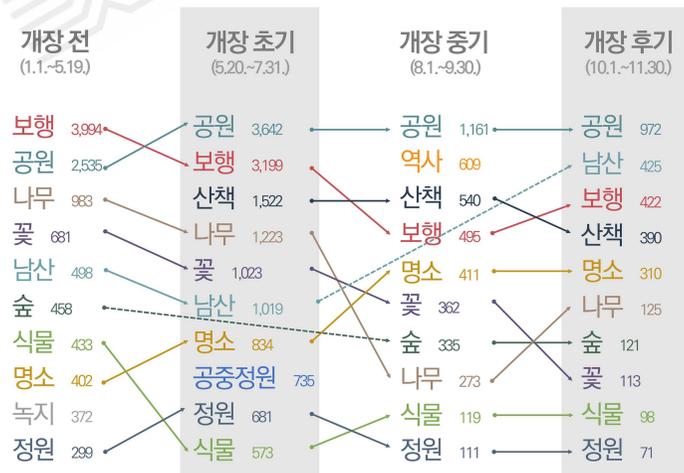
공간의 성격		이슈		프로그램		방문목적 및 이용형태		주변지역	
공원	5,419	슈즈트리	936	전시	631	맛집	3,010	서울역	17,575
보행	1,889	철거	610	문화	630	야경	1,517	남대문시장	1,281
산책	1,753	설치	567	축제	598	여행	1,344	만리동	1,111
남산	1,258	차량	536	행사	593	데이트	1,222	도시재생	771
명소	765	안전	433	공연	349	구경	1,192	중림동	604
나무	670	문제	291	체험	288	카페	1,179	회현역	571
꽃	625	홍물	211	전시회	270	코스	874	문화역서울284	528
공중정원	430	화분	186	맥주	232	일상	585	청파로	514
숲	357	노후	156	거리예술	181	치킨	457	송례문	395
걷기	238	투신	144	패션쇼	176	후기	437	서계동	354

2) 범주별-시기별 데이터 분석

서울로 7017에 대한 언급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범주별로 시기에 따른 키워드 빈도량을 살펴보았다. 시기는 개장 전(2017.1.1.~5.19.), 개장 초기(5.20.~7.31.), 개장 중기(8.1.~9.30.), 개장 후기(10.1.~11.30.) 등 크게 4개로 나누었다. 데이터는 뉴스와 블로그를 합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1) 공간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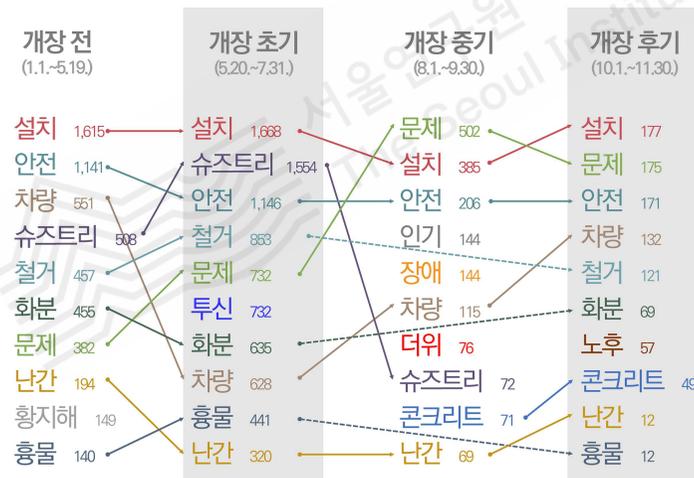
공간의 성격에서는 보행, 공원, 산책, 나무, 꽃 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보행은 개장 전에는 가장 높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해서 개장 후기에는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공원은 개장 전에는 2번째로 높았으나, 개장 초기부터 개장 후기까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산책은 개장 전에는 순위가 없었으나 개장 초기, 개장 중기에 3번째로 높았고, 개장 후기에는 4번째로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공원, 산책에 대한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나무, 숲, 꽃, 식물 등의 빈도량이 꾸준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서울로 7017이라는 공간을 공원이자 걷고 산책하고 나무나 식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명소라는 키워드가 개장 전에는 8번째로 높았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개장 후기에는 5번째까지 올라갔다는 것이다. 서울로 7017을 명소라 언급하는 빈도량이 점차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 '공간의 성격' 시기별 키워드 빈도

(2)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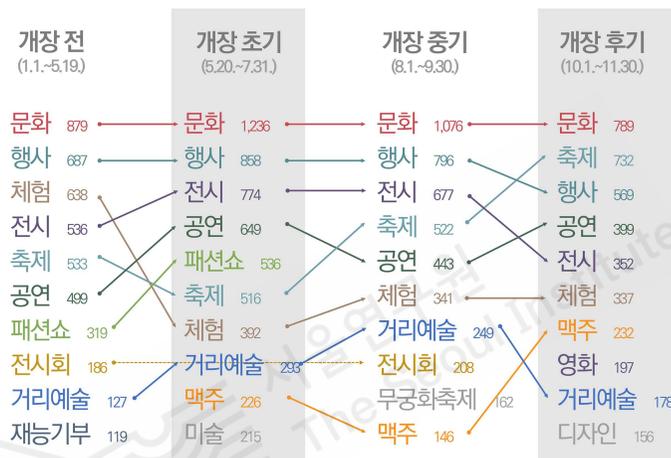
이슈 범주를 살펴보면, 설치와 안전은 꾸준히 높은 순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문제라는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개장 전에는 7번째 순위에 불과했으나 개장 초기에는 5위, 개장 중기에는 1위까지 치솟았고, 개장 후기에는 2위를 차지했다. 5월 20일에서 29일까지 전시된 공공예술작품인 슈즈트리 또한 이목을 끈 키워드 중 하나였다. 개장 전 4위, 개장 초기 2위로 초반에는 많은 이슈를 양산했지만 개장 중기에 8위로 하락했고, 개장 후기에는 상위 10위 안에 들지 못하는 등 점차 이슈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연계되어 슈즈트리 작가인 황지해가 개장 전에 상위 9위에 자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개장 후 10일 만에 투신 사고가 일어나면서 개장 초기에 투신이라는 키워드가 상위 6위에 자리했으나, 이 후에는 사라졌다.



[그림 3-4] '이슈' 시기별 키워드 빈도

(3)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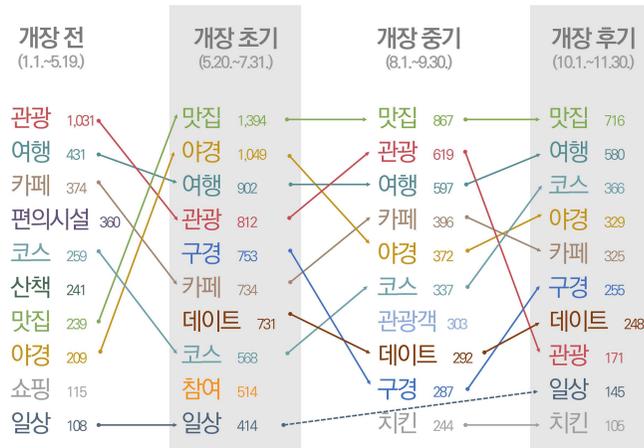
프로그램 범주에서는 주로 문화, 행사, 전시, 축제 등이 꾸준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축제라는 키워드는 개장 전에는 5위, 개장 초기에는 6위까지 떨어졌으나 개장 중기 4위, 개장 후기에 2위에 오르는 등 후기로 갈수록 빈도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외에도 패션쇼, 거리예술, 무궁화축제 등이 등장했다. 이는 서울로 7017에서 진행된 행사로, 행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해당행사의 빈도수가 증가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프로그램' 시기별 키워드 빈도

(4) 방문목적 및 형태

방문목적 및 형태에서 가장 주목할 키워드는 관광과 맛집이다. 관광은 개장 전에는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나 개장 초기에 4위를 기록했고, 개장 중기에 2위로 다시 상승했으나 개장 후기에는 8위로 하락했다. 이에 반해 맛집은 개장 전에는 7위였으나 개장 초기에 1위를 기록한 이후 개장 후기까지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맛집 외에도 야경, 데이트, 코스, 일상 등과 같이 일상과 연결된 키워드들이 개장 후기로 갈수록 상위 순위에 자리하고 있는 것 또한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6] '방문목적 및 형태' 시기별 키워드 빈도

(5) 주변지역

주변지역 범주에서는 서울역과 도시재생, 남대문시장이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역은 개장 전부터 개장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량을 보이고 있으며, 남대문시장은 개장 전 2위로 시작하여 3위와 4위를 넘나들고 있다. 도시재생은 개장 전 4위에서 개장 초기 2위로 올라선 후 그 순위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만리동과 중림동, 서계동 또한 시기별 차이는 있으나 꾸준히 많이 언급되고 있고, 개장 이후에 서울스퀘어, 문화역서울284 등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림 3-7] '주변지역' 시기별 키워드 빈도

4_공정·분석 태도 변화

서울로 7017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긍정어와 부정어의 빈도 분석을 실시했다. 전체 데이터에서 긍정어의 빈도는 13,751건으로 부정어 7,198건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았다. 그동안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훨씬 높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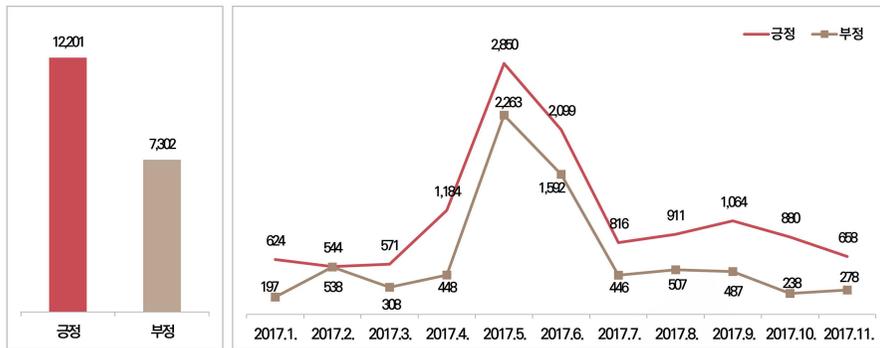
월별로 살펴보면, 긍정어의 빈도는 1월 678건으로 시작하여 5월에 3,255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감소 추이를 보였으며 11월에 847건을 기록했다. 부정어도 긍정과 비슷한 그래프 선형을 보였다. 1월 230건으로 시작하여 5월에 2,34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시 감소 추이를 보여 11월에 272건을 기록했다. 다만 2월에는 긍정어와 부정어의 빈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어가 부정어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3-8] 전체 데이터의 긍정어/부정어 빈도 및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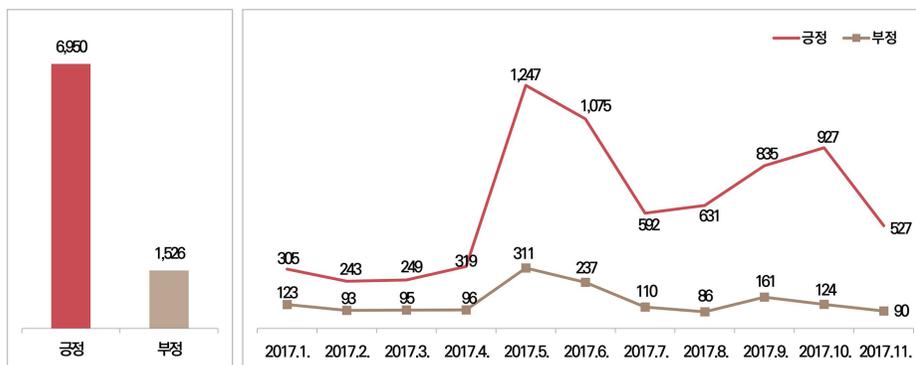
뉴스 데이터에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의 빈도(12,201건)가 부정어의 빈도(7,302건)보다 높았다. 월별로 살펴보면, 긍정어의 빈도는 1월 624건이었으며, 2월에 약간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여 개장시기인 5월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면서 11월에는 658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어도 긍정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1월에 197건으로 시작하여 2월에 538건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했다. 그러다가 5월에 가장 높은 수치(2,263건)를 기록했고, 다시 감소 추이를 보이면서 11월에는 278건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2월에 긍정어는 감소하고 부정어는 증가하면서 두 개의

빈도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났다. 나머지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어가 부정어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9월 이후 긍정어의 빈도가 점차 감소했고, 부정어는 11월에 들면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3-9] 뉴스 데이터의 긍정어/부정어 빈도 및 월별 추이

마지막으로, 블로그 데이터에서는 긍정어가 6,950건, 부정어가 1,526건으로 긍정어가 부정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뉴스 데이터와는 약간 차이를 보인다. 월별 데이터를 보면 긍정어는 1월 305건으로 시작하여 개장시기인 5월에 1,247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후 7월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10월에 927건을 기록했고, 이후 다시 감소했다. 부정어는 1월에 123건이었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개장시기인 5월에 311건으로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에는 큰 증감없이 유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3-10] 블로그 데이터의 긍정어/부정어 빈도 및 월별 추이

04

서울로 7017 이용실태 분석

- 1_방문객 인식과 이용실태
- 2_방문객 행태 분석

04 | 서울로 7017 이용실태 분석

서울로 7017의 문화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로 7017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설문조사 및 관찰조사를 시행했다. 이용자 설문조사는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3회 실시하였고, 관찰조사는 1회 실시했다.

1_방문객 인식과 이용실태

1) 조사개요

이용자 설문조사는 총 3회 실시했다. 3회 실시한 이유는 이제 막 개장된 공간인 만큼 시간 변화에 따라 공간에 대한 인식과 이용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서울로 7017 자체가 수목을 심은 공원공간으로 원래부터 계절변화를 의도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상정한 만큼, 계절요인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행태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가정하에 8월과 10월, 12월 조사를 설계한 것이다.

8월 조사는 날씨 요인으로 2017년 9월 1일(금)부터 3일(월)까지 이루어졌다. 2차 조사는 10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이루어졌으며, 3차 조사는 12월 21일(목)부터 24일(일)까지 이루어졌다. 각 조사는 300명씩 이루어졌으며, 주중-주말, 오전-오후-저녁, 남-여 등의 비율을 할당했다. 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주)오피니언라이브가 실시했다.

[표 4-1] 서울로 7017 이용자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서울로 7017 이용자
조사기간	1차 조사: 2017년 9월 1일(금) ~ 3일(월) 2차 조사: 2017년 10월 26일(목) ~ 29일(일) 3차 조사: 2017년 12월 21일(목) ~ 24일(일)
표본 수	총 900명(1차 조사 300명, 2차 조사 300명, 3차 조사 300명)
조사방법	대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조사기관	주관기관: 서울연구원 수행기관: (주)오피니언라이브

[표 4-2] 서울로 7017 이용자 설문조사 시 기상조건

(단위: °C, mm)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9.1.	9.2.	9.3.	10.26.	10.27.	10.28.	10.29.	12.21.	12.22.	12.23.	12.24.
평균기온	23.3	23.8	23.7	14.5	16.9	17.2	11.5	-0.9	3.4	6.1	2.9
최고기온	29.7	29.6	29.2	18.1	24.2	24.8	17.2	4.6	6.6	8.7	5.7
최저기온	17.1	18.6	19.0	10.7	11.9	10.6	6.3	-5.6	-1.9	5.0	-0.6
강수량	-	-	-	-	-	-	-	-	-	-	20.0

출처: 날씨누리 홈페이지(<http://www.weather.go.kr/>)

조사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0대와 30대가 높고 50대가 약간 낮게 나타나긴 했으나,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²²⁾ 거주지역은 서울에 사는 사람이 61.5%로 가장 많았고, 서울로 7017 주변에 사는 사람은 전체의 약 8.7%였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36.2%, 기타 지역은 2.3%로 서울역 인근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서울 외 지역 거주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서울 거주기간은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43.7%로 가장 많았고, 5~10년이 9.7%, 3~5년이 4.9%, 3년 미만이 3.3%였다. 그 외 서울로 7017 주변에서의 근무 여부도 물어봤는데, 전체의 11.8%가 이에 해당했다.

조사 시기에 따른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과 서울 거주기간 부분에서는 큰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거주지역과 근무지역에서는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다. 1차 조사에서 3차 조사로 갈수록 서울로 7017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방문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서울로 7017 주변을 제외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방문 비중은 점차 감소했다. 또한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서울로 7017 주변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방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20대가 26.1%, 30대가 23.9%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이 17.8%, 40대가 17.2%, 50대가 15.0%였다.

[표 4-3] 서울로 7017 이용자 설문조사 표본 특성

(단위: 명, %)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전체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전체		300	100.0	300	100.0	300	100.0	900	100.0
성별	남성	150	50.0	150	50.0	150	50.0	450	50.0
	여성	150	50.0	150	50.0	150	50.0	450	50.0
연령	19~29세	78	26.0	78	26.0	79	26.3	235	26.1
	30~39세	72	24.0	72	24.0	71	23.7	215	23.9
	40~49세	40	13.3	64	21.3	51	17.0	155	17.2
	50~59세	47	15.7	51	17.0	37	12.3	135	15.0
	60세 이상	63	21.0	35	11.7	62	20.7	160	17.8
거주 지역	서울로 7017 주변	15	5.0	33	11.0	30	10.0	78	8.7
	서울로 7017을 제외한 서울지역	188	62.7	149	49.7	138	46.0	475	52.8
	서울 외 수도권	90	30.0	114	38.0	122	40.7	326	36.2
	기타 지역	7	2.3	4	1.3	10	3.3	21	2.3
서울 거주 기간	3년 미만	18	6.0	5	1.7	7	2.3	30	3.3
	3~5년	16	5.3	16	5.3	12	4.0	44	4.9
	5~10년	19	6.3	40	13.3	28	9.3	87	9.7
	10년 이상	150	50.0	122	40.7	121	40.3	393	43.7
근무 지역	서울로 7017 주변에서 근무	30	10.0	47	15.7	29	9.7	106	11.8
	서울로 7017 주변에서 근무하지 않음	270	90.0	252	84.0	164	54.7	686	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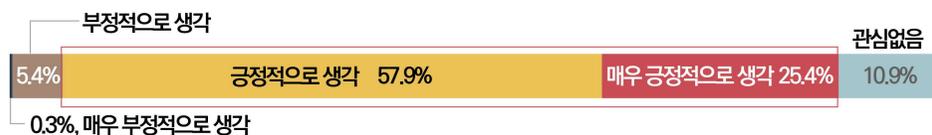
주: 서울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와 서울 거주기간을 응답한 응답자의 수치가 다름. 이는 서울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3명이 거주기간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았고,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4명이 서울 거주기간(과거 서울에 거주한 기간)에 대해 응답했기 때문임

2) 서울로 7017에 대한 사전 인식 및 방문 형태

(1) 사전 인식

서울로 7017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이었다는 응답이 83.3%로, 부정적 응답(5.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92.5%의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²³⁾ 즉, 서울로 7017에 대해 평소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서울로 7017에 많이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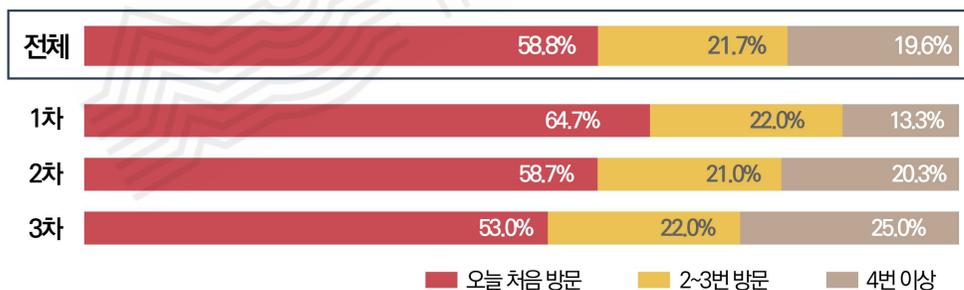
23) 서울로 7017에 대한 사전 인식의 긍정 비율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93.1%로 가장 높았고, 50~59세가 91.9%, 40~49세가 83.9%, 30~39세가 83.3%, 19~29세가 7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1] 서울로 7017에 대한 사전 인식

(2) 방문횟수 및 동반자

서울로 7017 방문횟수를 살펴보면 처음 방문한 사람이 5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2~3번 방문한 사람이 21.7%, 4번 이상 방문한 사람이 19.6%였다. 아직까지는 서울로 7017을 여러 번 방문한 사람의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서울로 7017 인근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의 재방문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로 7017 인근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75.6%와 서울로 7017 인근에 근무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62.3%는 서울로 7017을 4번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조사 시점이 뒤로 갈수록 처음 방문했다는 비율은 낮아지고, 4번 이상 방문한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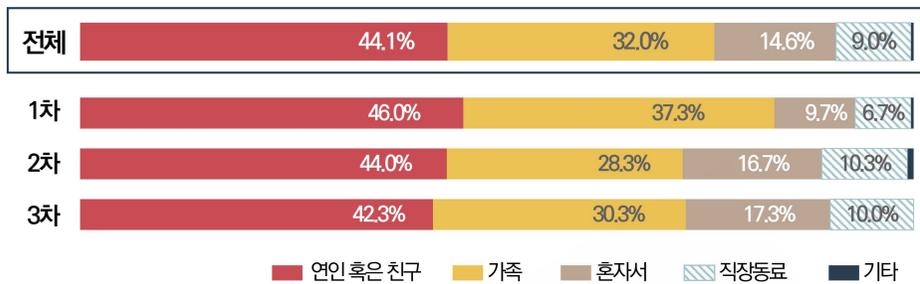


[그림 4-2] 서울로 7017 방문횟수

서울로 7017을 방문할 때에는 연인 혹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로 7017에 누구와 함께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44.1%가 연인 혹은 친구라고 응답했다. 가족과 함께 온 경우가 32.0%, 혼자서는 14.6%, 직장동료와 함께 온 경우는 9.0%

24) 1차 조사시 오늘 처음 방문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4.7%였지만, 2차는 58.7%, 3차는 53.0%로 점차 낮아졌다. 이에 반해 4번 이상 왔다는 응답 비율은 1차 13.3%에서 2차 20.3%, 3차 25.0%로 점차 증가했다.

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인 혹은 친구와 함께 온 경우는 남성(34.4%)보다는 여성(53.8%)이 더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19~29세가 69.8%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온 경우는 30대(43.7%)와 40대(45.2%)가 많았고, 평일(16.7%)보다는 주말(43.7%)에 더 높게 나타났다. 혼자서 방문한 경우는 여성(9.1%)보다 남성(20.0%)이 더 많았으며, 조사 시점이 뒤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²⁵⁾



[그림 4-3] 서울로 7017 방문 시 동반자

(3) 방문목적

서울로 7017 방문 목적²⁶⁾은 휴식이나 산책을 위해가 63.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호기심에 직접 보고 싶어서(50.7%), 도시를 조망해 보고 싶어서(31.2%), 근처에 왔다가 우연히(21.3%), 통과해서 다른 곳에 가려고(13.9%) 순으로 나타났다. 전시나 공연, 축제를 보기 위해서(6.2%)나 다양한 종류의 수목을 보고 싶어서 방문했다(5.8%)는 응답률은 매우 낮았다. 즉, 서울로 7017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행사보다는 서울로 7017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특성²⁷⁾을 경험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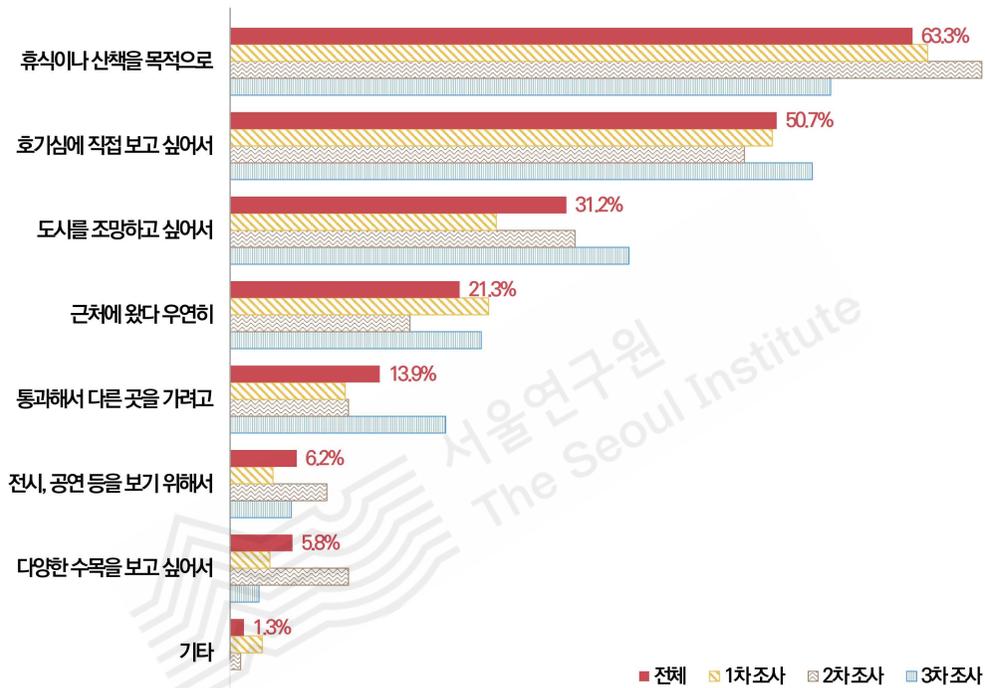
특히 휴식이나 산책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50대(68.1%)와 30대(67.4%)가 많았으며, 서울로 7017 인근에서 거주(82.1%)하거나 근무(87.7%)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주말보다는 평일(71.0%)에, 특히 평일 오후(76.7%)에 휴식산책을 목적으로 많이 방문했

25) 서울로 7017을 혼자 방문한 비율은 1차 조사에서는 9.7%에 불과했지만 2차 조사는 16.7%, 3차 조사는 17.3%로 점차 높아졌다.

26) 서울로 7017의 방문목적에 대한 응답을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조사결과는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하여 분석했다.

27) 서울로 7017은 휴식산책을 할 수 있고 도시를 조망할 수 있다는 공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 서울로 7017을 통과해서 다른 곳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는 서울로 7017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33.3%)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조사 시기에 따라서는 3차로 갈수록 휴식이나 산책을 목적으로 방문한 비율은 줄었고, 도시조망과 서울로 7017을 통과해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한 비율은 점차 늘었다. 이는 추워진 날씨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다중응답 문항으로 1순위와 2순위를 합산

[그림 4-4] 서울로 7017 방문목적

3) 서울로 7017 이용행태

서울로 7017 방문자들이 서울로 7017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출입방향과 주요 체류지점, 체류시간, 방문행위, 이용시설, 주변지역 방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1) 출입구 이용 현황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출입구²⁸⁾는 서울역광장 방향과 남대문시장 방향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우선 서울로 7017에 진입하는 입구를 살펴보면, 서울역광장 방향에서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진입하는 경우가 전체의 41.1%로 가장 높았다. 남대문시장 방향의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진입하는 경우(10번, 11번)는 전체의 19.7%로 두 번째로 높았다. 만리동 방향의 계단과 경사로를 통해 진입(3번, 4번)하는 경우는 11.7%, 대우재단빌딩과 호텔마누를 통한 진입(8번, 9번)은 11.1%, 서울스퀘어빌딩 앞의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통한 진입(7번)은 10.0%였다. 중림동 방향(1번, 2번)과 청파서계동 방향(5번)에서 진입하는 경우는 매우 미미했는데, 각각 4.4%와 2.0%에 불과했다.

서울로 7017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구 방향으로는 남대문시장 방향(10번, 11번)이 35.4%로 가장 높았고, 서울역광장 방향(6번)이 34.0%로 그 다음을 이었다. 만리동 방향(3번, 4번)이 12.4%, 대우재단빌딩과 호텔마누의 연결로를 통해 나간 경우가 7.9%였다. 서울스퀘어빌딩 앞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7번)는 5.8%, 중림동 방향의 계단과 엘리베이터(1번, 2번)는 3.2%, 청파서계 방향의 계단은 1.2%로 출구로의 사용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역광장과 남대문시장 방향에서의 진출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남대문시장 방향은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림동과 청파서계 방향의 출입구는 사용이 미미한 편이며, 서울스퀘어빌딩 앞의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출구보다는 입구의 역할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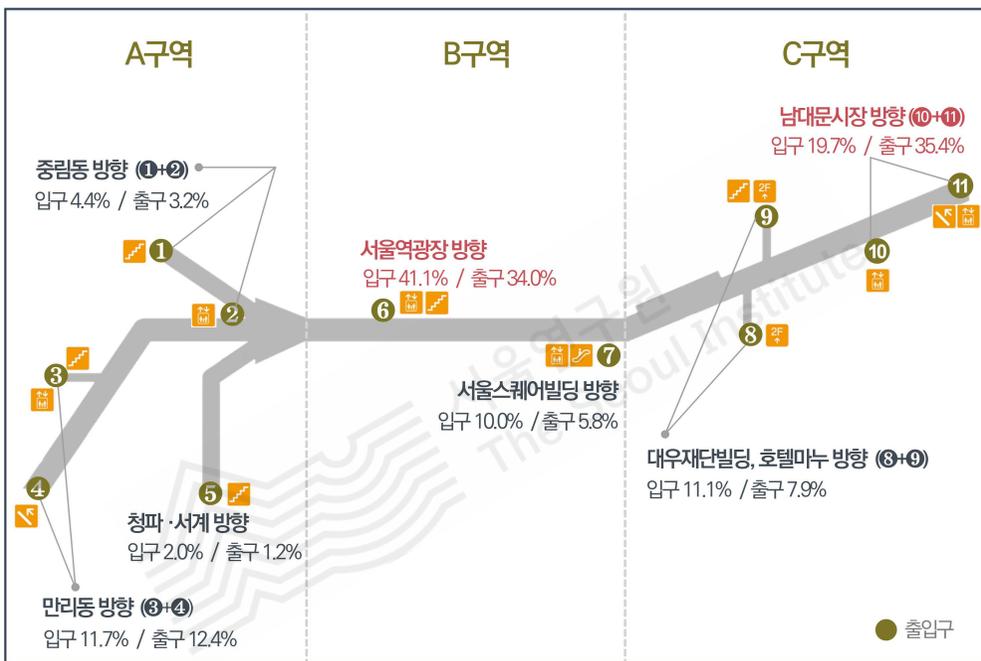
서울로 7017 인근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의 출입방향을 살펴보면, 인근의 거주자는 만리동 방향과 남대문시장의 출입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⁹⁾ 인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남대문시장 방향과 대우재단빌딩·호텔마누 방향, 서울역광장 방향의 출입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³⁰⁾

28) 서울로 7017의 출입구 위치 등에 관한 정보는 [그림 4-5]에 표기되어 있다.

29) 서울로 7017 인근 거주자의 경우 입구는 만리동 방향이 35.9%, 남대문시장 방향이 32.1%로 나타났고, 출구는 만리동 방향이 41.0%, 남대문시장 방향이 25.6%로 나타났다.

30) 서울로 7017 인근 근무자의 경우 입구는 남대문시장(19.8%), 서울스퀘어빌딩(19.8%), 대우재단빌딩·호텔마누(18.9%), 서울역

방문자들의 진출입 패턴³¹⁾을 살펴보면 서울역광장 방향에서 들어왔다가 서울역광장으로 다시 나가는 경우가 19.7%로 가장 많았고, 서울역광장 방향에서 들어와서 남대문시장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도 16.4%로 높게 나타났다. 남대문시장 방향에서 들어와서 다시 남대문시장 방향으로 나가거나, 남대문시장 방향으로 들어와서 서울역광장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 만리동 방향에서 들어와서 남대문시장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4-5] 서울로 7017 출입구 이용현황

광장(17.9%) 순이었고, 출구는 남대문시장(22.6%), 서울역광장(19.8%), 대우재단빌딩·호텔마루(17.0%), 만리동 방향(15.1%) 순서로 나타났다.

31) 방문자들의 진출입 패턴은 총 43개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7개의 패턴이 [표 4-4]와 같다.

[표 4-4] 출발지점-도착지점 상위 7개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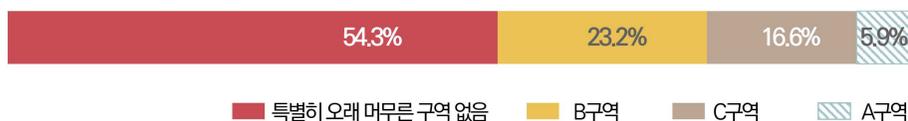
(단위: 명, %)

순위	입구	출구	빈도	비중
1	서울역광장 방향	서울역광장 방향	177	19.7
2	서울역광장 방향	남대문시장 방향	148	16.4
3	남대문시장 방향	남대문시장 방향	64	7.1
4	남대문시장 방향	서울역광장 방향	61	6.8
5	만리동 방향	남대문시장 방향	48	5.3
6	만리동 방향	만리동 방향	42	4.7
7	서울스퀘어빌딩 방향	서울스퀘어빌딩 방향	38	4.2

(2) 체류구역 및 체류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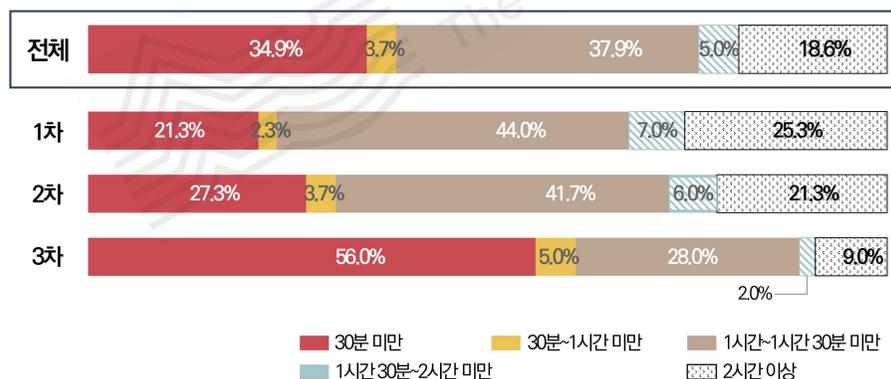
서울로 7017 이용자들이 주로 머무는 지점을 확인해보고자 전체 공간을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어디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질문했다.³²⁾ 특별히 오래 머무른 구역이 없다는 응답(54.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한곳에 오래 머무르기보다는 여러 공간을 옮겨 다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는 B구역에 주로 머무른다는 응답이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B구역은 서울스퀘어빌딩 앞 에스컬레이터 쪽에서부터 장미무대 가기 전까지를 이르는 구역으로 공중자연쉼터, 방방놀이터, 서울로전시관 등이 있고, 한강대로 쪽으로 시야가 트여 있어 도시를 조망하기 좋은 구역이다. 연령별로는 19~29세(35.7%)와 30~39세(27.9%)가 B구역에서 주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대별로는 저녁(30.0%)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녁에는 주로 도시를 조망하고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B구역에 많이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B구역 다음으로는 목련무대에서 남대문시장 방향의 영역을 의미하는 C구역이 16.6%로 나타났다. C구역에는 목련마당 및 목련무대와 서울로가게, 서울로안내소 등이 위치하고 있다. 장미무대부터 중림동, 만리동, 서부역 쪽으로 연결되는 A구역은 5.9%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는 출입구 사용빈도와도 동일한 결과로, 서울로 7017의 서측 구역의 이용 빈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32) 전체 공간을 크게 A구역, B구역, C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누었으며, 이는 [그림 4-5]에 표기되어 있다.



[그림 4-6] 서울로 7017 주요 체류구역

서울로 7017 이용자들의 체류시간을 살펴보면 1시간~1시간 30분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분 미만(34.9%), 2시간 이상(18.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서울로 7017의 이용 패턴이 30분 미만으로 짧게 머무는 사람들과 1시간 이상 길게 머무르는 2가지 형태의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50대가 비교적 긴 시간 체류하고 있으며, 평일보다는 주말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로 7017 주변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은 체류시간이 비교적 짧게 나타났다. 인근 거주자의 55.1%, 인근 근무자의 60.4%가 30분 미만 체류한다고 응답했다. 조사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3차 조사로 갈수록 30분 미만의 체류시간이 증가하고 2시간 이상의 체류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추워진 날씨가 체류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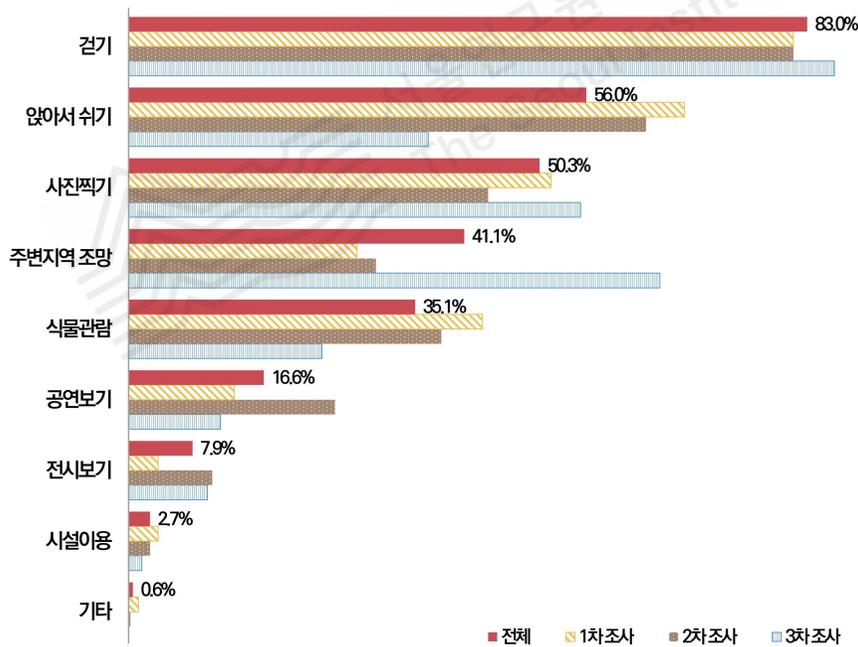
[그림 4-7] 서울로 7017 체류시간

(3) 주요 행위

서울로 7017에서 가장 많이 한 행위³³⁾는 걷기(83.0%)였으며, 두 번째는 앉아서 쉬기

33) 서울로 7017에서 가장 많이 한 행위에 대한 응답을 1순위와 2순위, 3순위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조사결과는 1순위와

(56.0%)로 나타났다. 긴 선형의 가로로 되어 있는 공간 특성이 ‘걷기’라는 행위를 많이 유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휴식 및 산책을 목적으로 서울로 7017을 방문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것 또한 ‘걷기’와 ‘앉아서 쉬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 다음으로는 사진찍기(50.3%), 주변지역 조망(41.1%), 식물관람(35.1%)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찍기 행위를 가장 많이 한 연령은 20대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도시 조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식물관람은 남정보다 여성이 더 관심을 보였으며, 연령대로는 50대 이상이 식물관람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연보기(16.6%), 전시보기(7.9%), 시설이용(2.7%)의 행위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아직까지는 고가 위에서 벌어지는 행사의 참여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로 7017 인근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걷기’와 ‘앉아서 쉬기’가 두드러지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휴식이나 산책 혹은 통과 목적으로 서울로 7017을 방문한다고 앞서 응답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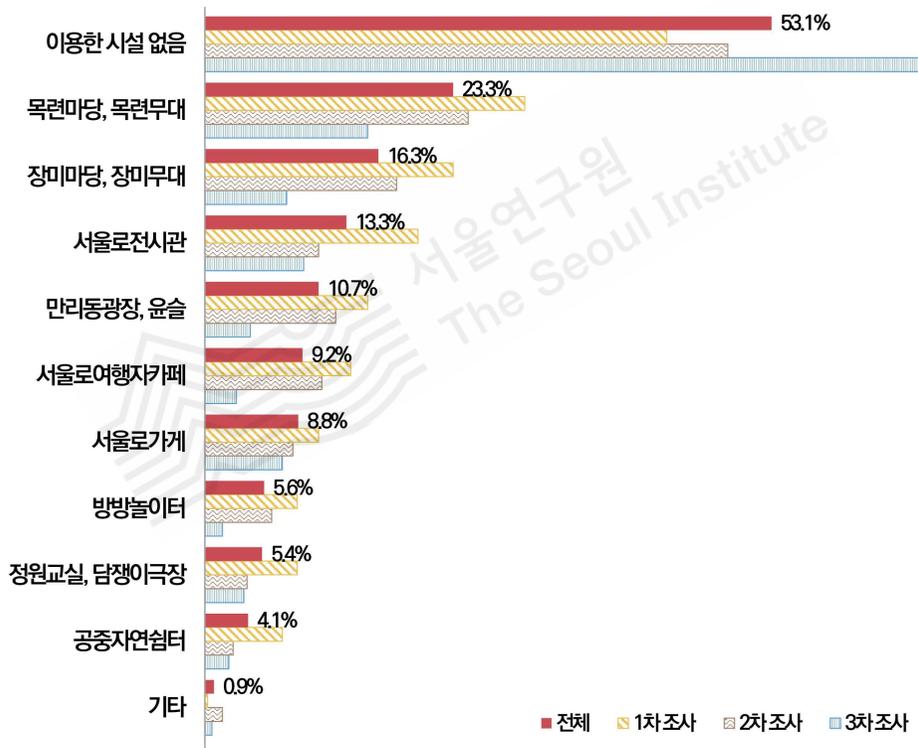
주: 다중응답 문항으로 1순위와 2순위, 3순위를 합산

[그림 4-8] 서울로 7017에서 하는 주요 행위

2순위, 3순위를 합산하여 분석했다.

(4) 시설 이용 현황

서울로 7017에 설치된 시설들의 이용률은 아직까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한 시설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3.1%에 이를 정도이다. 이용한 시설 중에서는 목련마당·목련무대(23.3%)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장미마당·장미무대(16.3%), 서울로전시관(13.3%), 만리동광장·윤슬(10.7%), 서울로여행자카페(9.2%), 서울로가게(8.8%), 방방놀이터(5.6%), 정원교실·담쟁이극장(5.4%), 공중자연쉼터(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미마당·장미무대, 목련마당·목련무대, 서울로전시관, 만리동광장·윤슬처럼 공연 및 전시 등 문화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주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주: 다중응답 문항

[그림 4-9] 서울로 7017에서의 이용시설

앞서 나눴던 A, B, C구역을 기준으로 시설 이용률을 보면 세 구역 모두 약 32.1~32.4%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즉, 시설 이용률은 공간상으로는 편중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30대가 비교적 시설 이용률이 높고, 50대 이상은 시설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⁴⁾ 평일과 주말을 비교해 보면, 평일보다는 주말의 이용시설률이 더 높았다.³⁵⁾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차 조사로 갈수록 시설 이용률이 낮아졌다.³⁶⁾ 이는 추워진 날씨가 시설 이용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 주변지역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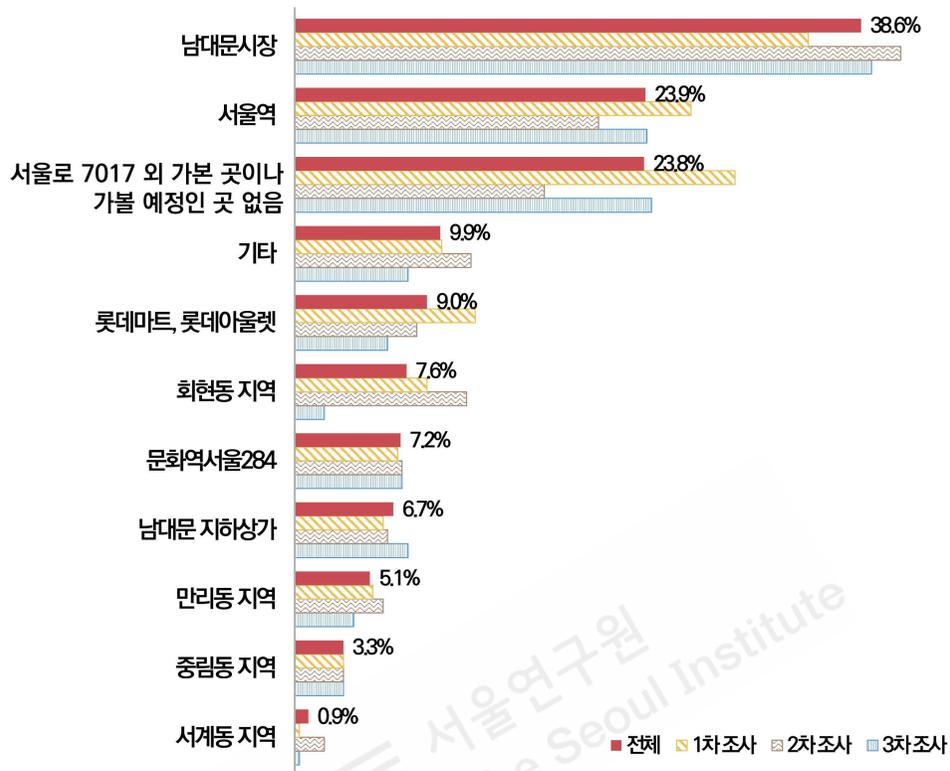
서울로 7017을 방문하기 전에 들렀거나 방문 후에 가볼 예정인 곳들이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남대문시장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역이 23.9%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3번째로 높은 응답이 서울로 7017 외에 가본 곳이나 가볼 예정인 곳이 없다는 것으로 23.8%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아직까지는 서울로 7017이 주변지역과 잘 연계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는 롯데마트·롯데아울렛(9.0%), 회현동 지역(7.6%), 문화역서울284(7.2%), 남대문지하상가(6.7%), 만리동 지역(5.1%), 중림동 지역(3.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남대문시장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역은 20대와 30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롯데마트·롯데아울렛은 30대와 50대에서, 문화역서울284는 20대, 만리동은 50대, 중림동은 30대와 40대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평일과 주말을 비교해보면, 평일보다는 주말에 주변지역을 더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로 7017 외에 가보거나 가볼 예정인 곳이 없다는 응답이 평일에는 33.1%였으나 주말은 16.7%로 더 낮았다.

34) 이용한 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30대는 38.1%에 불과했지만, 50대는 61.5%, 60세 이상은 71.3%로 나타났다.

35) 이용한 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평일은 60.5%인 것에 비해 주말은 47.5%로 낮게 나타났다.

36) 이용시설에 대한 질문에서 이용한 시설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률이 1차 조사에서는 43.3%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49.0%, 3차 조사에서는 67.0%로 점차 높아졌다. 특히 12월에 진행된 3차 조사에서 수치가 확연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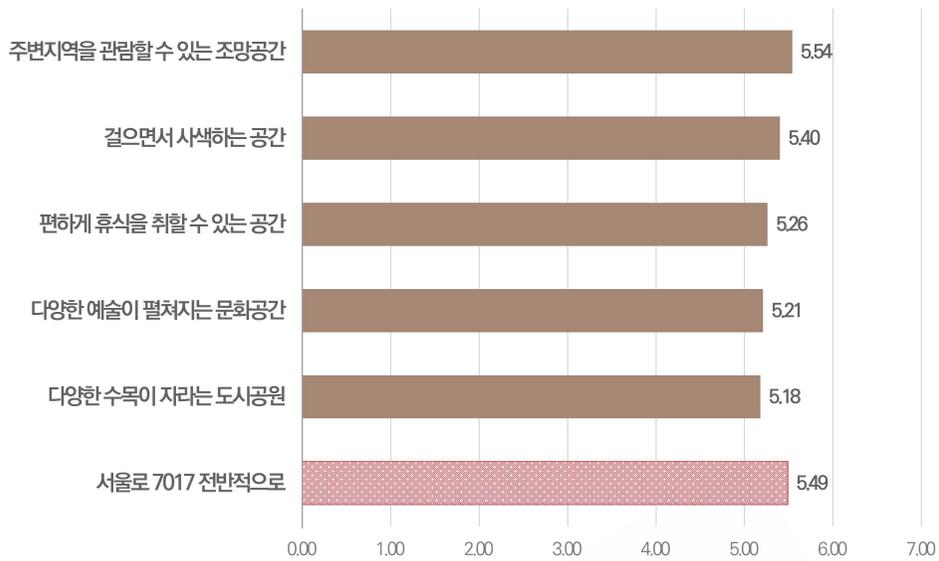


주: 다중응답 문항

[그림 4-10] 서울로 7017 이용 전이나 이용 후에 방문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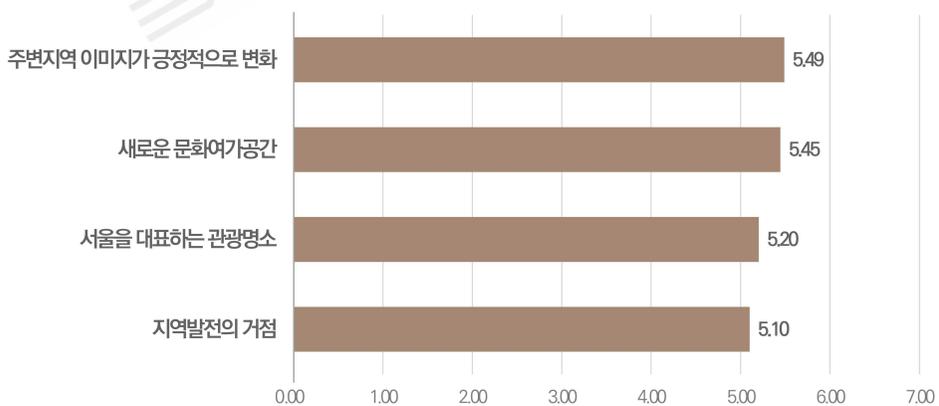
4) 서울로 7017에 대한 생각 및 향후 발전방향

서울로 7017 이용자들이 서울로 7017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된 6가지 항목을 7점 척도로 질문했다. 그 결과 주변지역을 관람할 수 있는 조망공간이라는 항목이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걸으면서 사색하는 공간이라는 응답이 5.40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5.26), 다양한 예술이 펼쳐지는 문화 공간(5.21), 다양한 수목이 자라는 도시공원(5.18)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로 7017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공간이라는 응답이 5.4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즉, 서울로 7017 이용자들은 서울로 7017을 전반적으로 좋은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조망공간, 사색하는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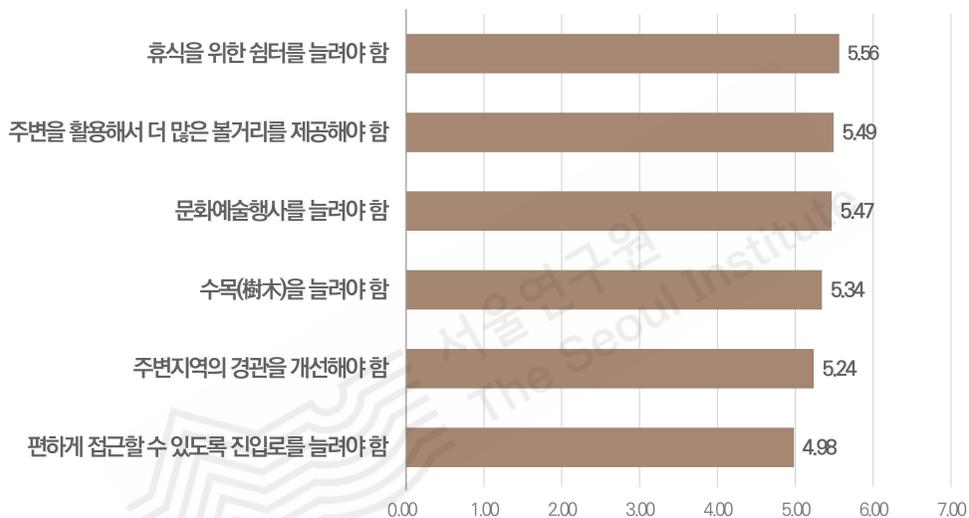
[그림 4-11] 서울로 7017에 대한 생각

서울로 7017이 향후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5.49)할 것이고, 새로운 문화여가공간(5.45)으로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5.20), 지역발전의 거점(5.10)이 될 것이라는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그림 4-12] 서울로 7017의 향후 발전방향

서울로 7017이 시민여가문화공간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는 휴식을 위한 쉼터를 늘려야 한다(5.56)는 항목이 첫 번째로 꼽혔다. 주변 빌딩 등을 활용한 더 많은 볼거리 제공(5.49)과 문화예술행사를 늘려야 한다(5.47)는 의견도 비교적 높았다. 그 외에는 수목을 늘려야 하고(5.34), 주변지역의 경관을 개선해야 한다(5.24)는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로 7017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늘려야 한다는 항목은 4.98로 제일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를 보아 진입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3] 서울로 7017이 시민여가문화공간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

2_방문객 행태 분석

1) 조사개요

서울로 7017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서울로 7017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기 위해 관찰조사를 시행했다. 관찰조사는 2017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 동안 오전 8시에서 저녁 9시 사이에 방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용행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식이다.³⁷⁾ 조사를 시행한 인원은 2명이었고, 관찰대상자는 총 60명이었다.

합리적인 조사를 위해 대상자를 평일과 주말,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³⁸⁾ 분류하였다. 평일과 주말은 각 30명씩, 오전·오후·저녁은 각 12명, 28명, 20명씩으로 할당했다. 더불어, 서울로 7017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전체를 분석해야 하는 조사 특성상 조사 시작점 또한 통제하였다. 앞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중림동·만리동·서계동 쪽(서측)을 통해 진입한 이용자는 12명, 서울역광장(서울스퀘어빌딩 앞 입구 포함) 진입자는 25명, 회현역 방향 진입자는 23명으로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 내 온도는 주중 목금은 섭씨 9.4도, 9.8도로 적당하였으나, 주말은 섭씨 5.9도와 5.3도로 쌀쌀하였다.

[표 4-5] 서울로 7017 이용시민 관찰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서울로 7017 이용자. 무작위 추출법
조사범위	서울로 7017
조사기간	2017.11.09.(목)~11.12.(일) / 평일, 주말 각각 오전 8시~저녁 9시
조사인원 및 대상자	조사인원 2명, 조사대상자 60명

[표 4-6] 서울로 7017 이용시민 관찰조사 시 기상조건

(단위: °C, mm)

구분	2017.11.09.(목)	2017.11.10.(금)	2017.11.11.(토)	2017.11.12.(일)
평균기온	9.4	9.8	5.9	5.3
최고기온	16.8	15.9	10.7	11.4
최저기온	3.7	5.3	2.7	0.3
강수량	-	7.5	-	-

출처: 날씨누리 홈페이지(<http://www.weather.go.kr/>)

37) 혼자서 서울로 7017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방문했을 경우에는 그 중 한 명만을 관찰대상자로 선정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38) 시간대는 오전(8시~12시), 오후(12시~17시), 저녁(17시~21시)으로 나누어서 배분했다.

관찰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³⁹⁾ 여성이 55.0%로 남성보다 약간 높았다. 연령은 20대와 40대가 각각 2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30대와 50대(각각 20.0%), 60대 이상(8.3%), 10대(5.0%)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형태는 혼자 방문한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다. 가족과 함께 온 경우가 26.7%였고, 그 다음으로는 친구(16.7%), 연인(15.0%), 직장동료(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자 수는 2명이 48.3%로 가장 많았고 1명이 33.3%, 4명 이상이 15.0%, 3명이 3.3%였다.

[표 4-기] 서울로 7017 이용시민 관찰조사 표본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중
전체		60	100.0
성별	남성	27	45.0
	여성	33	55.0
연령	10대	3	5.0
	20대	14	23.3
	30대	12	20.0
	40대	14	23.3
	50대	12	20.0
	60대 이상	5	8.3
관계	혼자서	20	33.3
	친구	10	16.7
	연인	9	15.0
	가족	16	26.7
	직장동료	3	5.0
	관광객	2	3.3
총인원	1명	20	33.3
	2명	29	48.3
	3명	2	3.3
	4명 이상	9	15.0

본 조사의 주요한 조사 내용은 서울로 7017에서 일어나는 행위다. 행위는 크게 기본적 행위와 선택적 행위로 분류하였다. 기본적 행위는 △ 걷기, △ 서기, △ 앉기, △ 시설 이용 등 필수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반해 선택적 행위란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로 △ 식물관람, △ 도시조망, △ 사진찍기, △ 문화 및 체험

39) 동 조사는 조사사실을 밝히지 않고 시행한 조사다. 때문에 인구학적 특성은 조사자가 조사대상자의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활동, △ 대화하기, △ 물건구경 및 구입/식음, △ 안내문 보기 등이다. 기본행위와 선택행위는 각각 내부에서는 중복될 수 없는 배타적 행위이나, 기본행위와 선택행위 간에 있어서는 중복이 가능하다. 즉, 걸으며 식물을 관람하거나 도시를 조망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조사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이용자에 대한 관찰을 시행하였다.

2) 이용행태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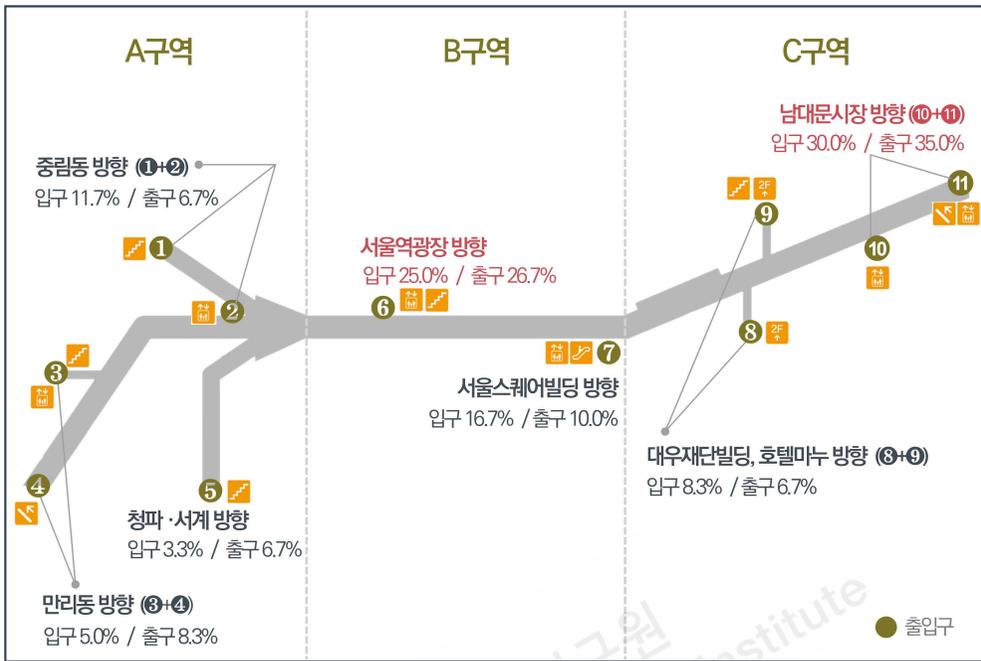
(1) 출입구 이용현황

서울로 7017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입구와 출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제된 변인인긴 하지만, 입구는 남대문시장 방향의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진입하는 경우(10번, 11번, 30.0%)와 서울역광장 방향의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진입하는 경우(6번, 25.0%)가 가장 많았다. 그 외 서울스퀘어빌딩 방향(7번, 16.7%), 중림동 방향(1번, 2번, 11.7%), 대우재단빌딩·호텔마누 방향(8번, 9번, 8.3%), 만리동 방향(3번, 4번, 5.0%), 청파서계 방향(5번, 3.3%) 순으로 나타났다. 출구 이용 또한 입구 이용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남대문시장 방향(10번, 11번) 출구가 35.0%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서울역광장 방향(6번)도 26.7%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출구와 입구의 이용패턴⁴⁰⁾을 살펴보면, 서울역광장 방향에서 들어와 남대문시장 방향으로 나가거나, 반대로 남대문시장 방향에서 들어와 서울역광장 방향으로 나가는 행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서울역광장 쪽에서 들어와 서울테라스를 거쳐 대우재단빌딩으로 나가거나 서울역광장에서 들어와서 서울역광장으로 나가는 경우, 서울스퀘어빌딩 방향에서 들어와서 서울역광장으로 나가는 경우, 대우재단빌딩으로 들어와서 서울역광장으로 나가는 경우, 남대문시장 방향으로 들어와서 중림동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 등이 비교적 많았다.

더불어 서울로 7017은 동서 방향의 긴 가로 형태로 되어 있어 입구로 진입해서 걸어가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행태를 많이 보였다. 전체 중 38.3%가 걸어가다가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평균 0.5회로 나타났다. 되돌아가는 지점은 방방놀이터 인근과 장미무대 인근이 가장 많았다.

40) 출구와 입구의 이용패턴은 출입구를 중심으로 분석했을 때 총 32개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7개의 패턴이 [표 4-8]과 같다.



[그림 4-14] 서울로 7017 출입구 이용현황

[표 4-8] 이용시민 관찰조사 - 출발지점-도착지점 상위 7개 패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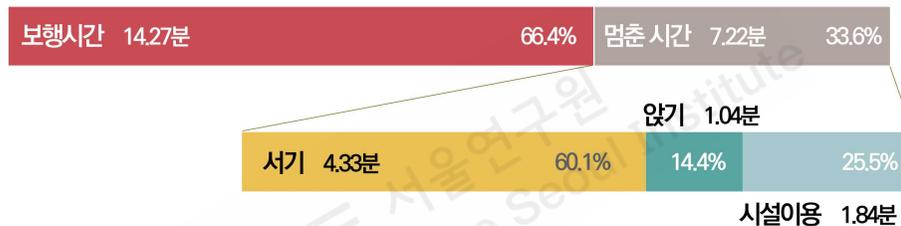
순위	입구	출구	빈도	비중
1	6	10	5	8.3
2	11	6	5	8.3
3	6	8	4	6.7
4	6	6	3	5.0
5	7	6	3	5.0
6	8	6	3	5.0
7	11	1	3	5.0

(2) 체류시간 및 장소

서울로 7017을 방문한 사람들이 서울로 7017에 체류하는 시간은 평균 21.49분으로 나타났다.⁴¹⁾ 이 중 보행하는 데에 14.27분이 소요되었으며, 한 지점에 멈춰서 이동하지 않은 평균시간은 7.22분으로 나타났다. 멈춰 있는 시간은 크게 서기, 앉기, 시설이용 등 3가지 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서기가 4.33분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설이용은 1.84분이었고, 앉기는 1.04분으로 나타났다.

걷기와 서기는 60명 모두에게 나타난 행위였으나, 앉기와 시설이용은 일부에게서만 나타났다. 앉기 행위를 한 사람은 28.3%, 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35.0%에 불과했다.⁴²⁾

평균 총 체류시간 21.49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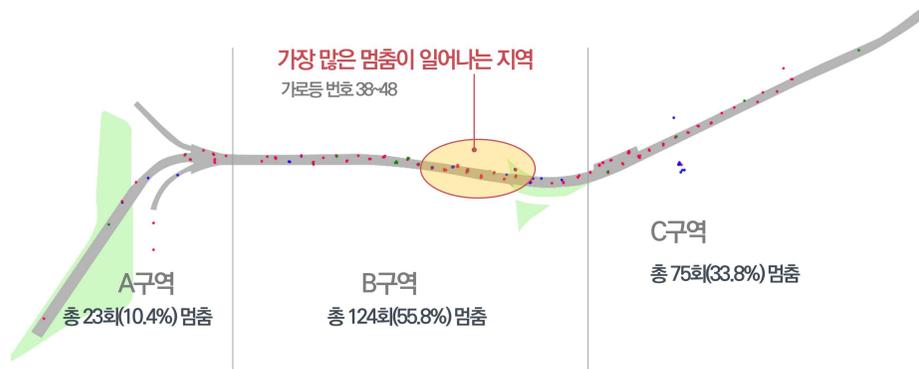
[그림 4-15] 서울로 7017 평균 총 체류시간

멈춘 지점⁴³⁾을 기준으로 다시 분석해보면, 서울로 7017에서 관찰대상자들이 멈춘 지점은 총 70곳이었으며, 멈춘 빈도량은 총 222회로 나타났다. 1인 기준으로는 평균 3.7회 멈춰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멈춤이 일어난 지역은 가로등 번호 38~48번 구간으로 한강대로 방향으로 조망하거나 사진을 많이 찍기 위해 멈추는 것으로 보인다. 구역별로는 중간의 B구역이 약 55.8%의 비중으로 멈춤이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C구역은 33.8%, A구역은 10.4%로 나타났다.

41) 체류시간을 시간별로 나뉘보면 10분 초과~20분 이내가 46.7%로 가장 많았으며, 20분 초과~30분 이내도 38.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외 30분 초과는 10.0%, 10분 이내는 5.0%에 불과했다.

42) 앉기와 시설이용을 실제 행한 사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앉기는 평균 3.68분, 시설이용은 평균 5.26분이었다.

43) 서울로 7017의 공간은 가로등과 시설물을 기준으로 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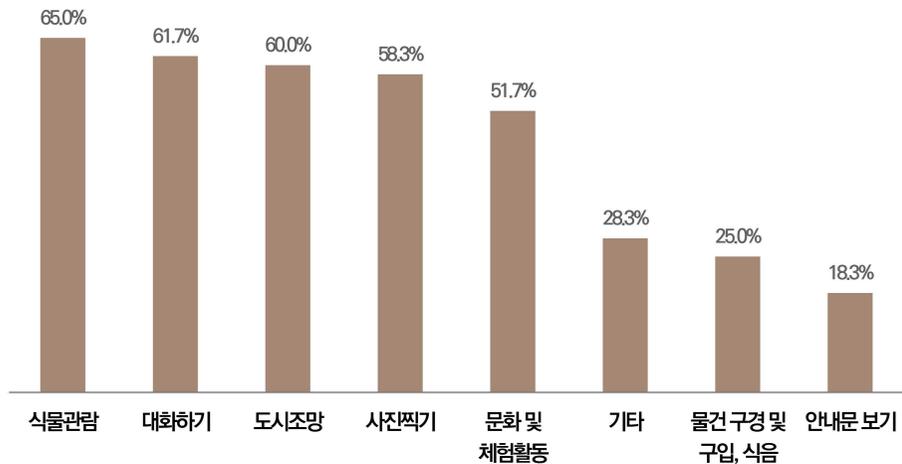
[그림 4-16] 서울로 7017에서 가장 많은 멈춤이 일어나는 지역

(3) 주요 행위

서울로 7017에서의 평균 이동거리는 601.13m로 나타났다. 평균이동 속도는 1.85km/h로 일반 보행 속도(4km/h)보다 느리다. 이는 이동 중 다양한 선택적 행위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선택적 행위의 비율을 살펴보면, 식물관람을 한 사람은 전체의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화하기(61.7%)와 도시조망(60.0%), 사진찍기(58.3%), 문화 및 체험활동(51.7%)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물건 구경 및 구입(25.0%), 안내문 보기(18.3%)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적었다.

선택적 행위의 횟수와 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대화하기로 평균 2.05회(5.08분)였다. 그 다음으로는 식물관람(1.42회/2.89분), 도시조망(1.12회/1.68분), 사진찍기(1.08회/1.58분)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문화 및 체험활동이나 물건구경/구입, 식음, 안내문 보기 등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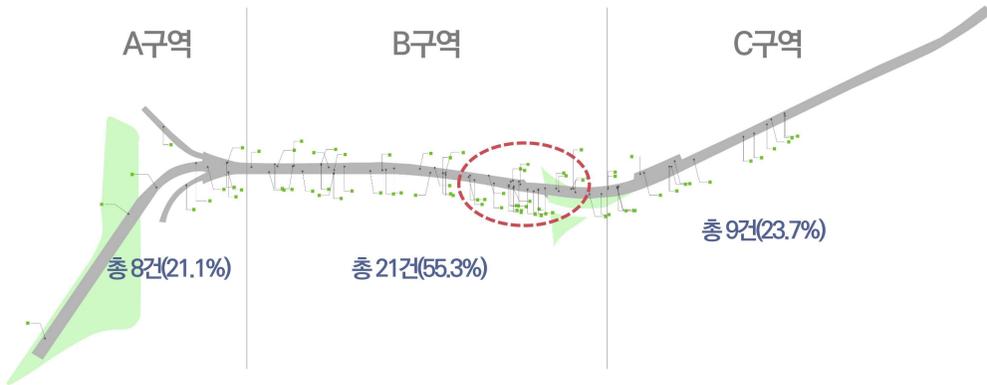
[그림 4-17] 서울로 7017 선택적 행위 비율

[표 4-9] 서울로 7017에서 나타나는 선택적 행위 횟수 및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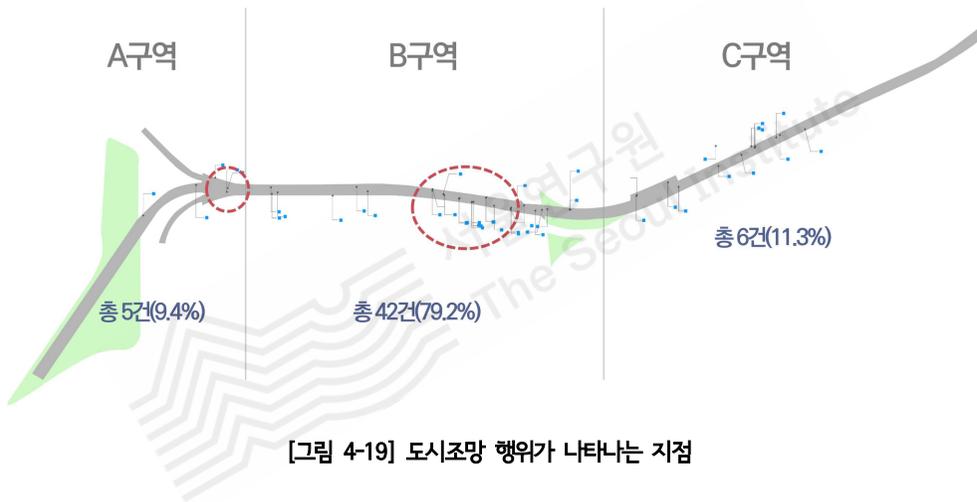
(단위: 회, 분)

	대화하기	식물관람	도시조망	사진찍기	문화 및 체험활동	물건 구경 및 구입, 식음	안내문 보기	기타
평균 횟수	2.05	1.42	1.12	1.08	0.67	0.32	0.18	0.47
평균 시간	5.08	2.89	1.68	1.58	1.13	0.87	0.23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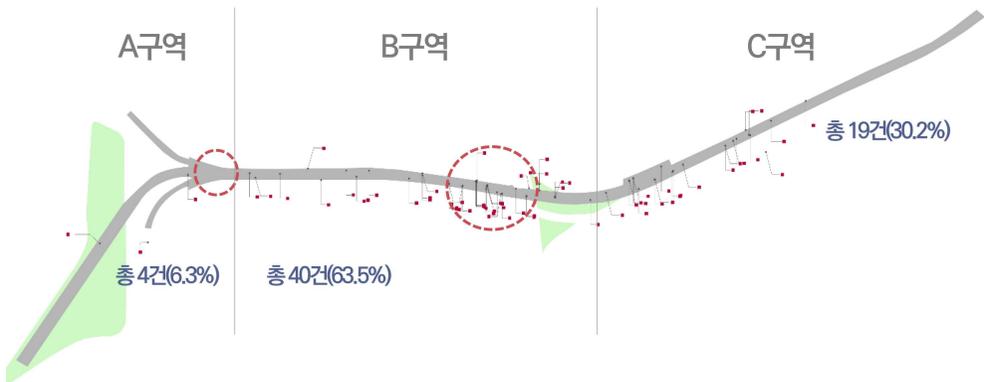
서울로 7017의 공간을 기준으로 선택적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면, 식물관람은 총 26개 지점에서 총 38건이 나타났다. 주로 공중자연쉼터와 방방놀이터가 있는 근방에서 식물관람 행위가 집중되었다. 도시조망 행위는 한강대로와 서울역광장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과 장미무대에서 집중되어 나타났다. 사진찍기 행위 역시 도시조망이 집중되어 나타난 지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많이 나타났다. 문화 및 체험활동은 목련무대와 방방놀이터 근방에서 많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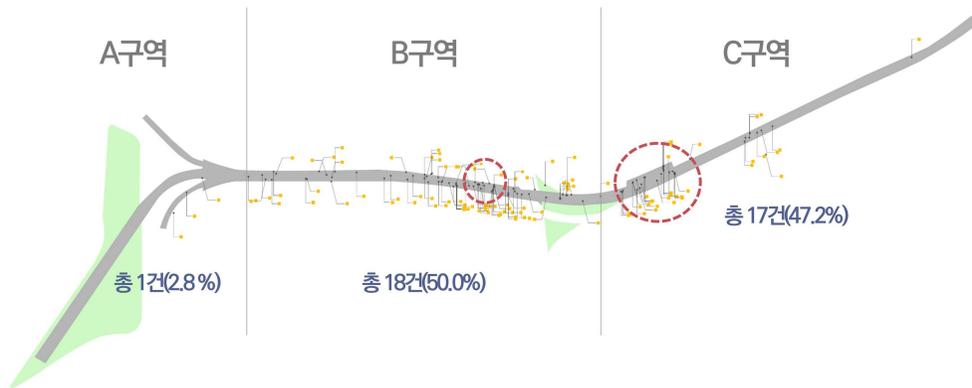
[그림 4-18] 식물관람 행위가 나타나는 지점



[그림 4-19] 도시조망 행위가 나타나는 지점



[그림 4-20] 사진찍기 행위가 나타나는 지점



[그림 4-21] 문화 및 체험활동이 나타나는 지점

기본적 행위와 선택적 행위를 조합해서 보면, 첫 번째로, 걸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는 대화하기였다. 전체의 56.7%가 걸으면서 대화를 했으며, 이들은 평균 2.9회, 평균 7.06분 대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식물관람(평균 1.6회, 평균 4.55분), 도시조망(평균 1.3회, 평균 2.55분) 등이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서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행위는 사진찍기로 전체의 56.7%가 서서 사진을 찍었다. 이들은 평균 1.62회, 평균 2.25분을 서서 사진 찍는 데에 사용했다. 그 외에는 도시조망이 평균 1.57회, 평균 1.88분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식물관람(평균 1.23회, 평균 1.31분), 문화 및 체험활동(평균 1.04회, 평균 1.56분) 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앉아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는 대화하기였다. 13.3% 정도가 앉아서 대화를 했으며, 이들은 평균 1.13회, 평균 3분을 대화하는 데 사용했다.

네 번째로, 시설이용 시에 가장 많이 했던 행위는 물건을 구경·구입하거나 식음하는 행위로 전체의 20%가 이에 해당했다. 그 외에는 문화 및 체험활동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1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평균 1.43회, 평균 3.14분을 여기에 사용했다.

[표 4-10] 기본적 행위와 선택적 행위 현황

(단위: 명, 회, 분)

행위	빈도	평균횟수	평균시간
걷기+식물관람	29	1.62	4.55
걷기+도시조망	11	1.27	2.55
걷기+사진찍기	2	1.00	2.00
걷기+문화 및 체험활동	4	1.00	1.88
걷기+대화하기	34	2.88	7.06
걷기+물건 구경 및 구입, 식음	1	1.00	2.00
걷기+기타	11	1.36	5.45
서기+식물관람	26	1.23	1.31
서기+도시조망	30	1.57	1.88
서기+사진찍기	34	1.62	2.25
서기+문화 및 체험활동	24	1.04	1.56
서기+대화하기	10	1.40	1.75
서기+물건 구경 및 구입, 식음	4	1.25	1.25
서기+안내문 보기	9	1.00	1.06
서기+기타	8	1.13	1.69
앉기+식물관람	1	1.00	1.00
앉기+도시조망	3	1.67	4.50
앉기+사진찍기	3	1.00	2.33
앉기+문화 및 체험활동	1	1.00	1.00
앉기+대화하기	8	1.13	3.00
앉기+안내문 보기	1	1.00	1.00
앉기+기타	4	1.00	2.00
시설이용+식물관람	2	2.50	3.25
시설이용+사진찍기	3	1.67	2.33
시설이용+문화 및 체험활동	7	1.43	3.14
시설이용+대화하기	2	1.00	11.50
시설이용+물건 구경 및 구입, 식음	12	1.08	3.75
시설이용+안내문 보기	1	1.00	3.00

주: 기본적 행위와 선택적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평균횟수와 평균시간을 계산함

3) 시간대별 이용행태 비교

서울로 7017의 이용행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유형별로 나눠서 분석했다.

(1) 평일-주말

평일과 주말의 이용행태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주말이 평일에 비해 평균 체류시간은 짧고 평균 이동거리는 길었으며, 평균속도도 빨랐다. 평균보행시간 또한 더 길게 나타났다. 선택적 행위의 경우, 주말에는 사진찍기 행위가 평일에 비해 훨씬 더 적게 나타났다.

[표 4-11] 평일-주말의 평균 체류시간, 이동거리, 속도, 서는 횟수, 보행시간, 멈춤시간 비교

(단위: 분, m, km/h, 회, 분, 분)

구분	평균 체류시간	평균 이동거리	평균 속도	평균 서는 횟수	평균 보행시간	평균 멈춤시간
평일	22.84	570.17	1.64	4.50	13.53	9.32
주말	20.13	632.10	2.06	2.90	15.02	5.12
전체	21.49	601.13	1.85	3.70	14.27	7.22

[표 4-12] 평일-주말의 주요 선택적 행위 평균 횟수 및 시간 비교

(단위: 회, 분)

구분	평균횟수					평균시간				
	대화하기	식물관람	도시조망	사진찍기	문화활동	대화하기	식물관람	도시조망	사진찍기	문화활동
평일	2.20	1.50	1.10	1.40	0.60	5.70	2.77	1.73	2.17	1.12
주말	1.90	1.33	1.13	0.77	0.73	4.45	3.02	1.63	0.98	1.15
전체	2.05	1.42	1.12	1.08	0.67	5.08	2.89	1.68	1.58	1.13



[그림 4-22] 평일 관찰조사 결과 주요 행위



[그림 4-23] 주말 관찰조사 결과 주요 행위

(2) 오전-오후-밤

하루의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과 오후, 밤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평균 체류시간과 평균 이동거리는 오후가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게 나타났다. 평균속도 또한 오후가 가장 느렸고, 밤이 가장 빨랐다. 이를 통해 가장 적극적으로 서울로 7017을 이용하는 시간대가 오후임을 알 수 있다. 선택적 행위에서는 밤에 도시조망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밤에는 주로 야경 등을 감상하기 위해 서울로 7017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3] 오전-오후-밤의 평균 체류시간, 이동거리, 속도, 서는 횟수, 보행시간, 멈춤시간 비교

(단위: 분, m, km/h, 회, 분, 분)

구분	평균 체류시간	평균 이동거리	평균 속도	평균 서는 횟수	평균 보행시간	평균 멈춤시간
오전	21.93	612.92	1.88	4.50	13.64	8.29
오후	23.65	629.68	1.71	4.18	15.43	8.21
밤	18.20	554.10	2.03	2.55	13.03	5.18
전체	21.49	601.13	1.85	3.70	14.27	7.22

[표 4-14] 오전-오후-밤의 주요 선택적 행위 평균 횟수 및 시간 비교

(단위: 회, 분)

구분	평균횟수					평균시간				
	대화하기	식물관람	도시조망	사진찍기	문화활동	대화하기	식물관람	도시조망	사진찍기	문화활동
오전	2.25	2.08	0.75	1.50	0.92	5.13	3.63	0.75	2.29	1.50
오후	2.32	1.71	1.04	1.29	0.79	5.93	3.86	1.27	1.73	1.36
밤	1.55	0.60	1.45	0.55	0.35	3.85	1.10	2.83	0.93	0.60
전체	2.05	1.42	1.12	1.08	0.67	5.08	2.89	1.68	1.58	1.13

(3) 동반자 수

함께 온 동반자 수에 따라 서울로 7017을 이용하는 행태는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혼자 왔을 때 평균 체류시간이 가장 짧았고, 평균 이동거리는 가장 길고 평균속도는 가장 빨랐다. 함께 온 사람이 많을수록 평균 체류시간은 길어졌으며, 평균속도는 느려졌다. 특히 연인끼리 온 경우에 평균 이동거리가 짧고 평균속도가 느린 경향을 보였다.

선택적 행위에서는 혼자 온 경우 식물관람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이상 온 경우에는 사진찍기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15] 인원수별 평균 체류시간, 이동거리, 속도, 서는 횟수, 보행시간, 멈춤시간 비교

(단위: 분, m, km/h, 회, 분, 분)

구분	평균 체류시간	평균 이동거리	평균 속도	평균 서는 횟수	평균 보행시간	평균 멈춤시간
1명	18.60	690.10	2.36	3.25	13.48	5.13
2명	21.80	526.69	1.65	3.31	14.09	7.71
3명 이상	25.93	635.64	1.45	5.55	16.20	9.73
전체	21.49	601.13	1.85	3.70	14.27	7.22

[표 4-16] 인원수별 주요 선택적 행위 평균 횟수 및 시간 비교

(단위: 회, 분)

구분	평균횟수					평균시간				
	대화하기	식물관람	도시조망	사진찍기	문화활동	대화하기	식물관람	도시조망	사진찍기	문화활동
1명	0.05	1.55	0.90	0.35	0.50	0.05	3.68	1.53	0.45	0.63
2명	2.86	1.52	1.14	0.90	0.66	7.64	2.81	1.72	1.40	1.19
3명 이상	3.55	0.91	1.45	2.91	1.00	7.45	1.68	1.86	4.09	1.91
전체	2.05	1.42	1.12	1.08	0.67	5.08	2.89	1.68	1.58	1.13

05

서울로 7017 주변지역 변화 분석

- 1_서울로 7017 인식
- 2_서울로 7017 조성 이후 지역 변화
- 3_서울로 7017 향후 발전방향

05 | 서울로 7017 주변지역 변화 분석

하나의 이벤트가 공간에 발생하면 지역은 변화하게 된다. 서울로 7017은 과연 지역에 어떤 변화를 야기할까?

우리 연구진은 한 지역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삽입되면 주변은 변화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서울로 7017 주변지역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같은 기간 언론에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보도가 몇 건 등장하였다.⁴⁴⁾ 그러나 우리 연구진이 관찰한 결과 그다지 뚜렷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만리재로 일대에 베리 스트릿키친, 바이딱, 만리 199, 유월의 마들렌, 오헤어22 등 일부 새로운 가게들만 들어섰을 뿐이다. 이에 우리 연구진은 업종조사보다는 지역주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역주민의 시각을 통해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조사는 2017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22일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방식은 대인 면접조사로 총 12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서울로 7017에 대한 인식, 서울로 7017 조성 이후 지역 변화, 서울로 7017에 대한 판단과 향후 발전방향 등이다.

[표 5-1] 서울로 7017 주변지역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서울로 7017 주변지역 거주자, 상인, 직장인
조사기간	2017년 10월 25일(수) ~ 11월 15일(수)
표본 수	총 121명
조사방법	대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조사기관	주관기관: 서울연구원 수행기관: (사)서울산책

조사 결과 나타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62.8%로 남성(37.2%)보다 약간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연령은 30대(28.1%)와 40대(28.1%)가 가장 높았다. 주민 속성은 주

44) “‘웃기는 동네’ 만리동·건물주는 돈벼락 세입자는 날벼락”, 아시아경제, 2017.4.14.; “중림동 카페거리 ‘내놓자마자 나가요’... 제2의 경리단길되나”, 아주경제, 2017.5.29.; “‘서울로’ 뜨자... ‘중리단길’ 뜨는 상인들”, 서울신문, 2017.8.8.

민이 47.1%로 가장 높았고, 주민이면서 상인이 24.0%, 직장인이 14.9%, 상인이 14.0%였다.

[표 5-2] 서울로 7017 주변지역 설문조사 표본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중
전체		121	100.0
성별	남성	45	37.2
	여성	76	62.8
연령	20대	17	14.0
	30대	34	28.1
	40대	34	28.1
	50대	20	16.5
	60대 이상	16	13.2
속성	주민	57	47.1
	상인	17	14.0
	주민이면서 상인	29	24.0
	기타	18	14.9

응답자 중 주민과 상인의 속성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민의 거주지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자가 45.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세(32.6%), 월세(20.9%)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유형은 단독주택(34.9%)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22.1%), 연립주택·빌라(20.9%), 다세대주택(11.6%), 오피스텔(8.1%)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서계동(46.5%)과 회현동(31.4%)이 높았고 중림동은 15.1%, 만리동은 4.7%였다. 거주기간은 7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47.7%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3년 미만이 23.3%, 5년 이상~7년 미만이 11.6%, 3년 이상~5년 미만이 10.5%였으며, 1년 미만은 7.0%에 불과했다. 비교적 오래 거주한 거주민들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지역 내 거주자는 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것이라는 응답이 6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이사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22.1%, 모르겠다는 응답이 9.3%로 나타났다.

[표 5-3] 서울로 7017 주변지역 설문조사 중 주민 표본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중
전체		86	100.0
소유형태	자가	39	45.3
	전세	28	32.6
	월세	18	20.9
	기타	1	1.2
주거유형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30	34.9
	아파트	19	22.1
	다세대주택	10	11.6
	연립주택/빌라	18	20.9
	오피스텔	7	8.1
	기타	2	2.3
거주지역	회현동	27	31.4
	서계동	40	46.5
	만리동	4	4.7
	중림동	13	15.1
	기타	2	2.3
거주기간	1년 미만	6	7.0
	1년 이상~3년 미만	20	23.3
	3년 이상~5년 미만	9	10.5
	5년 이상~7년 미만	10	11.6
	7년 이상	41	47.7
향후 거주의사	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임	59	68.6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이사할 계획이 있음	19	22.1
	향후 1년 내에 이사할 계획임	-	-
	모르겠음	8	9.3

상인의 표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업소유형은 카페(26.1%), 부동산 임대업(13.0%), 음식점(10.9%), 미용실·세탁소(6.5%), 슈퍼·편의점·약국(4.3%), 의류·잡화판매점(4.3%) 순이었으며 기타가 34.8%였다. 소유형태는 임대가 67.4%, 자가 32.6%였다. 업소 내 지위는 업주(73.9%)가 대부분이었고, 종업원이 21.7%였다. 업소의 위치는 서계동에 위치한 업소가 3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림동(23.9%), 회현동(21.7%), 만리동(6.5%) 순이었다. 운영기간은 7년 이상 비교적 오래 운영한 업소가 39.1%로 가장 많았

고, 1년 이상~3년 미만인 업소도 34.8%로 비교적 최근에 문을 연 업소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5년 이상~7년 미만 운영한 업소가 13.0%, 3년 이상~5년 미만 업소와 1년 미만인 업소가 각각 6.5%로 나타났다. 향후 영업의사에 대해서는 계속 영업할 계획이라는 업소가 87.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외 모르겠다는 응답이 8.7%,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이사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4.3%를 차지했다.

[표 5-4] 서울로 7017 주변지역 설문조사 중 상인 표본 특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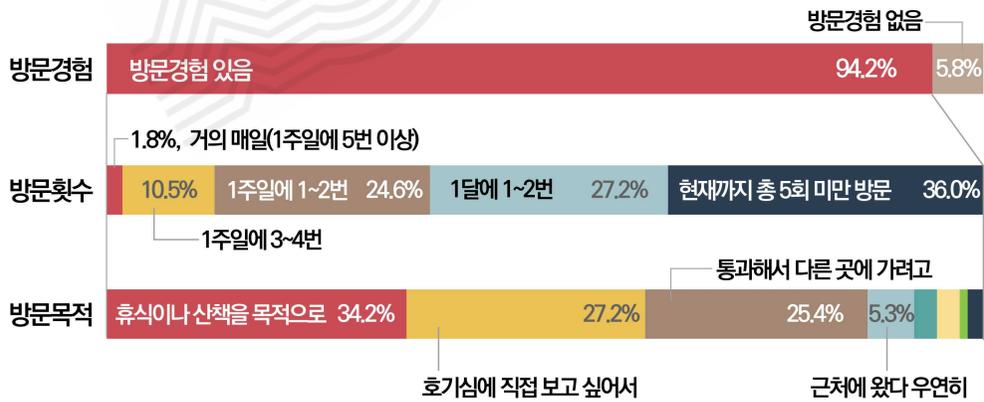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전체		46	100.0
업소 형태	음식점	5	10.9
	카페	12	26.1
	슈퍼, 편의점, 약국	2	4.3
	미용실, 세탁소	3	6.5
	의류 및 잡화 판매점	2	4.3
	부동산 임대업	6	13.0
	기타	16	34.8
업소 소유형태	자가	15	32.6
	임대	31	67.4
업소 내 위치	업주	34	73.9
	종업원	10	21.7
	기타	2	4.3
업소 위치	회현동	10	21.7
	서계동	18	39.1
	만리동	3	6.5
	중림동	11	23.9
	기타	4	8.7
업소 운영기간	1년 미만	3	6.5
	1년 이상~3년 미만	16	34.8
	3년 이상~5년 미만	3	6.5
	5년 이상~7년 미만	6	13.0
	7년 이상	18	39.1
향후 업소 영업의사	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임	40	87.0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이사할 계획이 있음	2	4.3
	향후 1년 내에 이사할 계획임	-	-
	모르겠음	4	8.7

1_서울로 7017 인식

1) 서울로 7017 방문 형태

서울로 7017 방문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의 94.2%가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방문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했다. 방문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방문횟수와 방문목적에 대해 질문했다. 방문횟수는 현재까지 총 5회 미만 방문했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높았고 1달에 1~2회가 27.2%, 1주일에 1~2회가 24.6%, 1주일에 3~4회가 10.5%, 1주일에 5회 이상이 1.8%였다. 즉, 아직까지는 서울로 7017을 자주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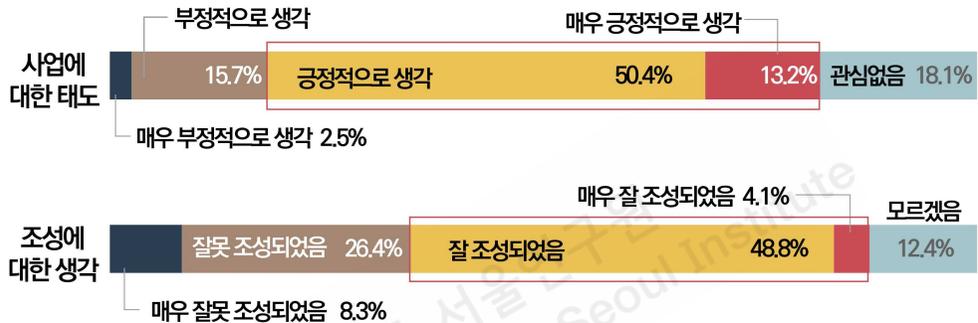
방문목적은 휴식이나 산책을 위해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높았다. 호기심에 직접 보고 싶어서 방문했다는 응답도 27.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로 7017 일반 방문객과는 달리 통과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25.4%로 높게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 외에는 서울로 7017에 왔다가 우연히(5.3%), 고가에서 도시를 조망해 보고 싶어서(2.6%), 전시·공연·축제 등을 보기 위해서(2.6%), 다양한 종류의 수목을 보고 싶어서(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서울로 7017 방문경험 및 방문횟수, 방문목적

2) 서울로 7017에 대한 태도

서울로 7017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63.6%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18.2%)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18.1%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로 7017이 얼마나 잘 조성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52.9%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34.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2.4%였다.



[그림 5-2] 서울로 7017 사업에 대한 태도 및 조성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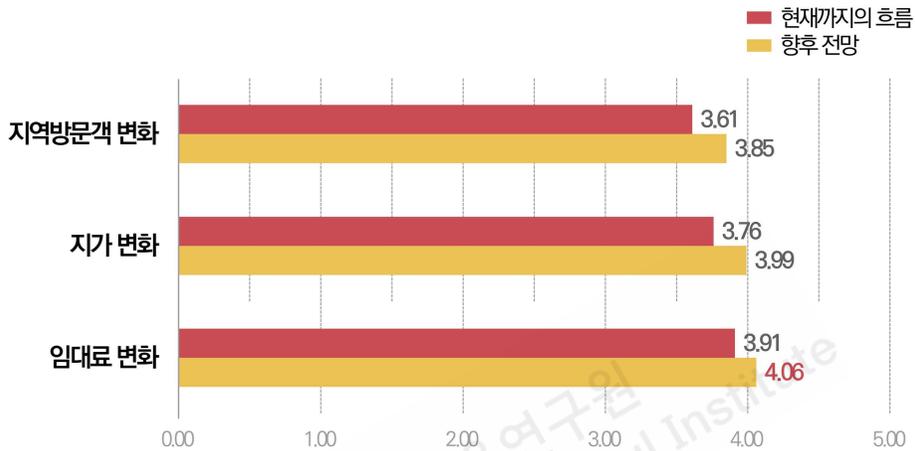
2_서울로 7017 조성 이후 지역 변화

1) 방문객 및 자가임대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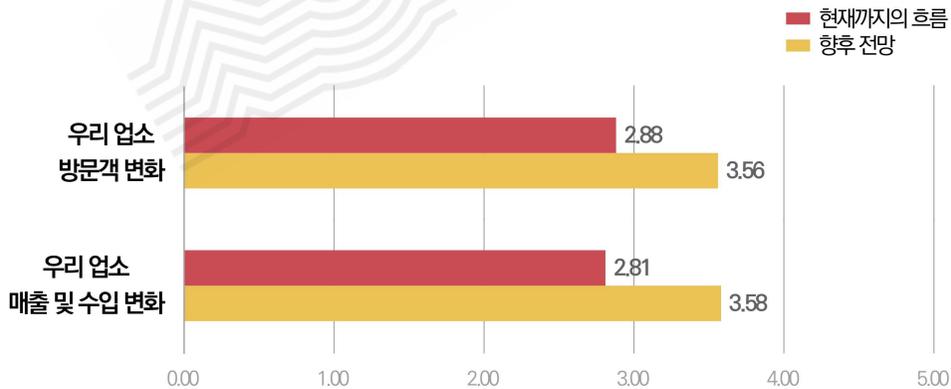
서울로 7017 조성 이후 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방문객, 자가, 임대료 변화에 대해 5점 척도⁴⁵⁾로 질문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는 지역방문객(3.61), 자가(3.76), 임대료(3.91) 모두 큰 변화는 없지만 향후에는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특히 임대료가 향후(4.06)에 가장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45) 1: 매우 감소(10% 이상), 2: 감소(5~10%), 3: 변화없음, 4: 증가(5~10%), 5: 매우 증가(10% 이상)

더불어 별도로 상인에게만 서울로 7017 조성 이후 업소 방문객의 변화와 매출 및 수입 변화에 대해 질문했다. 5점 척도⁴⁶⁾ 기준으로 현재까지 업소 방문객의 변화는 2.88, 매출 및 수입 변화는 2.81로 약간 감소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⁴⁷⁾ 그러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업소 방문객 변화는 3.56, 매출 및 수입 변화는 3.58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림 5-3] 지역방문객 및 지가, 임대료 변화에 대한 현재까지의 흐름과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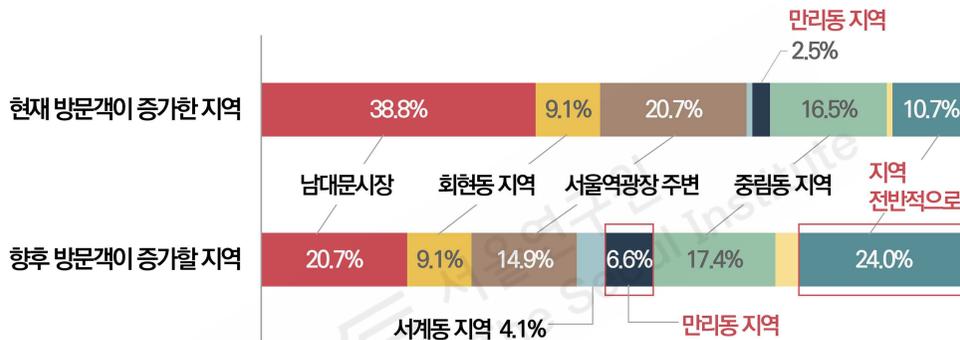


[그림 5-4] 본인 업소 방문객 및 매출, 수입 변화에 대한 현재까지의 흐름과 향후 전망

46) 1: 매우 감소(10% 이상), 2: 감소(5~10%), 3: 변화없음, 4: 증가(5~10%), 5: 매우 증가(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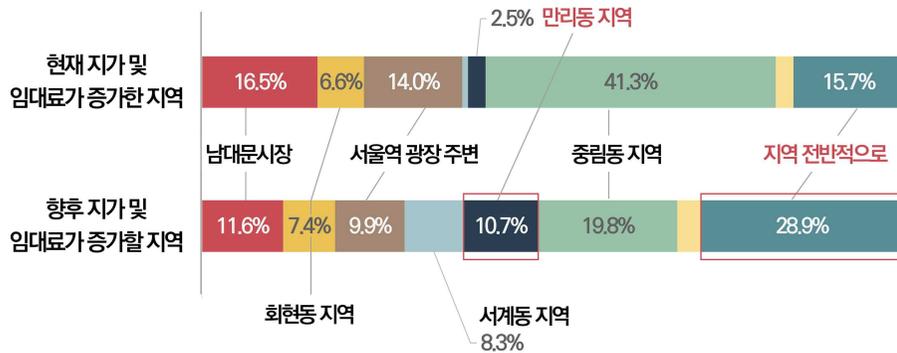
47) 서계동에 업소를 가진 상인의 비중(39.1%)이 커서 이러한 응답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로 7017 조성 이후 가장 크게 변화했거나 변화할 지역을 방문객과 지가임대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현재까지 방문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남대문시장(38.8%)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역광장 주변(20.7%), 중림동 지역(16.5%), 지역 전반적으로(10.7%), 회현동 지역(9.1%), 만리동 지역(2.5%), 서계동 지역(0.8%)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방문객이 증가할 지역으로는 한 곳을 꼽기보다는 지역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24.0%로 가장 높았다. 그 외 남대문시장(20.7%), 중림동 지역(17.4%), 서울역광장 주변(14.9%), 회현동 지역(9.1%), 만리동 지역(6.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림동 지역과 만리동 지역은 현재보다 향후에 방문객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림 5-5] 현재 방문객이 증가했거나 향후 증가할 지역

서울로 7017 조성 이후 현재까지 지가 및 임대료가 가장 크게 상승한 지역으로는 중림동 지역이 41.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남대문시장(16.5%), 지역 전반적으로(15.7%), 서울역광장 주변(14.0%), 회현동 지역(6.6%), 만리동 지역(2.5%) 순이었다. 향후 지가 및 임대료의 상승은 특정한 지역보다는 서울로 7017 인근 지역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28.9%로 높게 나타났다. 특정 지역으로는 중림동 지역이 19.8%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남대문시장(11.6%), 만리동 지역(10.7%), 서울역 광장 주변(9.9%), 서계동 지역(8.3%), 회현동 지역(7.4%) 순이었다. 특히 현재보다 향후 지가 및 임대료가 증가할 지역으로 만리동 지역과 서계동 지역을 꼽은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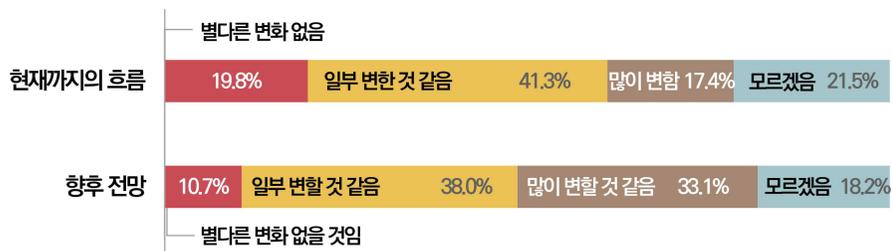


[그림 5-6] 현재 지가 및 임대료가 증가했거나 향후 증가할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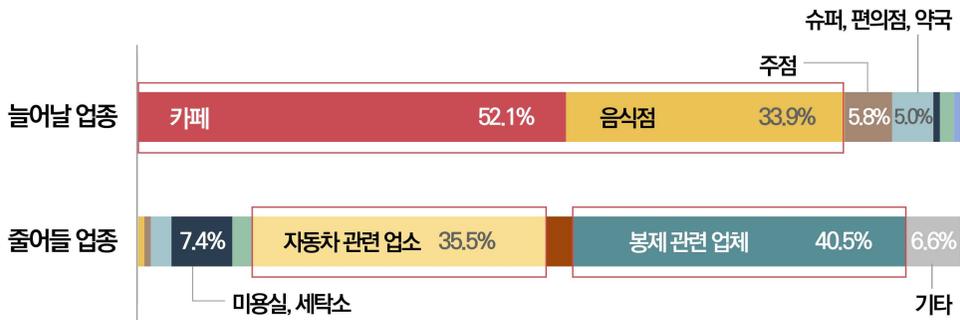
2) 업종 변화

서울로 7017 조성 이후, 지역의 업종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현재까지는 일부 변한 것 같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았고,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인다는 응답이 19.8%, 많이 변했다는 의견이 17.4%를 차지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일부 변할 것 같다는 응답이 38.0%, 많이 변할 것 같다는 응답이 33.1%로 향후 지역 내 업종이 변할 것 같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향후 늘어날 업종으로는 카페(52.1%)와 음식점(33.9%)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주점(5.8%), 슈퍼편의점약국(5.0%), 의류잡화 판매점(1.7%) 순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업종으로는 봉제 관련 업체(40.5%)와 자동차 관련 업소(35.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미용실·세탁소(7.4%), 부동산 임대업(3.3%), 슈퍼편의점약국(2.5%), 의류잡화 판매점(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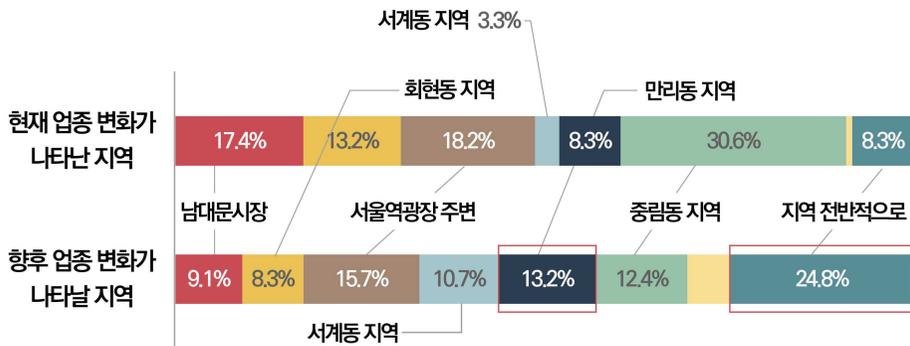


[그림 5-7] 업종 변화의 현재까지의 흐름과 향후 전망



[그림 5-8] 향후 늘어나거나 줄어든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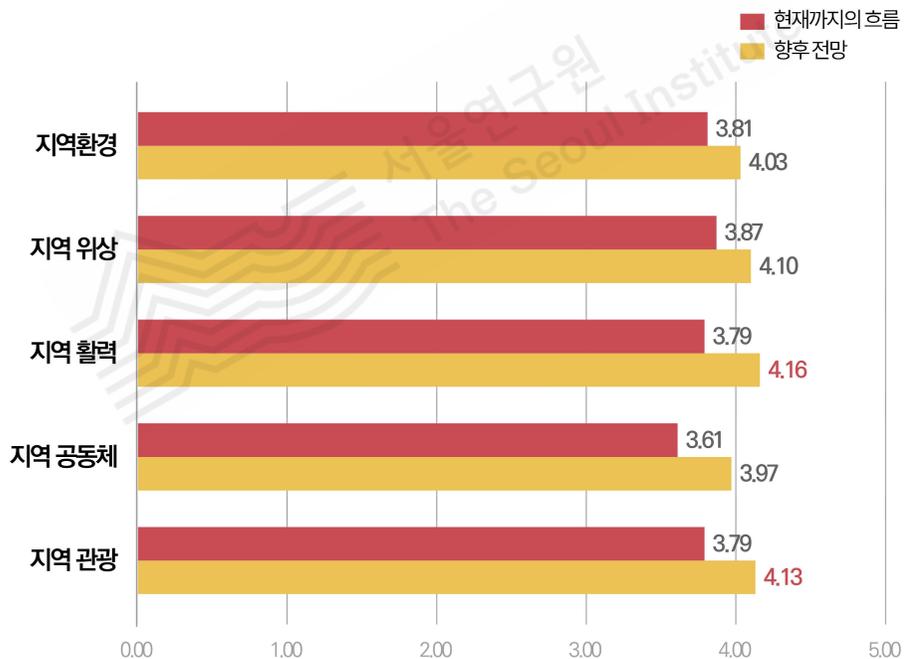
앞서 언급된 업종 변화가 현재 가장 많이 나타난 지역과 향후 가장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질문했다. 현재까지 업종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난 지역은 중림동 (30.6%)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역 광장 주변(18.2%)과 남대문시장(17.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에는 회현동 지역(13.2%), 지역 전반적으로(8.3%), 만리동 지역(8.3%), 서계동 지역(3.3%)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지역 전반적으로 업종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24.8%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는 서울역광장 주변 (15.7%), 만리동 지역(13.2%), 중림동 지역(12.4%), 서계동 지역(10.7%)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대문시장(9.1%)과 회현동 지역(8.3%)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보다 향후에 업종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지역으로는 만리동과 서계동 지역이 꼽혔다.



[그림 5-9] 현재 업종 변화가 나타났거나 향후 나타날 지역

3) 지역의 전반적 변화

서울로 7017 조성 이후 지역에 일어난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환경, 지역 위상, 지역 활력, 지역 공동체, 지역 관광 등 5개의 항목에 대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향후 어떠한 변화가 예측되는지에 대해 물었다.⁴⁸⁾ 더불어 항목별로 현재까지의 변화와 향후 변화 전망을 나누어서 질문했다. 현재까지는 지역 위상이 3.87로 가장 좋아진 항목으로 꼽혔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환경(3.81), 지역 활력(3.79), 지역 관광(3.7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공동체는 3.61로 상대적으로 긍정적 변화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향후 좋아질 것에 대한 전망은 현재까지의 변화보다 더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역 활력(4.16)과 지역 관광(4.13)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지역 위상(4.10), 지역환경(4.03), 지역 공동체(3.9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10] 현재까지의 지역 변화 및 향후 지역 변화에 대한 전망

48) 변화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했다. (1: 많이 나빠짐(많이 나빠질 것임), 2: 나빠짐(나빠질 것임), 3: 변화없음(변화없을 것임), 4: 좋아짐(좋아질 것임), 5: 많이 좋아짐(많이 좋아질 것임))

지역의 변화에 대한 현재까지의 흐름과 향후 전망은 상인, 주민 등과 같은 구성원 형태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혹은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⁴⁹⁾

지역공동체 활동의 참여나 인식에 대해서는 상인보다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상인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지역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여 서울로 7017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상인들보다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7017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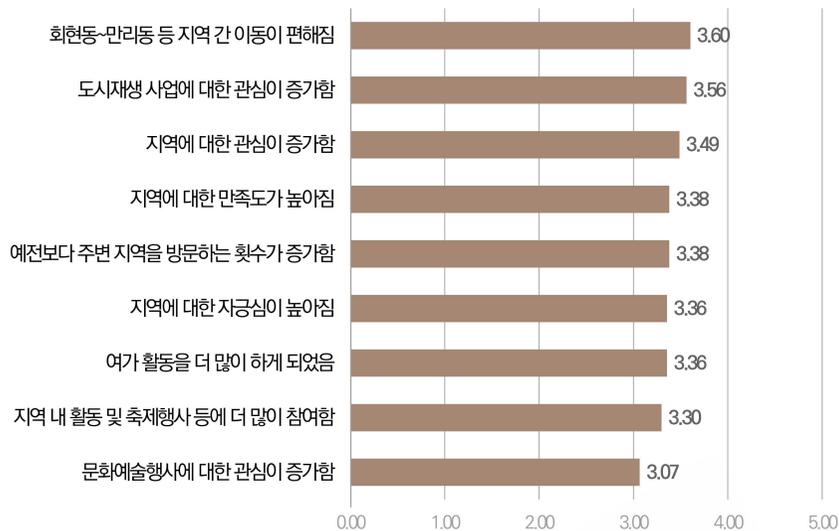
서울로 7017 주변지역은 서울로 7017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서계동, 만리동, 중림동 지역)과 동쪽 지역(회현동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사업 추진 후, 동쪽 지역(회현동) 주민들은 지역환경이나 위상, 지역 활력, 지역 공동체, 관광 등 전반적으로 서쪽 지역(서계동, 만리동, 중림동) 주민들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향후 전망에서는 서쪽 지역(서계동, 만리동, 중림동) 주민들의 기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내 삶의 변화

서울로 7017 조성 이후,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이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로 9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했다. 회현동~만리동 등 지역 간 이동이 편해졌다는 의견이 3.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3.56)과 지역에 대한 관심(3.49)이 증가했다는 의견 또한 비교적 높았다. 그 외 지역에 대한 만족도(3.38), 주변지역 방문 횟수 증가(3.38), 지역에 대한 자긍심 증가(3.36), 여가활동 증가(3.36), 지역 내 활동 및 축제행사 참여 증가(3.30)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항목은 3.07로 제일 낮게 나타났다.

특히 서쪽 지역(서계동, 만리동, 중림동)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주민들이 동쪽 지역(회현동) 주민들에 비해 회현동~만리동 등 지역 간 이동이 편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49) 지역민에 대한 차이는 상인 혹은 주민과 같은 거주형태 및 거주지역별로 구분하여 차이분석(t-test, 대응일치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중 유의한 결과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분석표본이 적어 해당 내용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의 자료로 활용은 가능하지만,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의 표본 중 거주형태는 주민은 57명, 상인은 17명, 주민이면서 상인은 29명이다. 거주지역별로는 회현동(동쪽 거주)은 2명, 서계동-만리동-중림동(서쪽 거주)은 57명으로 총 84명이다.



[그림 5-11] 서울로 7017 조성 이후 내 삶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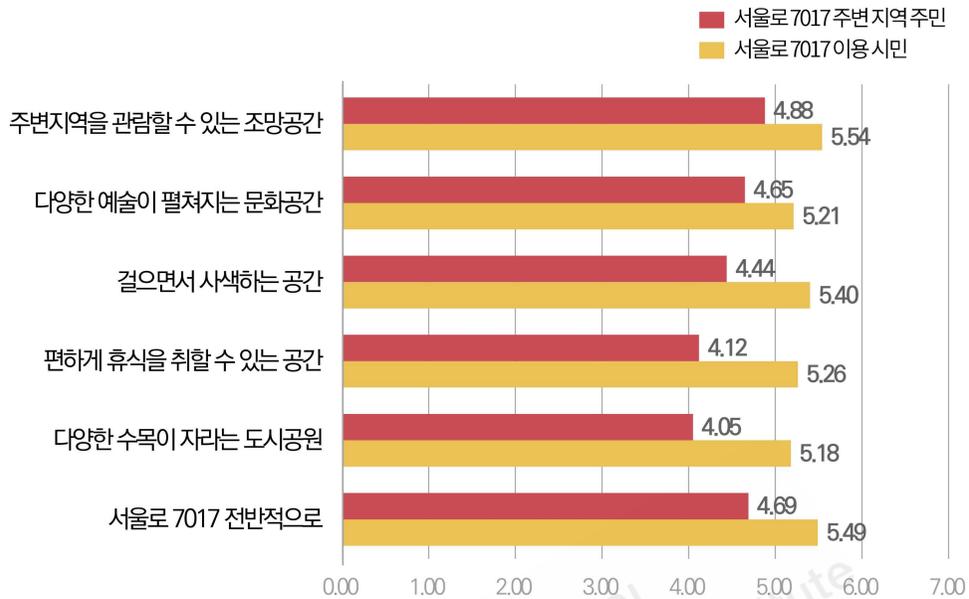
3_서울로 7017 향후 발전방향

서울로 7017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향후 발전방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 서울로 7017 이용자와 동일한 항목을 7점 척도로 질문했다.

우선 서울로 7017을 주변지역을 관람할 수 있는 조망공간(4.88)으로 인지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로 7017이 전반적으로 좋은 공간이라고 인지하는 의견도 4.69로 높았으며, 다양한 예술이 펼쳐지는 문화공간이라는 의견도 4.65로 높은 편이었다. 그 외에는 걸으면서 사색하는 공간(4.44),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4.12) 순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다양한 수목이 자라는 도시공원은 4.0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서울로 7017 이용자들의 응답 결과와 비교해 보면, 서울로 7017 이용자들의 수치가 전반적으로 높으나 항목의 순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다양한 예술이 펼쳐지는 문화공간이라는 의견이 지역주민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⁵⁰⁾

50) 서울로 7017 이용자들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주변지역을 관람할 수 있는 조망공간(5.54), 서울로 7017 전반적으로(5.49), 걸으면서 사색하는 공간(5.40),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5.26), 다양한 예술이 펼쳐지는 문화공간(5.21), 다양한 수목이 자라는 도시공원(5.1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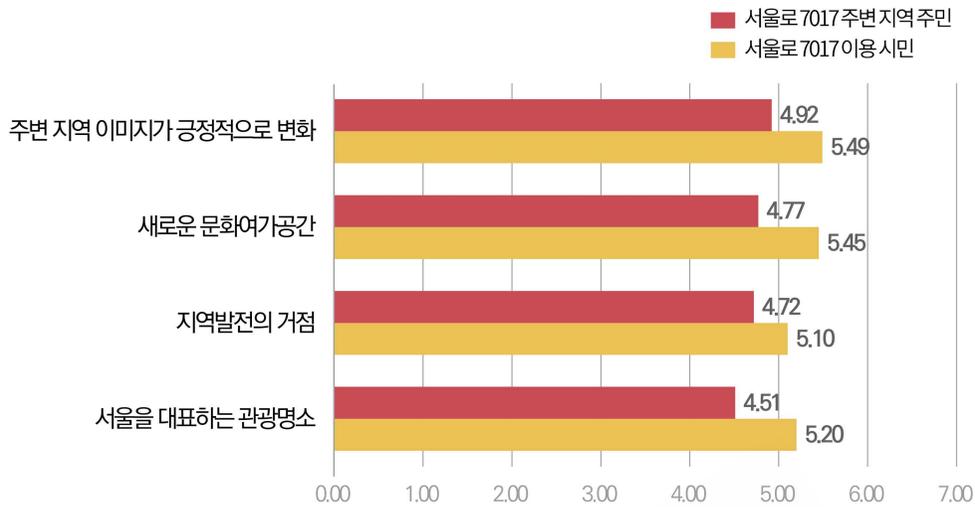


[그림 5-12] 서울로 7017에 대한 생각

서울로 7017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문화여가공간(4.77)과 지역발전의 거점(4.72)에 대한 기대감 또한 비교적 높았으며,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4.51)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로 7017 이용자들 또한 비슷하게 응답했으나 지역발전의 거점보다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⁵¹⁾

51) 서울로 7017 이용자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주변지역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5.49), 새로운 문화여가공간(5.45),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5.20), 지역발전의 거점(5.1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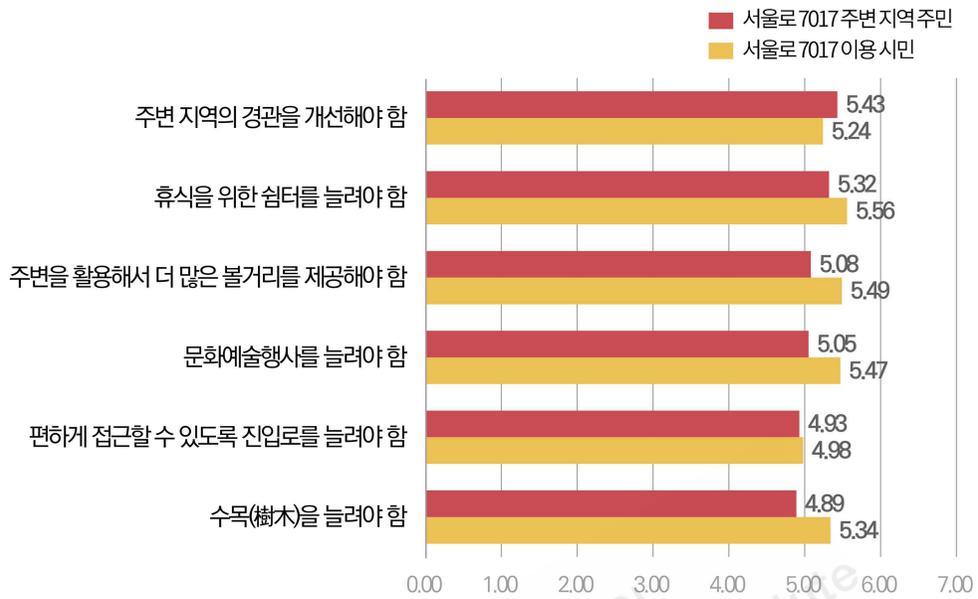


[그림 5-13] 서울로 7017의 향후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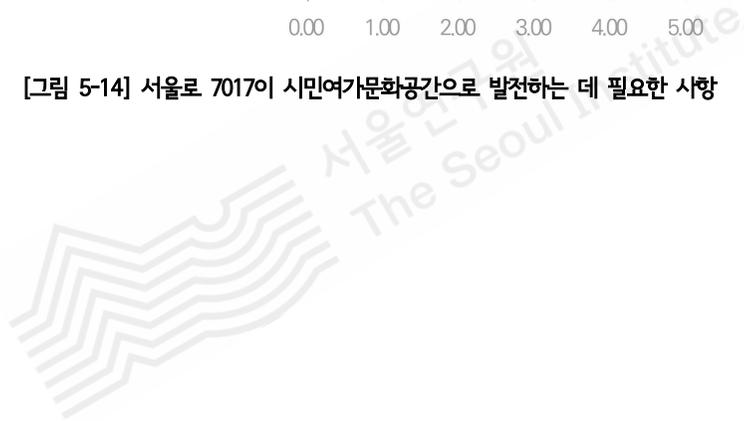
서울로 7017이 시민여가문화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경관을 개선(5.43)하거나 휴식을 위한 쉼터를 늘려야 한다(5.32)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외 주변 빌딩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5.08)해야 하며, 문화예술행사를 늘려야 한다(5.05)는 의견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늘리거나(4.93) 수목을 늘려야 한다(4.89)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로 7017 사용자들의 응답결과와 비교해 보면, 서울로 7017 이용자들⁵²⁾은 휴식을 위한 쉼터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주변지역의 경관 개선과 진입로 확대에 대한 동의도는 낮게 나타났다.

52) 서울로 7017 사용자들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휴식을 위한 쉼터 확충(5.56), 볼거리 제공(5.49), 문화예술행사 확대(5.47), 수목 증가(5.34), 주변지역 경관 개선(5.24), 진입로 확대(4.9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14] 서울로 7017이 시민여가문화공간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



06

결과 토론 및 정책 제언: 서울로 7017 발전방향

- 1_전문가 진단: 서울로 7017의 향후 과제
- 2_결론 및 제언

06 결과 토론 및 정책 제언: 서울로 7017 발전방향

1_전문가 진단: 서울로 7017의 향후 과제

1) 전문가 포럼 개최

앞선 조사결과를 요약하고 조사의 의미 및 결과를 분석하고자 우리 연구진은 서울로 7017의 현재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전문가 포럼은 2018년 2월 7일부터 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개최했으며, 참석한 전문가는 총 12명이었다.

[표 6-1] 전문가 포럼 개최 현황

구분	내용	
1차	일시	2018년 2월 7일(수) 오후 4시
	장소	퍼시스 광화문센터 세미나룸
	참석자	김형곤(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교수), 임현진(더도시연구소 대표), 정란수(프로젝트수 대표), 조경민(서울산책 대표)
2차	일시	2018년 2월 8일(목) 오후 4시
	장소	퍼시스 광화문센터 세미나룸
	참석자	윤유식(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이재준(리마크프레스 대표), 조경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조동희(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팀장)
3차	일시	2018년 2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퍼시스 광화문센터 세미나룸
	참석자	김연진(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지선(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이종필(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 선임코디네이터), 최정환(공간문화센터 대표)

2) 전문가 제언

(1) 1차 포럼: 명소화보다는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해야

1차 전문가 포럼은 2018년 2월 7일에 개최되었다. 참석자는 김형곤(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교수), 임현진(더도시연구소 대표), 정란수(프로젝트수 대표), 조경민(서울산책 대표) 등이다.

1차 포럼은 서울로 7017의 정체성과 서울로 7017과 주변지역의 연계, 서울로 7017의 시

설 운영과 조직 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정체성에 대해서는 서울로 7017이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허브이자 연결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 동의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로 7017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연결로로서 역할을 해야 할 서울로 7017 안에 행사와 이벤트가 집중되면서 그 에너지들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서울로 7017 내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더불어 서울로 7017 주변에는 문화역서울284를 비롯하여 남산, 약현성당 등 다양한 문화자원들이 있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함께 협업을 해야 할 주체가 있는데, 서로 연계되지 못한 채 각자의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서울로 7017 내에 위치한 편의시설 운영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편의시설 운영 주체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설용도 또한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 외 안내시설의 부족, 안내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서울로 7017의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우선 서울로 7017 안으로 집중되어 있는 행사를 밖으로 확산시키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서울로 7017 자체를 명소화하기보다는 주변의 문화역서울284, 남대문시장, 만리시장, 손기정공원을 가기 위한 연결로로 바라보고 함께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 서울로 7017과 주변의 만리동, 서계동, 중림동, 서계동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안내시스템 및 홍보체계를 개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데에 대부분 동의했다.

서울로 7017이 갖고 있는 매력 중 하나인 ‘조망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로 7017에서 주변지역을 조망하기 좋은 지점을 뷰 포인트로 설정하거나 서울로 7017 자체를 조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그 예로 VR로 서울로 7017을 조망하는 경험을 제공하거나 1004빌딩 등 서울로 7017을 조망할 수 있는 빌딩의 옥상을 개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서울로 7017이 갖고 있는 자산인 수목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다양한 수종이 섞여 있으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수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화분을 활용해서 이정표나 지역 소개안내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었다.

(2) 2차 포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변 문화자원과의 연계 필요

2차 전문가 포럼은 2018년 2월 8일에 개최되었다. 윤유식(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이재준(리마크프레스 대표), 조경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조동희(서울거리 예술창작센터 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우선 서울로 7017의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길’로서의 기능과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충돌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그러나 ‘길’이든 ‘공원’이든 현재의 서울로 7017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했다.

서울로 7017의 공간 및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우선 서울로 7017 위에 구조물 자체가 너무 많으며, 다양한 수목들이 심어져 있지만 멋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 또한 너무 산발적이고 다양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으며, 만리동 광장은 프로그램 진행 시 집객에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주변 문화자원과의 연계 또한 부족하다는 데에 모두 동의했다. 특히 문화역서울284와의 연계가 중요한데, 서로 협의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외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현재의 서울로 7017 운영단이 모두 조정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더불어 향후에 서울로 7017 예산이 줄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향후 서울로 7017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선 ‘길’과 ‘공원’이 혼재되어 있는 정체성 부분에서는 지금 무언가를 정하기보다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즉, 매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로 7017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서울로 7017이 갖고 있는 ‘길’, ‘나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서울로 7017이 지향하는 가치가 운영프로그램에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변지역 연계와 관련해서는 문화역서울284와의 연결방안이 중요한 사항으로 언급되었

고, 서울로 7017만의 테마 투어를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해서 기획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약현성당~서소문공원~서울로 7017~명동성당처럼 투어의 테마를 설정하고 서울로 7017을 매개로 양쪽 지역을 연결시키는 투어를 기획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 주도로 운영되는 방식 자체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속적으로 서울로 7017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시민주체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장기발전 관점에서 서울로 7017의 비전과 전략, 방향성을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3) 3차 포럼: 주변지역과의 연계, 장기발전계획 수립 필요

3차 전문가 포럼은 2018년 2월 9일에 개최되었다. 김연진(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지선(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이종필(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 선임코디네이터), 최정한(공간문화센터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서울로 7017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길'이라는 특성상 서울로 7017 자체가 주인공이기보다는 주변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주인공이 되어 섬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의견, 머무르는 공간과 흘러가는 공간이 공존한다는 의견,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는 의견, 정체성을 꼭 규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역시나 3차 포럼에서도 서울로 7017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벤트나 행사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며, 그 수 또한 너무 많고 제각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주변지역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기된 문제점은 만리동, 서계동, 남산 등 주변지역을 연계해 줄 수 있는 안내사인 및 정보의 부족, 서울역과의 단절, 주변 문화자원과의 연계 부족, 주변지역 주체들과의 관계 미구축 등이다. 관광과 관련해서는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이 꼽혔다.

향후 서울로 7017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로 7017만의 특색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것이 서울로 7017만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불어 집객이 어려운 만리동광장은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시스템 체계 개선과 서울로 7017과 연결되는 다양한 길들과 연계되는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남산의 호현당, 문화역서울284, 백성희장민호극장 등 주변 문화예술기관들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또한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주변지역과의 좀 더 긴밀한 연계를 원한다면 보행체계 개편 등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울로 7017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부분 동의했다. 한편, 현재처럼 관 주도의 운영방식보다는 서포터즈와 추진주체를 지속적으로 키워내서 향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4) 종합: 서울로 7017만의 매력 극대화, 주변지역과 연계,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로 7017의 정체성을 ‘길(흐르는 공간)’로 볼 것인지, ‘공원(머무는 공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했다. 서울로 7017이 연결로이자 허브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길’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과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성격이 공존할 수 있다는 의견, 오히려 두 개의 다른 성격이 충돌을 만들어내는 지점이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서울로 7017이 개장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은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정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둘째, 서울로 7017이 갖고 있는 공간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로 7017이 갖는 주요한 특성 중 하나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망’ 가치이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로 7017에서 주변지역을 조망하기 위한 좋은 지점을 ‘뷰 포인트’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서울로 7017 자체를 조망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이다. 서울로 7017을 조망할 수 있는 인근 빌딩의 옥상을 개방하거나 VR로 서울로 7017을 조망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서울로 7017만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현재는 서울로 7017 안에 너무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고가 안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컨셉 없이 산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서울로 7017만의 특성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며, 프로그램을 고가 안으로만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연결성’ 관점에서 주변지역을 바라보아야 하며, 주변 관련 조직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는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며, 주변 관련 조직들과도 협업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주변 문화자원들과의 연계 등을 통해 매력적인 투어 프로그램 등의 개발도 가능하고, 주변기관들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로 7017의 비전, 방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서울로 7017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비전 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서울로 7017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향후 발전계획 등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6-2] 전문가 포럼 주요내용 요약

구분	내용
현재 평가	【정체성】 길(흐르는 공간)로 볼 것인지, 공원(머무는 공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의견 분분
	【공간】 서울로 7017 내 수목들이 아직까지는 매력적이지 않음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망' 가치는 매력적
	【시설운영】 19개 편의시설의 용도 부적합 및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
	【프로그램】 현재 서울로 7017 내에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존재 프로그램들은 서울로 7017 안에만 집중
	【지역연계】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부족 '연결성'이라는 관점으로 서울로 7017을 바라보는 것 부족
	【관광】 홍보 및 안내체계 부족 매력적인 투어 프로그램 부족
개선 방향	【거버넌스】 서울로 7017 운영단과 주변 관련 조직들과의 협력체계 미비
	【정체성】 정체성(길, 공원)을 지금 명확하게 정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 필요
	【공간】 '수목'이 갖는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도출(수목 교육 등) 서울로 7017을 조망할 수 있는 주변 빌딩 옥상 등을 개방
	【시설운영】 19개의 편의시설 재구성 및 전문성 있는 운영주체로 개편
	【프로그램】 서울로 7017만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 프로그램을 서울로 7017 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개편
	【지역연계】 주변지역과의 연계로 연결로,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 주변 문화자원과의 연계 및 협업 필요
향후 전략	【관광】 홍보 및 안내체계 개선 주변 문화자원들과 연계하여 매력적인 투어 프로그램 개발
	【거버넌스】 서울로 7017 운영단과 주변 관련 조직들의 협력체계 구축 서울로 7017 운영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계기 유발
향후 전략	【모니터링】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비전수립】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 방향, 전략 수립 필요

2_결론 및 제언

1) 결론

‘하나의 공간에는 그곳만의 문화가 있다.’ ‘하나의 공간에 이벤트가 생기면 문화는 변화한다.’

우리는 공간과 문화를 둘러싼 두 가지 가정하에 본 연구를 시작했다. 서울로 7017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겨난 만큼 이 공간에는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지가 첫 번째 연구주제였고, 그로 인해 변하게 될 주변지역의 문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두 번째 연구주제였다.

연구 결과 서울로 7017에는 산책과 여가를 매개로 한 새로운 도시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는 811회의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문화공간으로서 서울로 7017이 활성화되길 원했으나, 나타난 결과를 보면 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645개 화분에 24,805그루의 나무가 식재된 환경을 배경으로 산책하고 관찰하며, 도시를 바라보고 사진찍는 공간으로 정체하고 있었다. 도심 속에서 쉬고 관찰하며, 조망하는 공원공간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초기 서울로 7017은 보행공간으로 정체되었지만, 시민들의 이용행태 속에 점차 공원공간으로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고가 내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안으로도 그렇지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또한 주변지역의 변화를 느끼기 어려웠다. 복잡한 서울로에 비해 지역은 여전히 ‘한산’한 것이다.

고가 위로 집중된 프로그램, <서울로운영단>,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나 <문화역서울284> 등 지역과 통합없이 각각 설치된 조직 등 여러 여건을 살펴보면 이 결과는 매우 당연하다. 적어도 현 여건을 살펴보면 ‘지역에는 배려가 없고 기관 간에는 연계가 없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는 서울로 7017을 둘러싼 주변지역의 변화를 주문했다. 프로젝트 목적 자체가 서울역과 남대문시장, 만리동과 중림동 지역의 재생과 변화를 목적으로 한 만큼 해당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로 7017을 둘러싸고 형성되고 있는 현 문화를 고려한다면, 이 문화가 정착되어 더 이상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전에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2) 정책제언

좀 더 나은 서울로 7017의 문화형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고가 위만큼 고가 주변의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을 상징했던 완생(完生)들의 공간에서 미생(未生)들의 공간으로 전략한 만큼, 서울로 7017을 통해 주변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본래 목적인 바의 지역재생을 이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책공간으로 형성되어 가는 서울로 7017 자체의 문화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조성되었지만, 현재는 산책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적인 바와 같이 ‘연결길’로서 의미는 약하나 산책길로 활용된다 하더라도 ‘소통길’로서 의미가 상실된 것은 아니다. 다만, 적극적인 연결행위가 없어 소통길로 쓰이고 있지 않음 뿐이다. 그런 만큼 좀 더 적극적인 연결행위를 통해 서울로 7017만이 아닌, 주변지역으로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길’로 재생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람길로 재생을 위해서는 고가 위에 과도하게 집중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과감히 고가 아래나 주변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고가 자체의 매력뿐만 아니라, 고가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돕으로써 고가의 매력과 주변지역의 매력을 융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각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를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치할 경우, 지역은 좀 더 손쉽게 재생될 수 있을 것이다. 살펴본 대로 서울로 7017 내 유입인구는 한계에 처했다. 이제는 유입된 인구를 지역으로 확산시킬 때이다.

셋째, 그런 점에서 고가와 고가 주변 사이의 소통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현재는 고가와 고가 주변의 소통은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다. 고가에서 보이는 다양한 경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도 없고, 고가 밖에서 고가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점 또한 제한적이다. 서울로 7017에서 보이는 각 지점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고 해당 지역에 행사나 이벤트를 배치한다면, <서울로운영단>이 있는 대우재단빌딩이나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 1004빌딩 등을 개방하여 고가를 전망하는 새로운 경관점이 형성된다면, 고가와 주변지역 간 소통관계는 나아질 것이다. 또한 고가 주변에서 고가를 전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고가 위에서 고가 주변을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치한다면, 고가는 고가 밖으로, 고가 밖은 고가 안으로 그 열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다양한 소통점과 이를 매개로 한 기획이 필요하다.

넷째,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서울로운영단>을 뛰어넘어 지역에 관계된 제 주체가 협력하는 새로운 협력망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와는 직접적인 협력 관계 형성이 필요하며, 문화역서울284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문체부)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만리동과 중림동, 서계동, 회현동, 남대문시장 등 여러 지역과의 협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조직체계 마련도 시급하다.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기관과 단체, 집단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로 7017의 변화를 관찰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짧은 기간에 서울로 7017을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를 가진 공간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그 변화는 17개의 연결길을 넘어 지역에 뿌리내릴 정도로 강하지 않다. 그런 만큼 향후 변화를 살펴보고,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로 7017은 이제 개장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공간이다. 또한 4계절의 변화를 감안하여 조성된 공간이고 서울역과 도심, 남산과 만리동을 잇는 공간이다. 그런 만큼 시간의 변화에 따른 관찰과 기록을 통해 서울로 7017을 둘러싼 지역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김민재, 2015, “서울역 고가, 하이리인 뺏치는 도시공원으로?”, 「환경논총」, 56
- 김원주 외, 2016, 「서울역 7017 운영관리방안」, 서울시
- 김지훈, 2015,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우·아성마·한민정 역, 2003, 「삶이 있는 도시디자인」, 푸른숲
- 김태완, 2015, “서울역 고가차도 철거 및 재활용에 따른 교통처리 대책”, 「환경논총」, 56
- 김태현 외, 2015,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기본구상(안)」, 서울연구원
- 김태현 외, 2016,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서울시
- 라도삼 외, 2015, 「서울역 고가 운영전략 기본구상」, 서울연구원
- 배정환, 2015, “세상에서 가장 긴 화분”, 「환경논총」, 56
- 서울시, 2015,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서울역 고가 기본계획 국제지명 현상설계」
- 서울시, 2017, 「서울로 7017 백서」
- 서울역사박물관, 2016, 「청파서계: 서울역 뒷동네」
- 손장원이동배, 2002, “문화성을 지향한 도시가로 보행자공간의 행위유형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8
- 정승우 외, 2009, “도시 가로 공간 이용자 행태 분석에 관한 연구: 대구시 동성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5
- 정지호 역, 2014, 「하이라인스토리: 뉴욕 도심의 버려진 고가철도를 하늘공원으로 만든 두 남자 이야기」, 푸른숲
- 조경민, “서울역 고가는 무엇을 넘고 있는가?”, 「환경논총」, 56
- 조권중 외, 2016,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백서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연구원
- 조명래, 2015, “도시재생으로서의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검토-재생 방법론의 관점에서”, 「환경논총」, 56
- 지은주 외, 2012, “청주시 성안길 가로공간의 이용행태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 13
- 허영섭, 2014,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서울역 고가차도”, 「대한토목학회지」, 62
- <http://seoullo7017.seoul.go.kr/> (서울로 7017)
- <http://www.seoul.go.kr/> (서울시)

부록

1_이용시민 대상 설문지

서울로 7017 시민이용실태 조사 설문		ID			
<p>안녕하세요. 조사전문기관 (주)오피니언라이브에서는 서울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서울로7017을 방문하신 시민여러분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참여하여 주시면 향후 서울시의 관련 정책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7년 8월</p> <p>☞ 조사주관기관 :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 조사수행기관 : (주)오피니언라이브 리서치센터 ☞ 조사담당자 : 김기택 (kkd@opinionlive.co.kr, 02)6959-9030)</p>					
SQ1. 조사지점	① 만리동 인근(지도의 A 만리동 방향) ② 서울역 인근(지도의 B 서울역 광장) ③ 남대문 인근(지도의 C 퇴계로 주변)				
SQ2. 조사일시	① 평일 오전(9~12시) ② 평일 오후(12~18시) ③ 평일 저녁(18~23시) ④ 주말 오전(9~12시) ⑤ 주말 오후(12~18시) ⑥ 주말 저녁(18~23시)				
SQ3. 거주지역	① 서울로 7017 주변 (중림동, 만리동1,2가, 청파동1가, 서계동, 동자동, 남대문로5가, 남창동) ② 서울로 7017 주변을 제외한 서울 지역 ③ 서울 외 수도권(경기, 인천) ④ 기타: _____				
SQ4. 서울 거주기간	(서울 거주자인 경우만 응답)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5~10년 ④ 10년 이상				
SQ5. 근무지역	① 서울로 7017 주변 (중림동, 만리동1,2가, 청파동1가, 서계동, 동자동, 남대문로5가, 남창동) ② 서울로 7017 주변에서 근무하지 않는다.				
SQ6.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7. 연령	① 18세 이하 ② 19~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⑥ 60세 이상 (① 18세 이하 조사 제외)		

I. 도시와 문화에 대한 태도

도시와 문화에 대한 태도

1. 귀하는 다음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동의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데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차를 타는 것보다 걷는 것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도보로 도시를 자주 여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서울시가 보행중심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일보다는 여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예술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도시에 있어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문화활동이 나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 서울로 7017에 대한 사전인식 및 방문 형태

서울로 7017에 대한 사전인식

2. 귀하는 평소 서울로 7017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 ①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②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③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④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⑤ 관심 없었다.

방문횟수

3.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서울로 7017에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 ① 오늘 처음 방문했다. ② 2~3번 왔다. ③ 4번 이상 왔다.

동반자

4. 오늘 이곳(서울로 7017)에 누구와 같이 오셨습니까?

- ① 혼자서 ② 연인 혹은 친구 ③ 직장동료
 ④ 가족 ⑤ 기타: _____

방문목적

5. 귀하께서 오늘 서울로 7017을 방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로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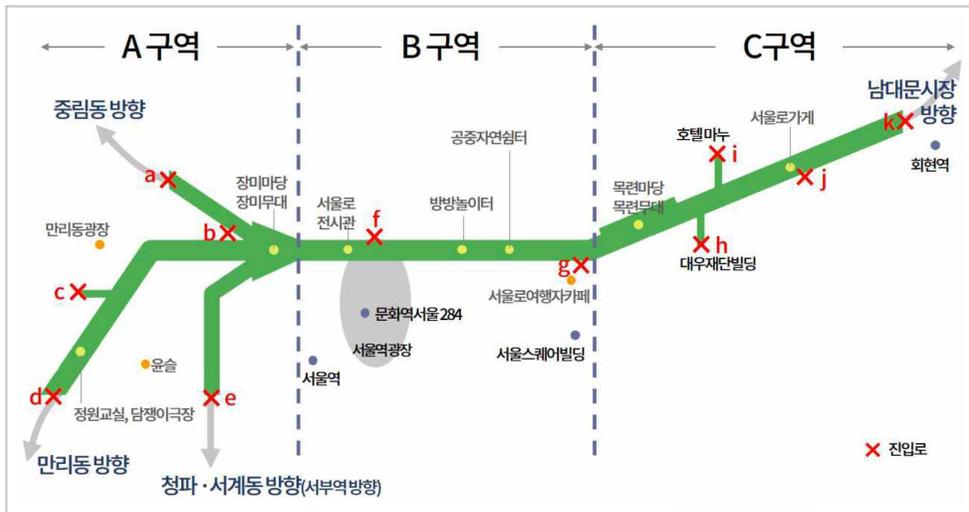
- ① 호기심에 직접 보고 싶어서 ② 휴식이나 산책을 목적으로
 ③ 고가에서 도시를 조망해 보고 싶어서 ④ 다양한 종류의 수목을 보고 싶어서
 ⑤ 전시, 공연, 축제 등을 보기 위해서 ⑥ 서울로 7017 근처에 왔다가 우연히
 ⑦ 서울로 7017을 통과해서 다른 곳에 가려고 ⑧ 기타 : _____

방문행위

6. 귀하가 서울로 7017을 방문해서 가장 많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앉아서 쉬기 ② 걷기 ③ 사진 찍기
 ④ 식물 관람 ⑤ 공연 보기 ⑥ 전시 보기
 ⑦ (서울역, 남대문 등) 주변 지역 조망 ⑧ (방방놀이터, 공중자전거 등) 시설 이용
 ⑨ 기타 : _____



※ 위의 지도를 참고하여 응답해 주세요.(7번~10번)

출입방향

7. 귀하는 서울로 7017을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향후 어느 방향으로 나가실 예정입니까? 들어오신 입구와 출구 방향을 체크해 주세요.

들어온 방향(입구) : _____, 나갈 방향(출구): _____

- ① 중림동 방향 (충정로역 쪽 / 진입로 a, b)
- ② 만리동 방향 (진입로 c, d)
- ③ 청파·서계동 방향 (서부역 쪽 / 진입로 e)
- ④ 서울역 광장 방향 (진입로 f)
- ⑤ 서울스퀘어 빌딩 방향 (진입로 g)
- ⑥ 대우재단빌딩, 호텔마누 방향 (진입로 h, i)
- ⑦ 남대문시장 방향 (회현역 쪽 / 진입로 j, k)

체류시간

8. 귀하는 서울로 7017에서 얼마나 머무셨습니까? (향후 더 머무르실 계획이면, 그 시간까지 합쳐서 대략적으로 응답해주세요.) _____ 시간 _____ 분

주요 체류지점

9. 귀하는 서울로 7017 중 어느 구역에서 가장 오래 머무셨나요? 위 지도를 참고하여 응답해 주세요.

- ① A구역 ② B구역 ③ C구역 ④ 특별히 오래 머무른 구역 없음

이용시설

10. 다음 중 서울로 7017에서 귀하가 이용하셨거나 이용할 예정인 시설은 무엇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A구역	B구역	C구역	그 외
① 만리동광장, 윤슬 ② 정원교실, 담쟁이극장 ③ 장미마당, 장미무대	④ 서울로 전시관 ⑤ 방방놀이터(트램폴린) ⑥ 공중자연쉼터(족욕탕) ⑦ 서울로 여행자 카페	⑧ 목련마당, 목련무대 ⑨ 서울로가게	⑩ 기타: _____ _____ ⑪ 이용한 시설 없다.

주변지역 방문

11. 다음 중 서울로 7017에 오시기 전에 들리셨거나 방문 후에 가 볼 예정인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 주변	① 서울역	② 문화역서울 284	③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남대문 지역	④ 남대문시장	⑤ 남대문 지하상가	⑥ 회현동 지역
그 외 지역	⑦ 만리동 지역	⑧ 중림동 지역(중리단길 등)	⑨ 서계동 지역
기타	⑩ 기타: _____		
	⑪ 서울로 7017 외에 가 본 곳이나 가 볼 예정인 곳이 없다.		

III. 서울로 7017에 대한 생각 및 향후 발전방향

12. 귀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관점에서 서울로 7017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매우 나쁘다 ← 보통 → 매우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걸으면서 사색하는 공간으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양한 수목이 자라는 도시공원으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양한 예술이 펼쳐지는 문화공간으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변지역을 관람할 수 있는 조망공간으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서울로 7017은 전반적으로 보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귀하는 서울로 7017이 향후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새로운 문화여가공간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변 지역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귀하는 서울로 7017이 시민의 여가문화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불필요하다 ← 보통 →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화예술행사를 늘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변 빌딩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예: 서울스퀘어 미디어아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휴식을 위한 쉼터를 늘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목(樹木)을 늘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늘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변 지역의 경관을 개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응답자		조사일시	월 ___일 ___시
전화번호		면접원 이름	

II. 서울로 7017에 대한 인식

4. 귀하는 「서울로 7017」에 방문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방문한 경험 있다. (☞4-1로 이동)
- ② 방문한 경험 없다. (☞4-3으로 이동)

4-1. 「서울로 7017」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셨습니다까?

- ① 거의 매일(1주일에 5번 이상)
- ② 1주일에 3~4번 정도
- ③ 1주일에 1~2번 정도
- ④ 1달에 1~2번 정도
- ⑤ 현재까지 5회 미만 방문했다.

4-2. 「서울로 7017」에 주로 어떠한 목적으로 방문하셨습니다까? (☞ 응답 후 5번으로 이동)

- ① 호기심에 직접 보고 싶어서
- ② 휴식이나 산책을 목적으로
- ③ 고가에서 도시를 조망해 보고 싶어서
- ④ 다양한 종류의 수목을 보고 싶어서
- ⑤ 전시, 공연, 축제 등을 보기 위해서
- ⑥ 서울로 7017 근처에 왔다가 우연히
- ⑦ 서울로 7017을 통과해서 다른 곳에 가려고
- ⑧ 기타 : _____

4-3. 「서울로 7017」에 방문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향후 방문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방문할 생각 있다.
- ② 방문할 생각이 전혀 없다.

5. 귀하는 「서울로 7017」 사업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다까?

- ①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 ②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 ③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 ④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 ⑤ 관심 없었다.

6. 귀하는 「서울로 7017」이 얼마나 잘 조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조성되었다.
- ② 잘 조성되었다.
- ③ 잘못 조성되었다.
- ④ 매우 잘못 조성되었다.
- ⑤ 모르겠다.(관심없다.)

III. 서울로 7017 조성 이후 지역 변화

[1] 방문객 및 지가/임대료 변화

7. 서울로 7017 조성 이후, 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현재까지 흐름						향후 전망						
	매우 감소 (10% 이상)	감소 (5~10%)	변화 없음	증가 (5~10%)	매우 증가 (10% 이상)	모르겠음	매우 감소 (10% 이상)	감소 (5~10%)	변화 없음	증가 (5~10%)	매우 증가 (10% 이상)	모르겠음	
지역 방문객 변화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지가 변화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임대료 변화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상인 만 응답	우리 업소 방문객 변화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우리 업소 매출 및 수익 변화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8. 서울로 7017 조성 이후,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향후 어느 지역이 가장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한 지역	향후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는 지역
방문객이		
지가 및 임대료가		

- ① 남대문시장 ② 회현동 지역 ③ 서울역 광장 주변 ④ 서계동 지역
 ⑤ 만리동 지역 ⑥ 중림동 지역 ⑦ 기타: _____ ⑧ 지역 전반적으로

[2] 업종 변화

9. 서울로 7017 조성 이후, 지역의 업종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현재까지 흐름				향후 전망			
	달라진 변화 없음	일부 변한 것 같음	많이 변했음	잘 모르겠음	달라진 변화 없을 것임	일부 변할 것 같음	많이 변할 것 같음	잘 모르겠음
업종 변화	①	②	③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input type="checkbox"/>

10. 향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날 업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어날 업종	줄어든 업종
--------	--------

- ① 음식점 ② 카페 ③ 주점(주류 판매) ④ 슈퍼, 편의점, 약국
 ⑤ 미용실, 세탁소 ⑥ 의류 및 잡화 판매점 ⑦ 자동차 관련 업소 ⑧ 부동산 임대업
 ⑨ 봉제 관련 업체 ⑩ 기타: _____

11. 이러한 업종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난 지역과, 향후 가장 많이 나타날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지역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종 변화가 나타난 지역	향후 업종 변화가 나타날 지역
------------------	------------------

- ① 남대문시장 ② 회현동 지역 ③ 서울역 광장 주변 ④ 서계동 지역
 ⑤ 만리동 지역 ⑥ 중림동 지역 ⑦ 기타: _____ ⑧ 지역 전반적으로

[3] 지역의 전반적 변화

12. 서울로 7017 조성 이후, 지역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흐름						향후 전망					
	많이 나빠짐	나빠짐	변화 없음	좋아짐	많이 좋아짐	모르겠음	많이 나빠질 것임	나빠질 것임	변화 없을 것임	좋아질 것임	많이 좋아질 것임	모르겠음
지역 환경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지역 위상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지역 활력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지역 공동체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지역 관광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4] 내 삶의 변화

13. 서울로 7017 조성 이후, 귀하의 삶이나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 보통 →				
	전혀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다
회현동~만리동 등 지역 간 이동이 편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①	②	③	④	⑤
예전보다 주변 지역(만리동, 중림동, 남대문 등)을 방문하는 횟수가 증가했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 내 활동 및 축제행사 등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서울로 7017을 걷는 등 산책이나 여가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됐다.	①	②	③	④	⑤
서울로 7017에서 공연이나 전시를 보는 등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①	②	③	④	⑤

IV. 서울로 7017에 대한 생각 및 향후 발전방향

14. 귀하는 서울로 7017이 향후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 보통 →						
	전혀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다
새로운 문화여가공간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변 지역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귀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관점에서 서울로 7017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보통 →						
	매우 나쁘다						매우 좋다
걸으면서 사색하는 공간으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양한 수목이 자라는 도시공원으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양한 예술이 펼쳐지는 문화공간으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변지역을 관람할 수 있는 조망공간으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서울로 7017은 전반적으로 보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귀하는 서울로 7017이 시민의 여가문화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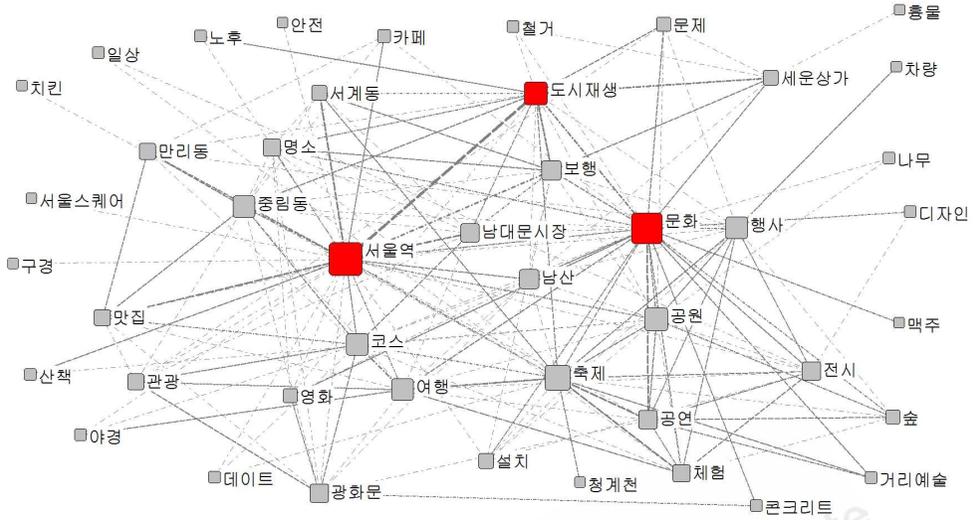
	← 보통 →						
	전혀 불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문화예술행사를 늘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변 빌딩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예: 서울스퀘어 미디어아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휴식을 위한 쉼터를 늘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목(樹木)을 늘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늘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변 지역의 경관을 개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응답자		조사일시	월 ___일 ___시
전화번호		면접원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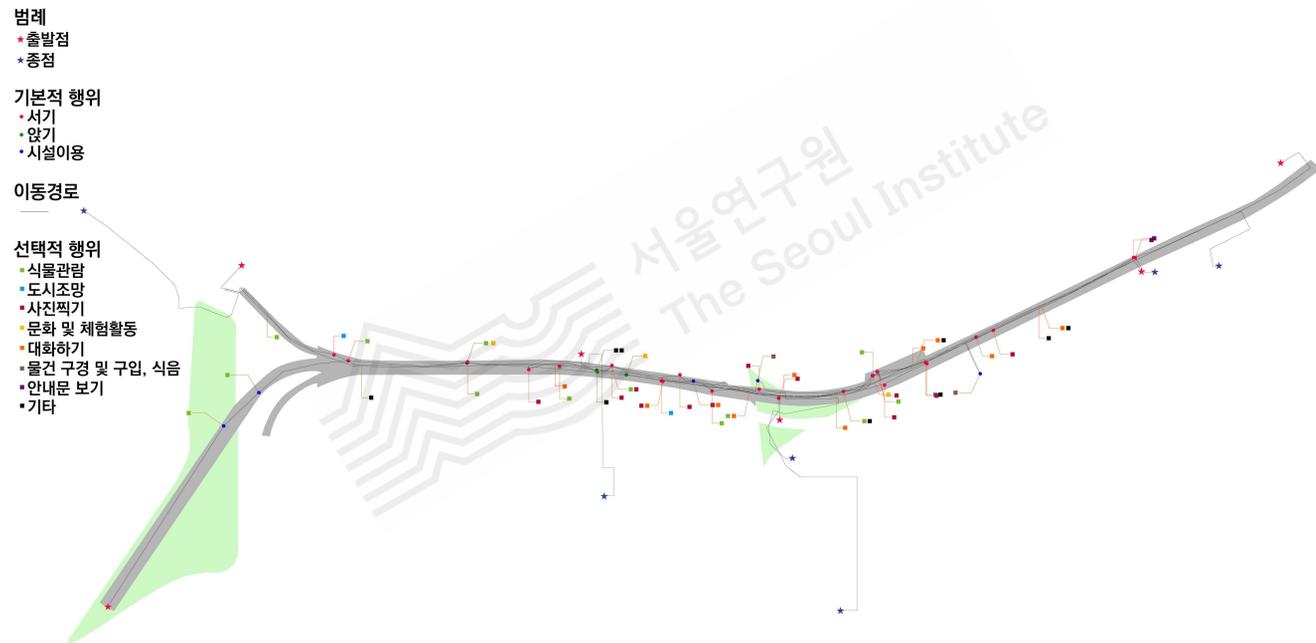


(4) 개장 후기



4_이용시민 관찰조사 결과

1) 평일 오전



2) 평일 오후

범례

- ★ 출발점
- ★ 종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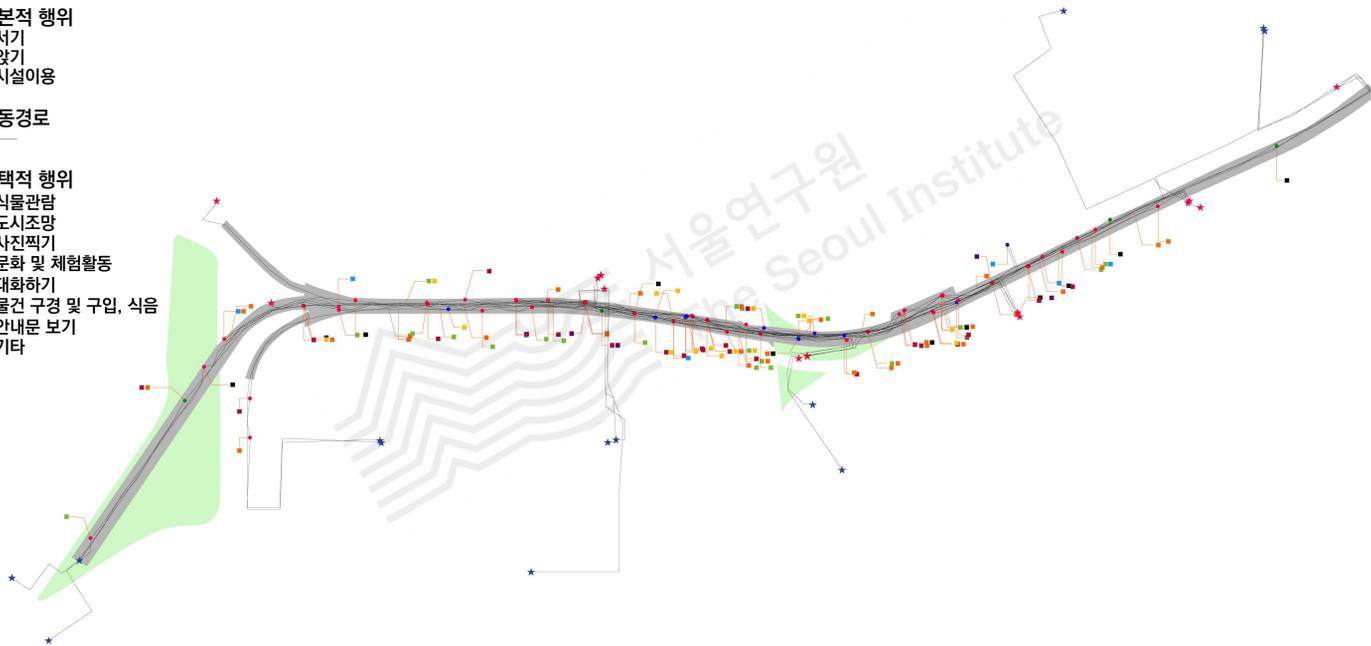
기본적 행위

- 시기
- 앉기
- 시설이용

이동경로

선택적 행위

- 식물관람
- 도시조망
- 사진찍기
- 문화 및 체험활동
- 대화하기
- 물건 구경 및 구입, 식음
- 안내문 보기
- 기타



3) 평일 저녁

범례

- 출발점
- 종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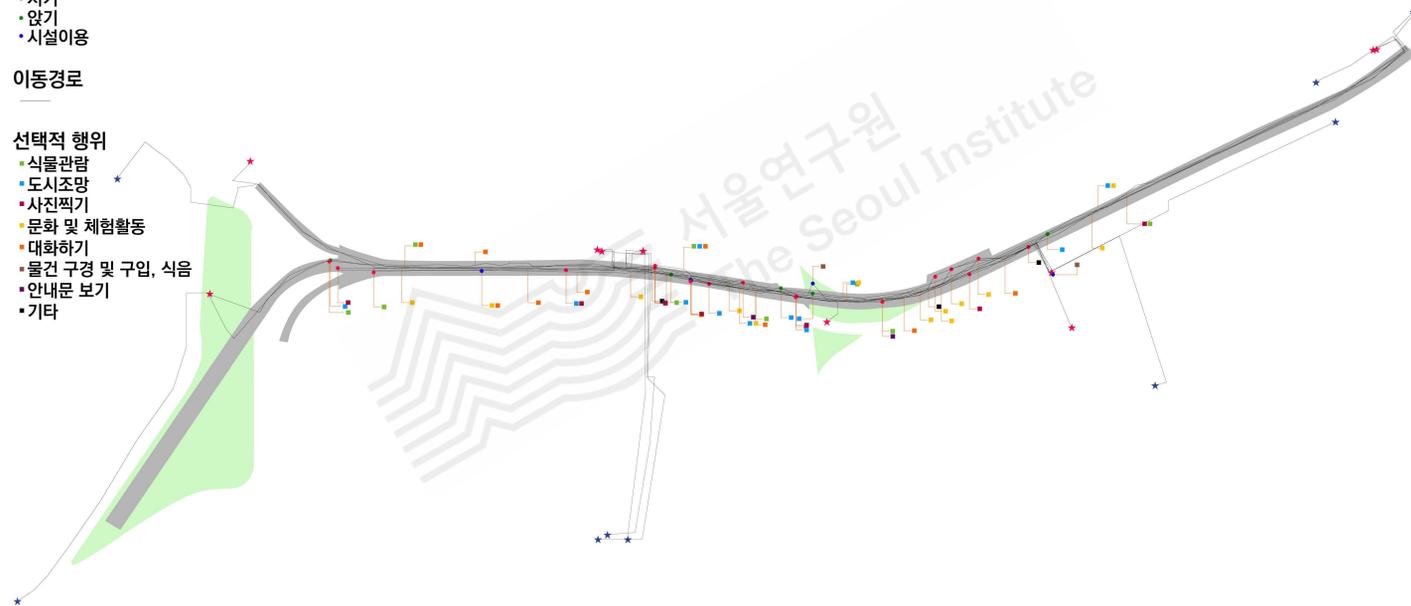
기본적 행위

- 서기
- 앉기
- 시설이용

이동경로

선택적 행위

- 식물관람
- 도시조망
- 사진찍기
- 문화 및 체험활동
- 대화하기
- 물건 구경 및 구입, 식음
- 안내문 보기
- 기타



4) 주말 오전

범례

- 출발점
- 종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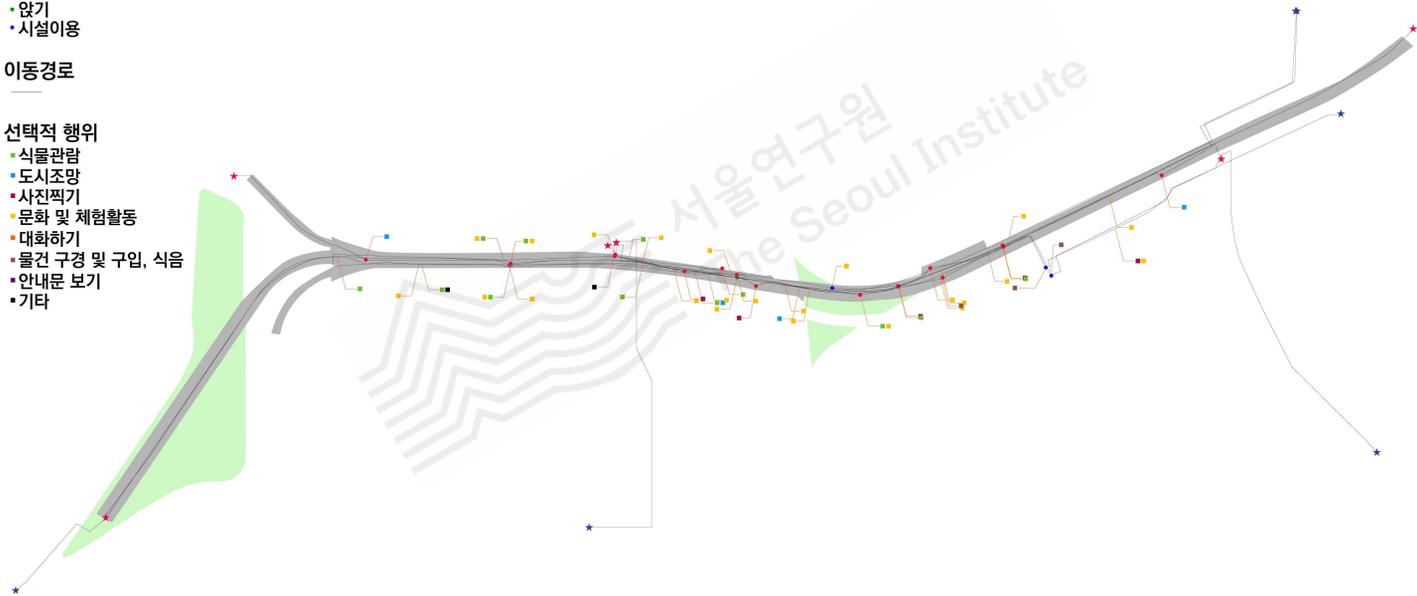
기본적 행위

- 서기
- 앉기
- 시설이용

이동경로

선택적 행위

- 식물관람
- 도시조망
- 사진찍기
- 문화 및 체험활동
- 대화하기
- 물건 구경 및 구입, 식음
- 안내문 보기
- 기타



5) 주말 오후

범례

- 출발점
- 종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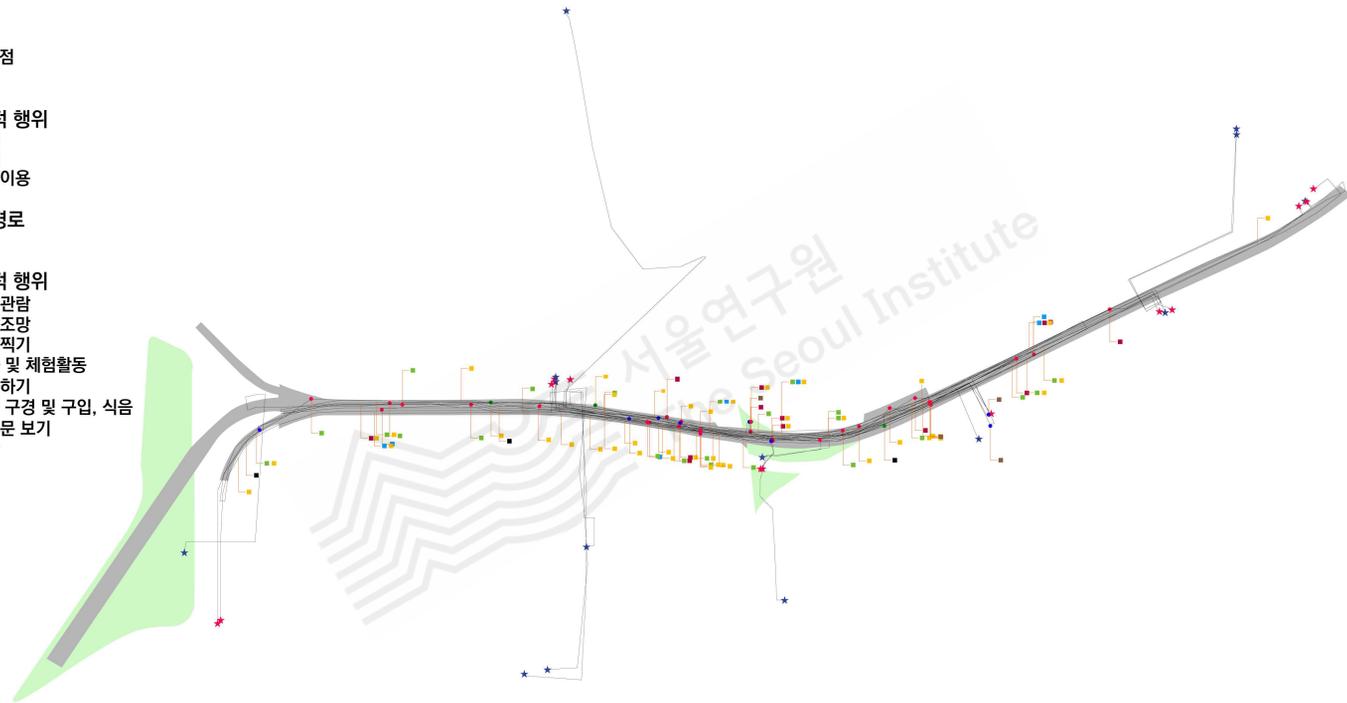
기본적 행위

- 서기
- 앉기
- 시설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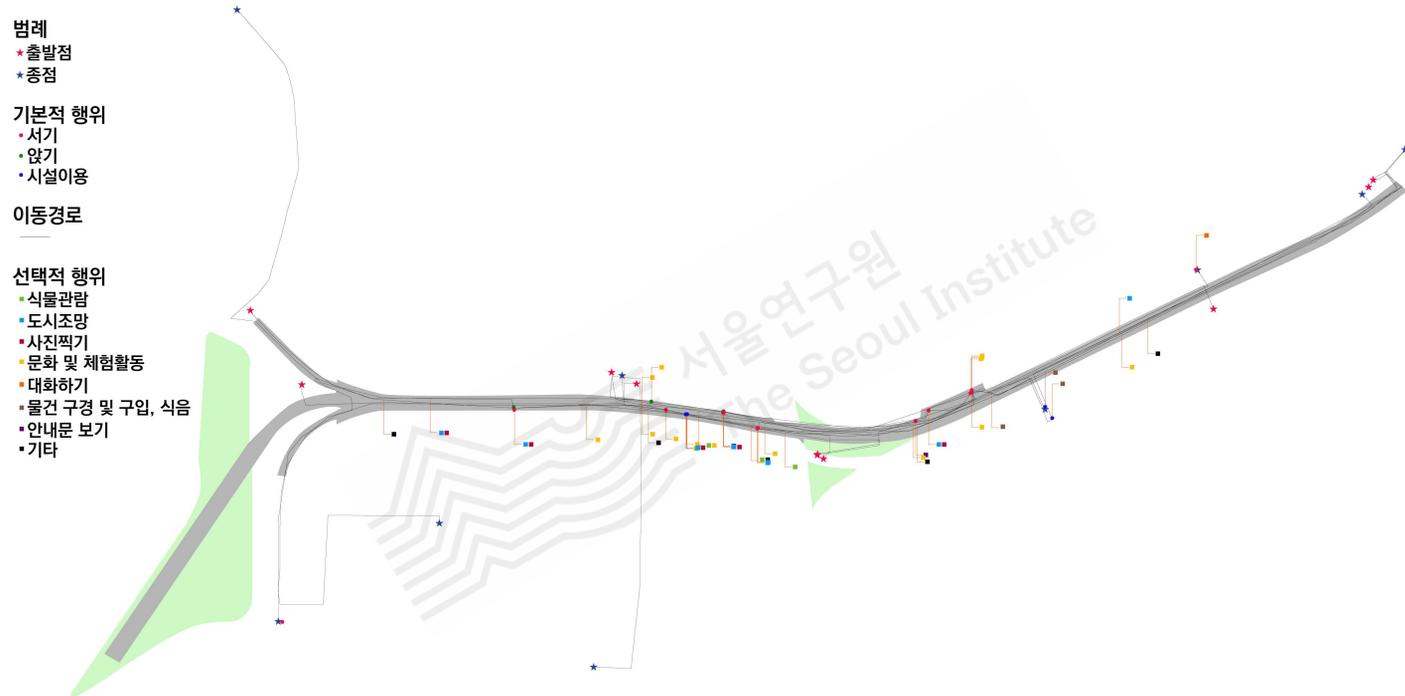
이동경로

선택적 행위

- 식물관람
- 도시조망
- 사진찍기
- 문화 및 체험활동
- 대화하기
- 물건 구경 및 구입, 식음
- 안내문 보기
- 기타



6) 주말 저녁



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Seoulo 7017 and Its Effect

Dosam Na · Jeonghwa Pan · Junghyun Lee

The Seoul Station Overpass, an industrialization heritage site and symbolic structure within Seoul, was reborn as “Seoulo 7017” on May 20, 2017. Seoulo 7017 is a skygarden with pedestrian road. It is advertised as a “road for people.” The road is 1,024m in length with width of 10.3m and a maximum height of 17m. Upon opening, various programs have utilized Seoulo 7017. Many people have visited Seoulo 7017 out of curiosity.

This study examined types of citizens using Seoulo 7017, the culture formed from its use, and changes occurred within the road’s surrounding areas after its opening. The space and its program management were analysed. Big data analysis was conducted. A survey regarding the space’s use was distributed, and an analysis of local changes caused by Seoulo 7017 was completed.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Seoulo 7017 itself is a success. As of December 31, 2017, approximately 7.4 million people had visited the site. Visitors usually spent their time walking, viewing the city, and admiring the vegetation on the pedestrian road. However, not many people visited communities surrounding Seoulo 7017. Most visitors stayed only on the road. As a result, little change has occurred in neighbouring areas. In other words,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the creation of Seoulo 7017 has not yet happened.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three improvement direction. First, the tourism environment needs to be improved for visitors. This can be done through using more information signs so that tourists can better navigate the area. Events related to the road also need to be

held in places surrounding the site rather than being hosted solely on the pedestrian road. This would encourage the distribution of visitors throughout the neighbouring areas. Second, the relationship with the operating team and stakeholders in surrounding areas must become closer. It is essential to create a governance system that includes individuals in the nearby areas, such as Urban Regeneration Cente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Culture Station Seoul 284. Third,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continuous monitoring to examine any changes in visitor type. Focus currently revolves around the number of visitors coming to the site. However, to make better use of Seoullo 7017, the usage pattern of visitors should be analysed. In the future, periodic monitoring of the actual use of visitors must be implemented to make improvements for the surrounding communities.



Contents

01 Research Overview

- 1_Introduction and Purpose of Research
- 2_Research Content and Methods

02 Building the Space of Seoulo 7017 and Current Operation Conditions

- 1_Construction Background and Process
- 2_Construction Status
- 3_Operation Status
- 4_Usage Status

03 Image Analysis of Seoulo 7017 through Public Opinion

- 1_Methods of Analysis
- 2_Change of Buzz Amount
- 3_Change of Interest Keywords
- 4_Changes of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s

04 Analysis of the Utilization of Seoulo 7017

- 1_Visitor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the Site
- 2_Analysis of Visitor Behaviour

05 Analysis of Changes in Areas Surrounding Seoulo 7017

1_The Perception of Seoulo 7017

2_Local Changes After the Construction of Seoulo 7017

3_The Future Direction of Seoulo 7017

06 Discussion of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Seoulo 7017

1_Expert Diagnosis: Future Tasks of Seoulo 7017

2_Conclusion and Suggestions



서울연 2017-BR-19

서울로 7017
시민 이용실태와
주변지역 변화

발행인 _ 서왕진

발행일 _ 2018년 2월 28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282-5 93530 8,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